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3월 5일(음력 1월 28일) 수요일 (주간) 제669호

功 불교 법안 총괄적 검토
過 종단·의원간 소통 부족

●어떤 법안 처리됐나?

17대 국회가 입법처리한 불교 관련 법안은 문화재 보호와 불사 규제완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삼보정재(三寶淨財)의 유실을 막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안'이다.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사찰이 불사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불가피한 불사에 대해서도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이라는 짐도 덜었다.

2월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최경환 의원 대표발의)'은 사찰이나 비영리 복지시설의 신·증·개축 시 예외 없이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28년 만에 가능하게 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 제정도 의미 깊다.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특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의결한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불교계 현안을 풀어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안 제·개정도 상당수 이뤄졌다. 2005년 12월에는 사찰 방제대책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문화재 보호법개정안이, 2007년 1월에는 도난문화재에 대한 민법의 선의취득 적용배제 조항이 신설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각각 가결됐다. 2004년 제정된 '고도(古都) 보존특별법'은 점(點) 단위의 문화재 정책을 면(面) 단위로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불교계 특혜'라는 오해로 삭감 위기에 처했던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금을 원위치로 되돌린 점도 17대 국회의 큰 성과로 손꼽힌다.

●17대 국회가 남긴 과제는?

17대 국회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뤄졌던 불교 관련 법안 검토 및 상정이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틀 안에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불교정책기획단에서 불교계의 현안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고, 그 결과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었다. 또한 조계종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이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불교 현안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고, 논의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지도록 해 대정부 창구 마련에 전기를 이뤘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몰아치기식으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마련하는 '문화재보호 기금법'과 해외소재 문화재의 조사·보존을 의무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폐사지 정비 및 복원을 골자로 한 '폐사지 보존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전히 '불자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있다. 불자의원들이 불교계와 국회의 가교임에도, 불교계가 요구를 읽어내고 이를 법안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일부 의원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불자 국회의원들을 인력풀로 관리하고, 주요 입법 활동에 동참시키는 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하나 17대 국회를 통해 대두된 문제는 종단의 대정부·대국회 대응 시스템 부재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전격적인 본회의 통과와 1주일만의 번안동의안 가결이라는 '해프닝'을 통해 조계종의 국회 입법과정 인지 및 대응 시스템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은 "앞으로 정무 인력 충원과 시스템 보강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17대 국회가 불교계에 남긴 것

지난 2004년 출범한 제17대 국회가 2월 26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17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 끝나지만 4월 9일 총선으로 인해 더 이상 법안을 심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의 17대 국회는 불교계에 어떤 공과(功過)를 남겼을까? 17대 국회에서 입법처리 된 불교 관련 법안은 어떤 것이 있고, 18대 국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템플스테이 체험하러 오세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이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내나라여행박람회'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하고 템플스테이 알리기에 나섰다. 2월 27일 참관객들이 인경(印經)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글·사진=박재완 기자

국회-불교계 가교 역할

●정각회는 어떤 모임?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은 누가 있을까?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회장 이해봉)는 국회와 불교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에는 전체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와 뿐 아니라 각 정당별로도 불자모임이 있다. 여당에는 '한나라당 불자회'가, 야당에는 통합민주당 '이타회'가 있다.

정각회는 관례적으로 여야가 번갈아 회장직을 맡는다. 17대 국회에서는 2004년 10월 제17대 정각회 출범 당시 이용희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이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2006년 4월부터는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이 회장직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안홍준 의원(한나라당)과 강창일 의원(민주당), 간사장은 이영호 의원(민주당), 간사는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최재성 의원(민주당), 감사는 이은영 의원(민주당), 박승환 의원(한나라당) 등 총 36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조동섭 기자

제17대 정각회 회원 명단

강길부(한나라당, 경북울주군), 강창일(민주당, 제주시), 권선택(자유선진당, 대전중구), 김병호(무소속, 부산진구), 김영주(민주당, 비례대표), 김재경(한나라당, 경남진주), 김정훈(한나라당, 부산남구), 김태환(한나라당, 경북구미), 김학송(한나라당, 경남진해), 박순자(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승환(한나라당, 부산금정구), 안홍준(한나라당, 경남마산), 엄호성(한나라당, 부산사하구), 유기준(한나라당, 부산서구), 유승민(한나라당, 대구동구), 윤원호(민주당, 비례대표), 이계경(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진(한나라당, 강원원주), 이광재(민주당, 태백영월), 이상배(한나라당, 상주), 이영호(민주당, 강진완도), 이용희(민주당, 보은옥천), 이은영(민주당, 비례대표), 이인기(한나라당, 고령성주), 이해봉(한나라당, 대구달서), 장윤석(한나라당, 경북영주), 정갑윤(한나라당, 울산중구), 정문헌(한나라당, 속초고성), 정봉주(민주당, 서울노원), 정종복(한나라당, 경북경주), 정희수(한나라당, 경북영천), 조성래(민주당, 비례대표), 주호영(한나라당, 대구수성구), 최병국(한나라당, 서울서초), 최재성(민주당, 경기남양주), 홍문표(한나라당, 충남홍성)

●17대 국회 불교 입법활동 누가 뛰었나?

"교계 여론 법안 반영 노력"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회장인 이해봉 의원은 17대 국회 임기 동안 '전통사찰법 개정'과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정각회 회장으로 여야를 초월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 의원은 '사찰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안과 '10.27법난 특별법'에 대해서도 중재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의원은 "정각회 회장으로서 불교 관련 부처와 국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임기내 교계정책 최다 지지"



통합민주당 윤원호 의원

'10·27법난 특별법' 발의의 주인공이자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번안동의를 이끌어 낸 윤원호 의원(통합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자회 정각회 내에서도 알아주는 '불자의원'이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문화관광위원회 활동을 해오며 불교계를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해왔다. 2005년 발간된 '사찰 출토 문화재 소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에서는 불교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불자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자의원으로, 국정활동을 성실히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10.27법난 특별법 발의 노력"



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용산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통합민주당 이은영 의원. 정치권에 있다 보니 신행생활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늘 마음을 비우고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운지는 오래됐다. 알고 보니 한국외대 교수 재직시절, 교수불자협의회 창립 멤버였고 여성불자회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27법난 진상규명특별법 발의에도 템플스테이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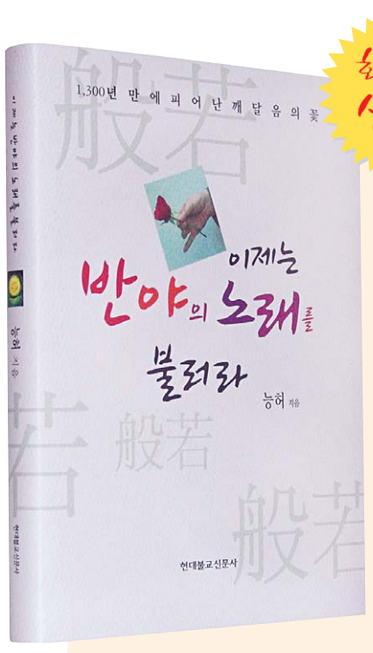
"앞으로 불교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해 사회를 위해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3.1절 휴무관계로 이번주 신문 배달이 하루 지연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정홍보처>

포살 불참땐 구족계 수지 불가

조계종 포살·결계 종법 입법 예고…3월 11일까지 의견 접수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화'를 위한 종법이 마련된다.

조계종이 2월 28일 입법예고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제정안)'에 따르면, 포살 및 결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족계를 수지할 수 없고 승가고시와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공동체의 공화의 전통을 계승하고…포살을 실천 · 수행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대중은 각 교구 단위로 연 2회 결제 전 결계신고를 해야 하며, 한 달에 1회 이상 포살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결계대상은 조계종단에 소속된 모든 스님이며 병환, 해외 유학, 출장 등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구성된다. 단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는 해당 학교에서, 군승은 군종교구가 정하는 곳에서 별도의 결계와 포살을 실시하게 된다.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대신한다.

포살은 교구본사에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시행일자와 포살 장소는 교구본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포살법회는 포살계사를 위촉한 후 포살 작법에 의해 행하며, 포살계본은 <범망경> 중 보살계 포살 낭송본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교구본사는 결계 신도자를 등재한 결계록을 작성해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총무원은 이를 연 1회 결계록으로 발간한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월 25~26일 제5, 6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제정안 초안을 검토했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3월 4~5일 열리는 7차, 8차 종헌종법제개정특위 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순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편, 조계종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1일까지 받고 있다.(02)2011-1710 여수령 기자

"종교·언론인 더 무거운 책임져야"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개최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5년의 제17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제하의 취임사를 통해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인류공영 이바지를 5대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이며,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져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종교인과 시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법주사 주지후보 단일화 범어사는 4명 등록 마감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의 차기 주지후보가 노현 스님(문경 각화사 태백선원장)으로 단일화 됐다. 3월 10일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는 법주사는 2월 22일 각 문중대표 50여 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노현 스님을 합의추대키로 했다. 운영위원회에는 43명의 스님이 참가했다.

한편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의 주지 후보에는 상운 · 정여 · 덕륜 · 광탄 스님이 입후보했다. 2월 28일 주지후보 등록을 마감한 범어사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6일 오후 1시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여수령·하성미 기자

신계사 불사추진위 4년만에 해산

"北에 운영권 요구 않을 것"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 복원을 위해 구성됐던 신계사불사추진위원회(총재 지관)가 2월 25일 해산됐다. 추진위는 지난 2004년 신계사 복원불사를 위해 구성돼 지난해 10월 낙성법회를 봉행하기까지 4년여 간 활동해 왔다.

추진위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복원불사에 앞장서 온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과 부위원장 도공 · 영조 · 명진 · 명성 스님을 비롯해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복원불사 사업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운영 경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공식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산보고에서는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한 총 수입 57억여 원과 지출 54억여 원에 대한 감사보고를 받고, 차입금 1억 5000만원은 조계종 총무부에 상환하고 잔금 1억4000만원은 목적기금으로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지관 스님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신계사 복원불사는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개 동을 복원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며 "이는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뜻이 모여 이뤄진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스님은 "지난해 12월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이 철수를 한 상태인데, 신계사 운영이 남북공동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신계사 복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북측에 공동 운영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은 "향후 신계사에 남측 스님이 상주하며 교류가 이뤄지는 방안이 모색되지 못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수현)는 지난 2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신계사 복원불사 등 대북사업과 관련한 종합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신계사 복원불사 및 대북사업 관련 종합 자료집 발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수령 기자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 공개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변경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가 오는 3월 중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문화재관람료'라는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변경한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관람료 내역 공개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시민들이 사찰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람료가 문화재의 관리 및 보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사찰위원회 소속 67개 사찰이 지난해 징수한 관람료는 330여억 원 수준이다.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 관리 및 홍보, 입장료 징수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관람료 폐지 의견을 밝힌 범어사와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백담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관람료 징수를 권유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사찰의 관람료는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단위사찰에서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관람료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령 기자

동방불교대 졸업식 개최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영우)은 2월 22일 전승관 대강당에서 제25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학장 영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학과 42명, 범패학과 11명, 승가학과 8명 등 총 61명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영우 스님은 식사를 통해 "종단발전과 종도화합의 초석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치사에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는 사회로 회향해 중생제도에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종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도 학위수여 전례식을 대강당 사자후전에서 봉행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본 종단에서는 석가세존의 자비사상바탕으로 수행정진에 힘쓰는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찰 및 사암등록을 환영합니다

※ 행자모집(스님이 되고자하는분) : 일체 교육비 받지 않음(6개월간 무료 교육) 스님 양성

※ 동자모집(불우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학까지 책임지고 교육)

ㅁ유관단체 (사)호국불교단체협의회, 세계불교무술총연합회,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세계불교고승연합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본 종단 입종후 종도연수교육 수료한후 승려증을 발급합니다.
※본 종단은 강원 및 율원 선원 불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음범패 이수 받으실분은 문의 바랍니다.
※본 종단에서는 무속인은 일체등록을 불허합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고원사
TEL : 054)382-3363,3397 / FAX : 054)383-5005 www.gowonsa.com

金丹비법공개

"현문선생 직접지도"

"깨달음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에서 얻을 수 있다!"

"육체에는 육체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무시한 체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관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불자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성명쌍수의 비법으로 지켜온 금선학회에서 2008 戊子年 百日 築氣班과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1. 제8기 백일 축기반 모집안내

모집 시기	2008년 3월 한달간
수련 일정	2008년 3월 10일 ~ 6월 18일까지 월수금, 화목토 (15:30~17:30, 19:30~21:30)
수련 장소	세계금선학회 본원 (사당역 11번출구 150M. 은혜빌딩 6층)
수련 내용	1. 금선 공법 : 금선 오행 기공, 금선 기치료법, 금선 관법, 명상, 묘유주천, 소주천, 대주천 2.금선 양생법 : 영보필법, 수도전지, 대성첩경 3.수진도 내경도 1. 제 8기 백일 축기반 모집안내

2. 신입회원 수시접수(사범반 특별운영)

3. 수련효과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정화기 과정(소주천과정)**을 수행하므로 건강을 위한 기의 참 맛을 체험하시고 생활 속의 道, 생활 속의 健康을 찾아 평생 건강을 이루시며 이번 교육으로 기초에서부터 올바르게 수련하여 "나의 수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다. (我命由我, 不由天)"라는 경전의 구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금선학회가 궁금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금선학회.net"만 치세요~

kumsun academy 세계金仙학회

교육문의 : 02)512-7057, 583-7057

"재가불교운동에 더 큰 관심을"

동산불교대 재가불교수련원 부지 쾌척한 광우건설 이종현 대표



때때로 한 사람의 결심이 불교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도 동문 한 사람의 희사로 재가불교수련원을 포함한 도량 '대아미타사' 건립을 눈앞에 두게 됐다. 보살행의 주인공은 동산불교대학원 동문 이종현 광우건설 대표(53)다. 이 대표는 2월 28일 동산불교회관에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약 3만평 임야를 동산불교대학 아미타사 재가불자수련원 부지로 쾌척했다.

"대아미타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사장님의 원력이 대단하셨습니다. 불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건립되는데 보탬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이 대표가 기증한 부지에는 대아미타사 사찰 및 평생염불원 · 정토염불원 · 명상원 등이 들어서 재가불자들이 연중 언제든 수련할 수 있는 종합도량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로써 동산불교대학은 교육 · 사회운동 · 수행 도량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다.

이 대표의 이런 결심은 사실 아내 전정해(47)씨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뤄지기 힘들었다. 이 대표가 처음 희사의 뜻을 비쳤을 때 오히려 아내 전씨가 더 좋아했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재가불교운동의 터를 닦는데 마음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가 희사를 결심한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새로 건립될 도량에서 재가불자들의 염불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대표는 현재 동산불교대학 연합포교사단에서 활동하며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김포 601대대 호국비룡사에서 전법을 펼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에게는 불심으로 어루만져야 할 아들이 많다.

"군법당에 나가보니 어려운 내용보다 쉬운 염불수행을 권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아미타사 건립도 재가불자들의 수행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가 한 일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재가불교운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 활동 시동

제2차 회의 개최 위원장 선출 ·실무위 구성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월 15일 위원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불참해 파행운영됐던 것과 달리, 위원장 선출 및 실무소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행보를 위한 소임분담이 이뤄졌다.

대책위 위원장에 선출된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갈망하는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소임을 수행하겠다"고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대책위는 위원장 법타 스님을 비롯해 원학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정호 스님(용주사 주지), 정안 스님(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최순열 부총장(동국대 학사부총장)이 참여하는 대책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안 스님이 총괄간사를 맡았다.

또 대책위원회에 총무원 기획실장, 석림회, 동국대 법대 동문회, 동국대 총동창회 등 4명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대책위는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합의돼 구성된 조직으로 조계종 중앙종회 2인, 조계종 총무원 1인, 교구본사 대표 5인, 중앙신도회 1인, 동국대학교에서 1인 총 11명으로 구성됐었다.

대책위는 소위원회에 대정부 활동 및 서명운동 등 상세방안 수립을 위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위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김주원 박광서 최윤진, 이하 종자연)이 청구인 4인의 의견을 공모하고 법률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했다.

종자연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정교분리 원칙 위배 및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침해 ▲종교적 상징물로 인해 타종교 국민의 투표소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권(제24조) 침해 ▲특정종교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를 훼손한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침해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 생활영역을 차별받지 않아야 할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청구대리인으로는 곽관열 · 김종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는 "입지여건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의 3분의 2를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강진 기자

東大 강의평가 공개 큰 반향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공개한 강의평가가 대학가는 물론 사회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07학년도 2학기 전과목에 대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2회 학생평가를 실시한 동국대는 학생들의 200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즈음에 이를 공개했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나온 강의평가 평점과 EX(Excelent), G(Good), P(Poor) 3등급으로 나눠 공개됐다. 강의평가 공개에 대해 평소 수강신청을 위한 정보에 목말랐던 학생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에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신성한 강의를 인기영합으로 유도한다"는 반발과 "다소 형식적인 평가를 전시행정하듯 언론에 흘린 것"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학교 측이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조동섭 기자

'대운하 반대운동' 확산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 출범…93개 단체 참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월 12일부터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생명의 강 지키기 불교행동(공동대표 보선 · 박광서)'이 출범했다.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불교행동에는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 지역 사찰 등 9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한생명 한 살림의 공동체를 가꿔왔으나, 지금 한반도의 근간인 백두대간을 토막 내고 생명의 근원인 강을 파괴하려는 반생명 · 반환경 · 반문화적인 구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명박 운하는 환경재앙, 문화유산 파괴, 식수대란, 홍수위험을 촉발하는 대재앙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를 대재앙으로 몰아넣을 구상을 거두고 대운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운하 건설은 사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행환경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우리 사부대중은 불교의 사활을 걸고 운하백지화의 대장정에 나섰다"고 천명했다.

불교행동은 앞으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순례에 적극 지원 · 동참하고, 도보순례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5월 21일 오후 2시 '운하백지화 범불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일 10시에 1분간 생명의 근원인 강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101 운동'을 전개하고, 1사찰 1회 환경법회 개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교행동은 3월 7일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에서 '운하 백지화 · 생명평화 발원 기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지구촌공생회 대표 월주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장)이 법어를 하고 김지하 시인이 참여해 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내포 가야산 세계복합유산으로"

조계종·중앙신도회 정책포럼 개최

수덕사 대웅전, 서산 마애삼존불 등 국보와 개심사, 보원사터, 사면석불 등 보물과 그 외 100여개의 폐사지가 위치한 역사 · 문화적 가치를 지닌 내포 가야산권을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지정하자는 포럼이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광용 위원(불교정책기획단 정책위원, 환경분석학 박사)은 기조발제를 통해 "수많은 문화유물의 존재가 곧 가야산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포 가야산을 세계복합유산 등재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임과 동시에 불교문화가 바로 우리문화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역사적, 예술적 유적 · 건축물 · 장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과, 미적 · 과학적 가치의 자연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유산, 문화 · 자연유산 특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유산 등으로 나뉘어 지정된다. 2008년 2월 현재 문화유산 660개, 자연유산 166개, 복합유산 25개가 지정됐다.

한국에는 1995년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를 시작으로 2007년 국내 첫 번째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까지 모두 8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다. 조동섭 기자



석 명 서(釋明書)

지난 2004년도에 매매된 극락사를 지금 매매한 것처럼 "개신교에 사찰 또 팔았다" 라고 보도한 법보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법보신문은 진실한 보도로써 불교언론지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극락사는 개인 사설사찰이고 재산은 개인소유(소유권)이다.

가. 극락사는 순수한 개인재산이고, 동 재산의 공동소유자중 1인이 납골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채무로 인하여 채권단이 구성되고 권리자들이 그 납골당을 매매한 것이다.

나. 그러나 법보신문은 이미 4년 전에 매매된 것이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개인간의 매매행위를 마치 태고종이 사찰을 고의적으로 개신교에 매매한 것처럼 일방적이며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

다. 또한 당시 시가 약 3억원정도에 불과하던 극락사를 납골당의 총 분양가로 추정하여 60억, 백억원대를 호가하던 것으로 보도 하였고, 마치 종단 총무원이 이에 개입하여 극락사를 편법 계약하였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로 태고종과 개신교측의 뒷거래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총무원은 극락사를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매매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 그 당시 극락사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보도로써 본인과 태고종을 모함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라. 이에 극락사의 전 주지인 본인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일방적이고 선동적이며 본인과 총무원을 음해하려는 의도적인 법보신문의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이번 사태로 극락사와 하등 관련이 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종무원과 종도여러분께 깊은 사죄와 참회를 드립니다.

2. 극락사 분쟁의 사실관계

가.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는 봉원사의 원로이신 고(故) 도암스님이 창건한 사찰로써 극락사가 문중(門中)사찰로 운영되어 영구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사찰재산을 당시 문도회의 대표적인 상좌(제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당시 극락사에 전세로 입주한 이모 스님은 도암스님이 돌아가시자 스스로 극락사의 주지행세를 하였다.

나. 이모 스님은 극락사를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화재로 인한 계약서 소실로 등기이전을 못했다고 주장) 아무런 재원(財源)도 없이 (주)삼웅산업 대표 김모씨를 만나 자신이 「극락사 소유권자」라고 속이고 사찰 및 납골당을 증 · 개축하여 분양이익금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납골당 건축과정에서 이모 스님은 납골당 봉안증서을 남발하고 분양업자 등을 속여 이중계약 등을 하고 분양대금을 독식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사기행위로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라. 이모 스님으로부터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수많은 민 · 형사상의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지 이모 스님이 납골당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종단 총무원에 이모 스님의 주지해임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총무원 규정부는 이모 스님의 비위사실 및 사기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자 이모 스님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의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주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종헌 · 종법에 따라 극락사 주지직에서 이모 스님을 해임하고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창건주인 고(故) 도암스님의 친손자인 본인이 새로운 주지로 임명되었다.

〈종무직원법에 따르면 이모 스님에 대한 주지 해임처분은 승려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고 종무직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무원장의 직권으로 해임이 가능한 행정적인 조치인 것이다.〉

3. 법보신문의 무책임한 보도

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극락사의 납골당 공사는 재원(財源)이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전임 극락사 주지 이모 스님이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법보신문에서 보도한 수십억, 백억대의 매각대금은 납골당 공사와 관련된 극락사의 부채이며, 공사대금과 법적소송비용, 그리고 이모 스님이 횡령한 금액일 뿐이지 그 외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극락사의 매각은 극락사 신도 운영위원회가 채권단과 극락사와 관련된 각종 민 · 형사상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지 총무원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은 납골당 매수인이 개신교 최모 권사라는 것은 추후에 알았을 뿐이다.)

다. 그리고 본인이 부득이하게 신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극락사를 양도하여 채권단과 소송문제를 해결하고 극락사를 이전 건립 한다」는 취지의 승인서를 종단 총무원에 요청한 것은 극락사 주지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라. 더구나 2002년 9월 이모 스님은 분양대행업자 최모(개신교 권사)씨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극락사 사찰 및 납골당을 최모 씨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함에 일체의 이의 없이 무조건 동의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사실상 이모 스님 본인이 극락사와 납골당을 개신교 교회재단에 매각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보신문은 이모 스님측 관계자의 주장만을 인용 하고 극락사의 전 주지였던 본인과 종단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이모 스님측 주장만을 거의 여과 없이 보도하는 행위로 언론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마. 법보신문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마치 본인과 종단 총무원이 극락사 매각과 관련하여 총체적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왜곡, 과장하는 추측성, 편파성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태고종과 종도,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4. 법보신문에 대한 촉구

가. 그간 법보신문은 불교계의 정론지로 수많은 불자들이 종교적 신앙심을 고양하였고 교화의 공간으로 불교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법보신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추측성, 음해성 보도를 함으로써 종교적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야할 언론에서 불교계와 개신교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물의와 파장을 확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 법보신문은 본인과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총무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많은 불자들의 신앙심을 추락시키는 보도에 대해서 지면을 통한 사과와 관련기사를 취재한 기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한 보도로써 교계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신망 받는 불교의 언론지로 거듭나길 바란다.

불기2552(2008)년 2월 21일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사 전 주지 고담

바람직한 절 불사는?

남원 실상사서 성찰·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가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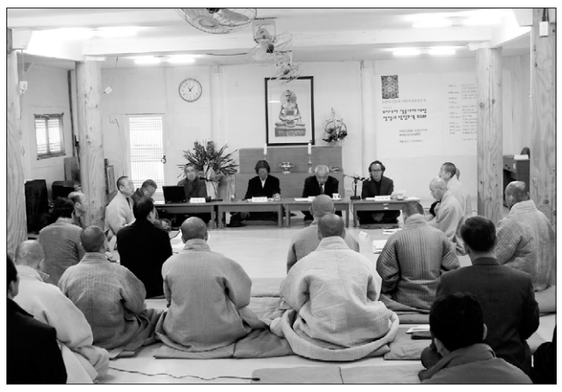
2월 28일 실상사 대중방에서 사부대중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안상수 교수(홍익대 미대)의 사회로 '우리나라 절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건축과)는 "과거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특성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하나 되도록 터를 잡아 수행을 위한 청정도량으로 삼았고, 건물은 전체의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 빈 공간마저도 전체와 어우러지게 건축했다"고 전제하고 "주변의 모든 것과 공생 · 공존 · 공영하는 건축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오늘날 건축은 터와 빈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졌고, 건물 규모가 기존 건물보다 월등하게 커졌다"고 비판하고 "불평등사회,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가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합한 사찰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대안으로 현대사회나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은 경내를 벗어난 새로운 터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재연 스님은 "출가대중과 재가자들이 함께 수행 · 교육 · 전법 ·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보전과 문화 활동의 공간,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전통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불교계 불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실상사 불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교장은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와 귀종인, 지역민과의 화해와 나눔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과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사례발표로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2월 28일 실상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불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대안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도법 스님은 "사찰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부대중 공동체를 통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시대정신에 맞는 불사로 진행해야 할 것"을 주문했고,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지난 10년간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의 규모와 시대정신이 부합하는 불사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실상사 주지 재연 스님은 "오늘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을 모아 앞으로 2~3차례의 세미나를 더 개최하여 2009년 10월까지 중창불사 계획을 완성하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등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조동제 전북지사장

"팔만대장경 연구·전승 온 힘"

해인사, 연구원·인쇄문화공방 개원 등 적극 지원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의 연구와 전승사업에 적극 나섰다. 해인사는 2월 20일 해인사팔만대장경연구원(원장 향적, 이하 연구원)을 개원한데 이어, 판각 ·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공방도 개원한다.

연구원은 그동안 해인사가 운영해오던 해인사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에서 진행해 오던 제원조사 및 전산화 사업에 더해 학술연구 사업을 중점으로 펼칠 예정이다. '팔만대장경대장경 종합센터'를 표방하는 연구원은 대장경이 조성된 시대적 배경과 사상, 문화는 물론 목판인쇄문화, 보존 및 전승 등 대장경을 둘러싼 총체적인 학문분야를 아울러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개원 첫 사업으로 오는 6월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2001년부터 진행해 온 보존연구원의 전산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원의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학술연구에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인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공방도 문을 연다. 해인사 아랫마을인 합천읍 가야면에 건립되는 공방은 인경 및 제첵, 치목, 판각 등 목판인쇄물의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관람객들이 직접 인쇄 체험도 해 볼 수 있게 꾸며진다.

해인사는 "연구원이 대장경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방을 통해 대중들에게 불교인쇄문화의 소중함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인사는 휴경지에 옻나무와 닥나무 등 팔만대장경판 제작에 쓰인 수목을 식재하는 등 대장경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령 기자

"軍불교 더 힘찬 행보를"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8주년 기념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김병관, 육군 대장)가 2월 22일 대전 계룡대 호국사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하고 국군불교 총신도회와 계룡대 통합신도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식전행사로 김병관 회장의 '반야심경과 깨달음' 강의와 육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에 대한 묵념 등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이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임충빈 육군사관학교장과 이봉원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이치의 해병대 사령부 부사령관이 수상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8주년을 맞아 더욱 정진하는 조직적인 역동적 모습을 보여준 만큼 군 불교에 대한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며 "15만 군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군 장병들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불총 비전21' 추진경과 보고와 군불자 결의 선포, 계룡대 호국사 합창단의 축가 등의 순서로 법회가 진행됐다. 군불총 비전 21은 군 내의 신행조직과 활동을 혁신해 군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자는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군불총은 앞으로 전군 차원의 신도 조직화를 이뤄내고 지역별 신행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친목 강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조국에서 왕생극락 하소서"

봉은사,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안치·천도재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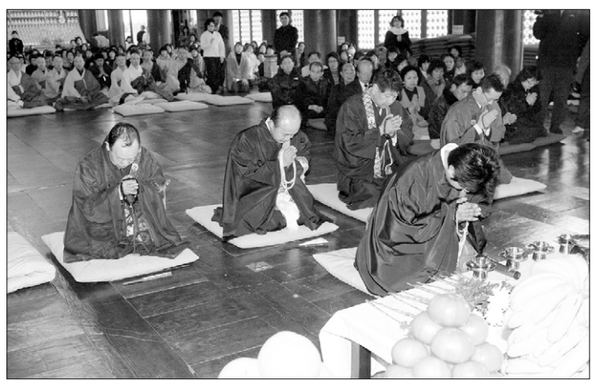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가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봉행됐다.

봉은사는 50여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4구의 유해를 2월 26일 봉은사에 안치하고, 27일 위령 및 천도재를 열어 넋을 위로했다.

이번에 돌아온 유해는 사찰 고쇼지와 호세지에 안치돼 있던 故 정영득(1929년생) · 이정기(1929년생) · 구연석(1928년생) · 조용문(1907년생)씨 등 네 사람이다.

이번 유해 반환은 도노히라 요시히코 스님(일본 일승사 주지)이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유해 송환 사업을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도노히라 스님은 지난 2005년에는 유족을 일본으로 초청해 고인들의 넋을 달래기도 했다.

2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천도재에는 유해 환국에 도움을 준 일본 스님 30여 명과 유가족 20여 명,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동포 네 분의 유해를 늦게나마 고국에 봉안하게 됐다"며 "유해가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준 도노히라 스님을 비롯한 사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2월 27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일본측 스님들이 강제 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교계가 양국 교류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은 종교가 사회발전과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유해는 28일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으로 옮겨져 봉안됐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익산 미륵사 복원사업 시동

市·문화재연구소 연구 협약

국내 최대사찰인 익산 미륵사 복원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월20일 익산시청에서 이한수 시장을 비롯해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용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 최완규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륵사 복원 고증연구 협약체결식이 열렸다.

익산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11억여원(국비 8억여원)을 들여 미륵사 복원을 위한 고증연구 로드맵 작성을 통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심층적인 고증연구로 복원 및 정비에 대한 방향성 설정, 복원 추진을 위한 단계별 주요사업 내용 및 목표제시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제무왕(600~641년)때 창건된 국내 최대사찰인 미륵사는 목조탑의 양식을 이어받은 국내에서 제일 오래되고 최대 규모인 미륵사지 9층 석탑(국보 제11호)이 있다.

이한수 시장은 이번 체결식에서 "천년고도 익산의 상징인 미륵사가 복원되면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대구회관 개원 법회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은 2월 26일 불교대구회관 만불보전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구회관은 1988년부터 대구지역 스님 및 불자들이 건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2003년 3월 대구 남구에 회관을 개관한 것에 이어 이날 만불보전 개원 법회를 봉행하게 됐다. 법혜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구 지역 불자들의 서원이 깃든 만불보전이 지역 포교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前 동화사 주지 무공 스님,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 태고종 대구종무원장 경묵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성원에 힘입어 노력할 것"

부산불교신도회 신임회장 공병수씨 연임



부산불교신도회는 2월 28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열린 총회에서 공병수 현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공병수 회장은 "이번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새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함께 운동하며 '한마음' 가꾸었어요"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20주년기념및회장취임식



"한마음장애인후원회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활동을 위해 장애인 축구뿐 아니라 탁구 등산 등으로 심신을 단련하도록 돕겠습니다. 취업 알선, 결혼식 후원 등 사회적응 지원사업과 시설 장애인 위문 공연,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 황국근 신임회장은 20주년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이 열린 2월 23일 부산 연산동 코리아나 뷔페에서 장애인 축구단 선수와 후원자 총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전진호 부회장의 보살심에 감동을 받아 함께 동참한 인연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1987년 장애인 축구단이 창단되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힘을 몰아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황국근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Na텔레콤' 대표를 맡고 있는 불자 실업인이다.

(사)한마음장애인후원회는 1987년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장애인 축구단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하는 단체이다. 장애인축구단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하성미 기자

'대한독립만세' 89년을 돌아본다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3·1절 제89주년 기념 평화기도회를 2월 27일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개최했다. 회장 정여 스님은 "산업시대와 함께 점점 애국애족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조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애국선열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여 스님을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정여 스님은 "부산의 종교인 상호간 친목과 화합하여 민족혼을 되살리며 따뜻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03년 반여성당에서 발족한 이 모임은 애국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3·1절 및 8·15 기념행사를 주최하고 생명사랑,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변신 중"

새로운 숲 가꾸기 사업 등 진행





속이 텅빈 벌목된 도토리나무(왼쪽), 통도사 경내는 숲 가꾸기가 한창 진행중이다.

속이 썩어 텅텅 비어 있던 도토리나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일년에 20여 차례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던 도토리나무는 통도사 경내 청류교 앞 도로 한 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다. 대형 관광버스 전용 솔밭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문제의 나무는 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 있어 대형 버스 운전자들의 고충거리였다. 이런 고민거리가 최근 해결됐다.

통도사 측에서 벌목한 것이다. 양산시에서 택시 운송업을 하는 김병갑(35)씨는 "통도사를 찾는 손님을 모시고 올 때마다 그 나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밤에는 어두운 경내라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컸었다"고 나무를 벌목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 거듭 강조했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지난달부터 숲 가꾸기를 진행 중이다. 썩은 도토리나무 벌목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안은 다 썩어 더 이상 클 수 없는 나무였기에 벌목했다고 통도사는 밝힌다. 통도사의 숲 가꾸기는 오래된 노송의 정취도 살리고 생장도 돕고자 진행하는 식목사업이다.

통도사 사회국장 진응 스님은 "현재 통도사에 있는 노송들은 단순한 소나무가 아니라 민족의 상흔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제의 소나무 수탈이 극심한 1920년대 후반 통도사에서도 소나무 수탈이 시작됐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구하스님은 친일파라는 오명을 감내하면서 통도사 주변의 나무를 지켜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킨 나무들은 훗날 동국대 전신 혜화전문학교 설립 기금으로 사용됐으며 마산, 양산, 울산, 창녕 등 각 지역의 포교당과 보광중학교를 위해 기부됐다. 구하 스님은 전쟁을 위한 재원을 포교와 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통도사 숲 가꾸기는 큰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노송들의 성장을 돕고 왜식이 짙은 나무를 제거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묘목을 심는 청정사업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라 휑한 느낌이 많고 눈에 익숙했던 나무들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지요. 현재 숲 가꾸기 행사는 3개월 동안 진행 중입니다. 왜색이 짙던 나무 50그루 정도를 베어냈고 약 150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 순수종으로 참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들이지요."

진응 스님은 숲 가꾸기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도사 불교도서관 앞에는 조경사들의 나무심기가 한창이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방문객들의 발자국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올봄 왕벚나무의 흐드러진 하얀 빛깔과 함께 잔디 아래에서 쉼을 즐기고 있을 불자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하성미 기자

'배움의 서러움, 경전 읽고자 극복'

삼광사 한글학교 제16회 졸업식 봉행

"처음에는 연필 잡는 것조차 어려워 감추고만 싶었습니다. 이젠 혼자서 은행도 갈 수 있고 일기도 씁니다. 나 자신이 대견해서 웃을 수 있는 오늘은 바로 주지 교장 선생님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삼광 한글학교 졸업자 대표 김설자씨의 답사이다. 67년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송사이며 답사이다.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는 가운데 2월 22일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봉행됐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삼광사 한글학교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기 때문이다.

주지 영제 스님은 "지금 사각모를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글을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용기 있게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고 축하했다.

졸업자 김두이(67) 할머니는 "이젠 경전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감사의 말을 반복했다.



2월 22일 부산 삼광사 한글학교 제16회 졸업식에서는 41명의 어르신들이 졸업했다.

삼광사 한글학교는 1992년 한글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고 올해 제16회 졸업자 41명을 포함해 1319명이 졸업했다. 하성미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의료원 선우도량

환자들의 꺼지지 않는 등불

부산대학병원에서 처음 자원봉사 시작
투병생활 도움되도록 부처님말씀 들려줘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 같다. 건강하게 생활하다가도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생각한다. "하필이면 왜 나일까?" 하고.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부산의료원에는 20년 전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활동 및 간병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천룡사 주지 효종 스님(사진)이 계신다. 그리고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13평 남짓한 '부산의료원 선우도량(이하 선우도량)' 법당이 있다. 이곳은 병원 내 법당으로서 불법을 만나고자 하는 환자들의 열린 공간이자 자원봉사자들의 상담소로 자리잡고 있다.

스님께 어떻게 병원법당이 설립됐는지 묻자 스님은 거침없이 그동안의 과정을 털어 놓았다.

"처음에는 부산대학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죠.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연산동에 있는 부산의료원병원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행려병동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소변을 치우고 있는데 병원장이 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오라하더군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법당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병원 한 모퉁이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우도량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다.

선우도량에는 매일 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병실방문과 투병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처님 말씀을 들려준다.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환자는 스님과 면담케 하고, 죽음을 앞둔 이에게는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임종기도를 해주는 등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 15년째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전복순(72세) 보살은 "그동안 각처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보호자가 없거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힘들어 하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자원봉사자 확충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병원에서 회색빛 옷을 입은 효종 스님을 모르는 환자가 없다. 스님은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한밤중에라도 아픈 환자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가 있으면 곧바로 달려간다. 그리고 스님은 그들에게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염불공양을 올리면서 마지막을 회향한다. 스님이 병원을 도량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둥지속의 대화>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부산의료원 선우도량 (051)607-2954, 816-7939 오세룡 부산지사장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定期總會

송광사 강원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스님들께서는 수행정진에 바쁘시더라도 수희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탁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2월 29일(금) 낮 12시
◇ 장소 : 서울 길상사

■ 안건 : (1) 동문회 수첩 제작
(2) 성지순례건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會長

"노인문화 창출·인력개발에 최선"

서울노인복지센터 2008년 운영계획 발표
미디어교육 실시·취업훈련센터 운영 등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올 한 해, 노인복지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는 오랫동안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서울 노인복지의 중심도 종로에 있다. 그곳은 바로 조계사가 운영지원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다. 노인문화의 대표 장소로 손꼽히는 탑골공원 인근에 있는데다 접근성이 좋아 복지계에서는 서울노인문화의 바로미터로 통하고 있다. 이는 이곳 하루 이용 노인수가 2000명이 넘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월 26일 2008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노인복지사업을 가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과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준비한 사업계획 중 특히 '뭔가 보여줄 것' 같은 사업은 문화복지와 인력개발이다.

노인문화 창출-문화프로그램

서울노인복지센터 모든 사업의 기조가 되는 것은 노인문화창출이다. 사회적으로 '노인문화'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지만 노인문화가 제대로 성립돼야 노인들의 터전도 마련된다. 그런 노인문화를 노인의 시각에서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올해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바로 이 점을 착안해 노인들이 직접 미디어의 생산자로 나서는 프로그램 '人terView(인터뷰)'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인미디어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노인에게 3~8월 전문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문화를 직접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가을께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노인미디어전문가 및 지역사회노인들의 작품을 접수, 영화제도 개최한다. 영화제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기획 · 촬영 · 편집한 영화를 10여 편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 준비된 미디어 프로그램은 '실버기자아카데미'다. 서울노인복지센터 이용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4~6월 기자아카데미를 열어 지적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사회문화 이슈를 공유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노인들이 가진 경험과 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노인 En-클린'도 눈에 띈다. 쉽게 말하자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환경운동을 통해 펼치는 것이다. 3~11월 시행될 이 프로그램에서는 빈 그릇운동, 환경캠프, 자원봉사학교 등을 시행, 노인이 실천가 역할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인력개발사업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노인인력개발 부분이다. 이 사업은 2004년 고령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노인취업훈련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노인인력개발은 자기개발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취업직종별 근무여건을 미리 숙지시켜 재취업 근무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까지 역할극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이다. 고령재취업자의 현장적응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다.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노인의 경륜을 적극 활용해 노인을 설문조사원으로 양성, 전문적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탑리서치'는 올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에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고졸이하 학력 노인들을 설문조사원으로 활용하며 개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취업훈련센터 송화진 과장은 "어르신들의 경우 업무 속도는 느리지만 경험이 많아 면접조사 등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에서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며 어르신들이 가진 다양한 재취업 능력을 강조했다.

건강이 최고-건강지원사업

노인에게 특히 많은 질병인 당뇨 · 중풍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행원' 사업도 눈에 띈다. 당뇨나 중풍은 생활 습관 개선, 식이요법 등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질병을 올바로 관리하고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노인 자조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효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등축제를 진행, 어버이날과 경로효친의 의미를 살려 나눔과 효를 함께 실천할 계획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일문 스님은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면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도 만족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아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구미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가입 자격이 까다로운 것은 아닐까.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서울·경기권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관심있는 프로그램은 신청할 수 있을 때 바로바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 www.seoulnoin.or.kr
(02)739-9501



노인이 문화의 주역이 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문화·인력개발·건강지원 사업으로 노인 문화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골수기증 · 환우돕기 등을 통해 생명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대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오늘날 불자들의 생명나눔 원력이 여기까지 온 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컸겠지만 이곳에서 말없이 봉사해온 이들의 노고도 대단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손강자(66·사진)씨의 열성은 그 누구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봉사 덕에 활력 넘쳐요"



"에이,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처음 손씨를 만나자 부끄럽다고 손사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이나 기타 행사를 열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언제나 활기차고 당당하던 손씨였지만 인터뷰만은 쑥스럽다며 웃는다.

그는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정기적으로는 소식지 발송 작업을, 부정기적으로는 캠페인 동참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한 활동이니 이제 10년이 다되어 간다. 또한 일주일에 2번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안내데스크 봉사자로도 일하고 있다. 모두 그의 상냥한 말씨와 잘 어울리는 봉사다.

손씨가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는 위기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이른 나이에 가정을 이뤄 주부로 바쁘게 달려왔던 그였다.

10년째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
"장기기증 동참은 불자다운 삶"

자식 셋을 키우랴, 또 손자들을 건사하랴 눈코 뜰 새 없던 그의 일상이 큰딸의 미국 이민, 며느리의 전업주부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변했다.

"전 원래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 돌보는 일이 끝났다고 느껴지니 모든 것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올 뻔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다. '광명요양원'에서 봉사자를 구한다는 전단지였다.

"보자마자 무작정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할머니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적성에 맞구나 싶었죠."

손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얻은 것이 오히려 너무 많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활발한 성격을 되살려 줬기 때문이다. 봉사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활력을 얻어 가고 있는 요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절로 피어난다.

시작은 요양원이었지만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에게 '봉사의 고향'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선 그 뜻에 동의하고 있어서다. 죽어서 없어질 몸을 내놓는 정신이야말로 불자다운 생각이라는 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열성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재밌는 경험도 참 많았어요. 지금이야 '장기기증'이 사회적으로도 흔한 말이 됐지만 5~6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끔찍하다며 피해 다녔죠."

요즘 그는 '조금만 더 젊다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단다. 봉사에 자꾸 욕심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사처를 한 군데 더 늘리기 위해 노숙인 시설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배곯는 이웃이 그저 밥 한술이나 제때 떴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부끄럽지 않은 봉사자로 남고 싶어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요. 봉사는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Hypnosis Career College) 학술교류 협정

제33기 최면 「전생 · 빙의 특별 워크숍」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개강안내 3월 13일 10:00~17:00까지
수련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과정별 교재 및 수련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박사 직강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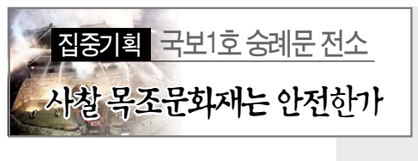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현재 접수중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전화 : 042) 255-0734~5

사찰별 방재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3월 5일 새벽 3시, 충청도 ○○사찰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범종각 내에서 최초 발생한 화재는 열감지기에 의해 인근 소방서로 자동 신고됐고, 동시에 경내에 화재경보가 울렸다. 주지스님 이하 대중들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재난시 임무카드'를 꺼내 확인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A 스님은 소화전으로 뛰어가고, B 스님은 경내 외곽의 방화수 탱크로 달려갔다. C 스님은 소화기를 들었고, E 처사는 소화기 용량이 부족할 것에 대비 다른 전각의 소화기 여분을 범종각 인근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화재 장소를 확인한 방재대장은 매뉴얼에 따라 화재 진압 지휘를 하며 배치된 인원을 점검했다. 확인해보니 D 스님이 없었다. 주지스님이 방재 매뉴얼 조직도에 따라 대체 인력을 알아보던 순간, 외부 연락을 담당하던 F 처사가 D 스님의 임무를 위해 법당으로 달려왔다. 10여분 후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화재는 진압 마무리 단계였고 다행히 법당은 큰 손실을 입지 않았다. 물론 방화용의자는 며칠 후 녹화된 CCTV를 증거로 검거됐다.

방재 교육과 방재 설비 그리고 방재 매뉴얼 모두가 완벽하게 갖춰진 때를 가상한 예다. 현재 이와 같이 방재에 나설 수 있는 사찰은 몇 곳이나 될까? 본지 확인 결과 개별 방재 매뉴얼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그동안 국가나 종단 차원에서 방재 매뉴얼이 없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이 발간한 <2006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보고서>에는 종단차원에서 준비된 방재 매뉴얼이 있지만 시안일 뿐 실제 화재 발생시 별 도움이 못된다.

2005년 12월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화재 위기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중요건조물문화재, 사적지 내 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의 화재 시 활용하도록 제공했다. 산중 사찰의 산불피해를 막고자 산불재난에 대해서도 별도의 매뉴얼을 제공했지만,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매뉴얼도 정작 화재시 아무 쓸모가 없다.

문화재청 매뉴얼에는 화재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뒤 침착한 소화활동을 통해 주요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등의 상식적인 문구와, '화점(火点)에 접근 시 낮은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등의 일반적 지침만 나와있다. 목조건축물에 맞춰 발화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의 실제 화재 시 필요한 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4일 문화재청이 향후 2년 안에 목조문화재 124곳에 대한 첨단방재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문화재 화재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 소방당국 등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실측도면 등 문화재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나섰다.

방재 매뉴얼 작성은 왜 필요할까?

2005년에 만든 매뉴얼 실제 화재시 도움 안돼

사찰별 특성 감안한 유형별 매뉴얼 만들어야

매뉴얼은 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모아놓은 책자다.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방재 매뉴얼을 작성하면 평상시 방재설비 구축, 방재훈련등 준비는 물론 위급시 대처 원칙을 정할 수 있다. 매뉴얼을 따라 소신 있는 행동도 가능하며 책임소재도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방재 매뉴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미국의 경우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단계별 행동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황별 대응방안보다 진행단계별 스탭의 역할을 위주로 정리했다.

일본은 시나리오 별로 개인 행동요령이 상세히 논의돼 위급시 매뉴얼만 갖고도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과 같이 행동을 규정해야겠지만 차츰 미국처럼 단계별 스탭의 역할을 명시해 규정보다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사찰 방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 정밀실사가 우선이다. 김봉열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는 "사찰 방재 매뉴얼은 전체 사찰에 대한 정밀실사 후 개별 사찰 특성을 감안한 유형별 매뉴얼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매뉴얼에는 정밀실사 후 실측도면, 평상시 방재설비 설치 규정과 문화재 책임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방재훈련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위급상황을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위원(문화재위원회, 前 동국대 교수)은 "사찰 방재 매뉴얼의 행동요령은 예방과 초기진화로, 방재설비는 건축물 특성을 감안해 소방약재와 소방기구 선택으로 나눠 정리하면 좋을 것"이라 말했다.

숭례문 참사 이후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찰 상황에 맞는 방재 매뉴얼을 만들고, 화재 시 현장을 지휘할 총책임자를 두고 평상시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숭례문은 갖지 못했던 관리법령 · 전문가 · 매뉴얼을 전국 사찰들은 얼마나 빨리 갖출 수 있을까? 조동섭 기자

일본 화로 장식으로 훼손된 우리 문화재

한선학 스님, <한석봉 초서 천자문>, <유충렬전> 목판 공개

숭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 보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온 국민이 문화재 보호를 외치는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목판이 일본인의 완상용 소품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식 화로로 장식된 <한석봉 초서 천자문>(왼쪽)과 분첩이 된 <유충렬전> 목판.

2월 27일 공개된 2개의 목판 작품은 모두 원형이 아니었다. 구한말 1899년(광무 3년) 완산(전주)에서 제작된 <한석봉 초서 천자문> 목판 4장은 일본식 소형 4각 화로인 '이로리'(41×41×34㎝)의 외곽장식 용구로, 한글소설 <유충렬전>의 목판 원판은 원형으로 재가공돼 일본 여인의 분첩(10.5×10.5×2.5㎝)이 돼 있었다.

<한석봉 초서 천자문>과 <유충렬전>을 공개한 이는 고판화 수집 전문가인 선학 스님(원주 명주사 주지)이다. 군승 장교 출신인 스님은 평소 판화에 관심이 있어 수집했고, 수집품들을 모아 2004년 명주사에 고판화 박물관을 개관한 판화 전문가다.

일본식 화로로 변형된 '오륜행실도목판'을 2년 전 공개하기도 했던 스님은 그 후로도 한국 목판 문화재가 장식용으로 일본에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국내 및 일본의 고미술상을 뒤지다 공개한 유물을 입수했다고 한다.

선학 스님은 "궁중판이나 사찰본 등과 달리 판매용으로 제작됐던 방각본의 보존은 부실했다. <한석봉 초서 천자문> 목판은 방각본으로는 최초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함께 발견된 <유충렬전> 목판도 기존 발굴됐던 <삼국지> 목판 원판 1장 이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유충렬전>은 구한말 출판된 완판본 한글고전 소설로 <조웅전>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작품이다.

공개된 자료에 대해 학계는 어떻게 평가할까? 남권희 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는 "조선후기 방각본 출판으로 유명한 전주지역에서 제작된 목판으로 지역사적, 서예사 · 판각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유물 공개로 숭례문 참사와 더불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정책은 물론 사회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조동섭 기자

우리 학회는 | (9)전자불전 · 문화재콘텐츠 연구소

ebtc.dongguk.ac.kr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완료 가장 큰 성과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1997년 12월 불교학과, 선학과, 국어국문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전자불전 관련 학문의 여러 교수를 중심으로 '전자불전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현재의 명칭은 불교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 수행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변경 · 사용됐다. 매년 수차례 학술세미나를 열고, 1회 학술지 <전자불전>을 발행해왔다. 한국불교전적 전산화, 불교 사이버 박물관 구축, 불교 디지털 도서관 구축 등 전자불전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해왔다. (02)2260-3504



2월 16일 대만에서 열린 전자불전협회 연합국제회의에 참석중인 보광 스님(가운데), 황순일 교수(왼쪽), 이재수 교수.

격식 없는 불교적 현실 이해의 장 마련돼

불교월례포럼 간화선 주제로 첫 모임

학회에서 나누기엔 다양한 말, 한담으로 흘리기엔 담고 싶은 말들을 한자리에서 할 수는 없을까? 신규탁 교수(연세대), 홍사성 위원(불교평론 편집위원), 윤창화 사장(민족사) 등 교계 재가일꾼들이 뜻을 모아 '불교월요포럼'을 만들었다.

첫 모임은 2월 25일 청진동 까페 '미운 돌멩이'에서 간화선을 주제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성본 스님(동국대 교수)은 '간화선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주제 발표를 통해 "중생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국불교의 선수행 실태를 비판했다.

윤창화 사장 등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법은 없고 사람만 남은 한국불교가 문제다" 등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을 지켜본 한 참석자는 "실참이 부족한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라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재가자들 사이에서 한국불교의 비전을 논하는 토론마당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월요포럼은 매월 1회 견지동 인근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음 포럼은 3월 17일 오후 12시 청진동에 위치한 까페 미운 돌멩이에서 '불교의 性, 철학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02)739-5781 조동섭 기자



토론중인 성본 스님(오른쪽)과 홍사성 위원 .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1. 49재 및 천도재 의식(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게
-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점안의식 강의 포함
※매주 수요일 13시

2. 윤달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매주 수요일 17시 30분

3. 상주권공재 의식
※매주 수요일 16시

4. 매화 역수 사주학과정(6개월 과정)
(강사 : 도연스님)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준 비 물 녹음기, 필기도구

개 강 일 2008년 3월 26일

◆녹화, 촬영 절대 금지.
◆본광고는 연 2회 게재합니다.

송강 범음 · 범패 전문강원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미륵당 011-258-0314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입 종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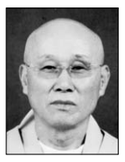
◇입종 안내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 등본 1부
- ●승적 증빙서류(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문의 및 접수처 : 사단법인 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총무원 (051)527-5431~2 팩스 (051)527-7733
· 경남종무원 (055)853-0479 휴대폰 011-583-0479
· 중부종무원 (043)648-8942 휴대폰 010-8849-9573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휴대폰 019-522-0318

일주문



정각원 토요법회 정기봉행
동국대 정각원장 종호 스님은 서울캠퍼스 교내 정각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기 법회를 봉행한다.(02)2260-3016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수료
대한불교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정을 수료하고 2월 25일 졸업했다.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단 단장 선임
최명준 불교방송 전무는 2월 22일 강화 법왕사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육해공군 예비역법사단 단장으로 재선임됐다.



불교특강 및 원효학당
한국불교연구원 정병조 원장은 3월 11~13일 '삼보(三寶)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새봄맞이 불교특강을 개최한다.(02)762-5624



동아 소설창작교실 개원
대진대 이우상 교수는 '동아 소설창작교실'을 개원하고 창작 및 합평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한다.010-3364-1416



이상배 화백 문경에 작업실 오픈
한국문인화가 심천 이상배 화백이 경북 문경에 화실을 내고 작품활동과 후진 양성에 나섰다. 3월부터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한다.011-256-9524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 임명
김규칠 前불교방송 사장은 2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25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도법 스님 포스코 청암상 수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이 제2회 '2008 포스코청암상'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스코청암상은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이념인 창의, 인재육성, 희생·봉사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봉사상·과학상·교육상 등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선정위원회는 "도법 스님이 실천하고 있는 생명평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대안 교육은 '봉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은 3월 25일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1층 로비에서 열리며 부문별로 상패와 상금 2억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강진 기자**

'오늘의 세계와 불교' 특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월 27일 '오늘의 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강건기 교수(전북대 명예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신불사 장학금 전달식



울산 신불사(주지 혜성)는 2월 24일 신불사 법당에서 제4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은 2004년 발족한 신불사 '자비회' 회원들이 월 회비를 모아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지 혜성 스님은 "봉사활동은 밖으로 드러낼 일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와 나눔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문학상에 정완영 정진규 오정희 장영우씨 선정



정완영 시를 찾아 헤매보니 그길에 불교 있어
정진규 용맹정진 길 허락받았음 스스로 확신
오정희 주어진 시간 문학 길로 가라는 격려로
장영우 초발심으로 정진하라 받아들이겠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3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정완영(시조) 정진규(시) 오정희(소설) 장영우(평론)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정완영의 시조작품집 <정완영시조작품집>(토방 2006), 정진규의 시 '껍질'(불교문예 2006년 가을호), 오정희의 장편소설 <새>(문학과 지성사 1996년), 장영우의 평론집 <거울과 벽>(시작 2007년) 등.

시조부문 수상자 정완영 선생은 "고목나무 굽은 가지가 없었더라면 허심한 밤하늘을 달이 가다가 어디 가서 쉴 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겠는가. '고목나무 굽은 가지' 그게 내게 있어서는 나의 시 나의 불교였다"며 "시를 찾아 나선 세월이 올해로 60년, 시를 찾아 헤메다 보니 그 길에 불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시부문 수상자 정진규 선생은 "선시일여(禪詩一如)라 할까. 그동안 나는 유현음(有絃吟)으로 또는 무현음(無絃吟)으로 그에 꽤 경도한 시편들을 노래해 온 셈"이라며 "이 상을 계기로 용맹정진의 길 하나는 허락받았음을 스스로 확신코자 한다"고 말했다.

소설부문의 오정희 선생은 "이 생에서 주어진 시간의 끝까지 성심껏 문학의 길을 가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다"는 말로, 평론부분의 장영우 선생은 "초발심 그대로 열심히 정진하라는 경책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수상의 기쁨을 밝혔다.

제13회 현대불교문학상 심사에는 이근배 시인(심사위원장), 김재홍 교수(문학평론가·경희대), 신달자 교수(시인·명지전문대), 오세영 시인(한국시인협회장), 윤후명 소설가, 이상국 시인(만해마을운영위원장), 조정래 소설가, 최동호 교수(시인·고려대), 홍성란 시조시인 등이 참여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현대불교문학상운영위원회는 2월 27일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을 발표하고 4월 2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임연태 기자**

"불교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

울산불교신도회 고태인 신임회장



"울산불교회관 건립과 불교방송 개국을 앞두고 앞으로의 과제가 많아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더욱 열심히 하여 중요한 과제를 여법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울산불교신도회 신임 회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2월 27일 울산 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홀에서 울산불교신도회는 신임회장이·취임식을 거행했다. 19대 회장 고태인씨는 동린운수주식회사 및 동린물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울산불교실업인회의 대표 주자로 뽑힌다.

"취임하는 자리에 서니 솔직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울산불교신도회를 이끌며 가꿀 사업에 대해 고 회장은 ▲봉축 행사 및 불교합창제를 통한 문화사업 ▲부처님 전 법활동을 위한 포교활동 및 수행을 위한 수련회 개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중요 사업으로 뽑았다. **울산=하성미 기자**

김봉석 변호사 법률사무실 열어



前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봉석 변호사가 2월 28일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사무실 'P&P법률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첫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에 임명돼 5년 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개업인사를 통해 "경륜이 초석이 되었던 종단 소임을 접고 보다 넓은 법보시를 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다"며 "총무원에서 세속법 및 종헌·종법과의 상관관계와 일반 변호사가 알지 못하는 사찰의 어려움을 경험한 이력을 바탕삼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석 변호사가 개업하는 'P&P 법률사무소'는 조계종 법률전문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김형남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일본 게이오대를 졸업한 박종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연세대 출신의 김장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고려대 출신의 이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함께 한다.(02)535-9994 **여수령 기자**

"찬불가 부르다 보면 신심 절로 생겨요"

익산 관음사 가릉빈가 합창단 문순복 신임회장



"합창단의 활동도 수행정진이며 봉사, 포교의 장이라 저는 믿습니다.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을 가꿀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2월 25일 익산 관음사 가릉빈가 합창단 신임 회장을 맡게 된 문순복 회장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난다.

매주 화요일 모여서 실전 같은 연습을 한다는 가릉빈가 합창단은 익산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합창단이다. 법회는 물론 각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합창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불교의 인연법을 알고 실천하는 단원들의 열정이다.

아름다운 소리로 불보살님과 대중에게 공양하기 위해 이재엽 지휘자의 리드에 맞추어 실전 같은 연습이 이루어진다. 음성공양의 원력으로 모인 단원들 하나하나가 성대를 가다듬고 음률을 고르며 연습에 집중하는 모습은 합창삼매 그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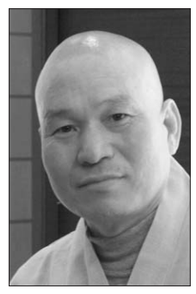
합창단은 매주 일요법회와 매월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의 일상법회와, 초파일, 백중 등의 연중행사, 그리고 지역대내외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하고 있다.

"합창단은 화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합 없이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지요."

문 회장은 "관음사 원성 스님을 중심으로 합창단의 홍보에 노력해 합창단의 규모를 늘리고, 사찰행사 뿐만 아니라 교도소등 음성포교에도 주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화음을 5월에 열리는 불교합창제에서 선보이겠다고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 만드는 것도 수행입니다"

천연 향 제품 개발한 향다원 청오 스님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천을 누비며 사시사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빻고 찧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향다원 천연 향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혜사에서 정각향 창시자인 故 송정도 옹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 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신문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십가지 야생천연재료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쑥·아카시아·박하·솔잎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목을 향재료로 사용한다는 스님은 "아카시아는 개화 후 2~3일 안에 채취해야 하고, 솔잎은 한겨울 눈 내린 뒤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풀잎마다 꽃잎마다 채취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 재료 채집부터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0ml 한 병의 엑기스를 증류해 얻기 위해 한가마니의 풀잎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손수 재료를 채취하고 향을 만든다고 한다. 또 향을 발산하기 위한 청자로 된 향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며 공부라는 스님은 "공양 중 향 공양이 으뜸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우리 향을 통해 불자들의 건강과 신심을 북돋고 싶다"고 말했다. (055)941-1083 **조동섭 기자**

교단자정센터 정보관리국장 손상훈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2월 20일 정보관리국장에 손상훈씨(前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를 임명됐다.

손상훈 국장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것을 비롯해 2000년대를 여는 선재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북한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 조직위원회,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조계종 포교사단 등에서 활동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같은 날 교단자정센터 손옥균 정보관리팀장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기획팀장으로 보직 변경했다. **여수령 기자**

동련 2008년 총회 개최 및 공로패 수여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은 2월 22일 부산불교회관 4층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포교 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은 (사)동련 이사 정여 스님께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2008년에도 더욱 노력하고 부처님의 법을 우리 불교문화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더욱 고심하고 성장하자"며 동련 사무국과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여 스님은 "공로패를 받은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여긴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성미 기자**

서울불교문화대학 보살계 수계식 봉행



관음종 종립 서울불교문화대학은 2월 26일 낙산묘각사 대불보전에서 2007학년도 불교학과 제1기 학위 수여식과 함께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홍파 학장스님은 졸업 식사를 통해 "부처님 법을 배우는 데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서는 총 33명이 졸업장 및 보살계첩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은해사 승가대학원 학위 수여식



은해사 승가대학원은 2월 27일 제4기 졸업식 및 삼장강사 학위 수여식을 봉행했다. 수여식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월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큰 원력을 세워 불교중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덕산불교대학 졸업식



덕산정사(주지 해암) 덕산불교대학이 2월 24일 제3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예천사암연합회 고문 지오 스님과 해동종 총무원장 혜원 스님, 태고종 영주분원장 진효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 해안 스님은 "농사를 짓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매주 목요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온 졸업생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백제불교문화대학 졸업법회



대전백제불교문화대학(학장 사재동)이 2월 23일 제5회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1학년 수료생 77명과 2학년 졸업생 44명, 대학원 졸업생 24명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한대희씨가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대학이사장상, 학장상, 대학원장상, 동문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한편, 대전백제불교문화대학은 3월 3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042)471-8214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금강불교대학 3회 졸업식



천태종 대성사(주지 도산) 부설 대구금강불교대학(학장 윤수현)이 2월 24일 제3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졸업식에서는 보통과정 수료자 82명, 고급과정 졸업자 70명이 배출됐다. 정산 스님은 "지식과 신앙심의 균형을 이뤄 자비 보살행을 실천하는 금강불교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2월 24일 룸비니 동산 연못에서 열린 '세계평화염원 촛불 법회' 모습.



한국인 최초로 선묵혜자스님이 코이랄라 네팔수상에게 평화훈장을 받고있다.

부처님 진신, 세계평화 염원 안고 귀향 '감격'

108산사 순례기도회, 네팔 룸비니서 세계평화기원 법회 열어

수상 등 네팔 정부 순례기도회 환영의 물결 넘쳐
108 네팔 어린이 위한 초등교육 선혜학교 현판식
코이랄라 네팔수상 선묵혜자 스님에게 평화 훈장

매월 5천여 불자가 한꺼번에 전국의 산사를 찾아가 기도와 농촌 직거래 장터 등으로 화제를 뿌려온 '108산사 순례회'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네팔을 방문했다. 기도와 봉사의 영역을 해외로 확대한 것이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였다. 하나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하는 것이다.

또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개교를 앞둔 선혜학교 현판식 참석도 방문 이유 중 하나다. 지난 2006년 9월 첫 순례 이래 '108산사 순례회'가 해외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 출발 전부터 국내는 물론 네팔 현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전세기로 7시간에 걸쳐 인천에서 네팔로 날아간 300여 108 순례기도회원들은 첫날(23일) 카투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선혜 학교로 달려갔다. 네팔에 초등 교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안 선묵혜자 스님이 108명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보금자리다.

현판식에서 람하리 조쉬 선혜학교 초대 교장(前 네팔 교육부장관 · 72)은 "네팔의 미래가 바로 이 어린이들의 질높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학교 개원은 네팔로서는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내달부터 108순례 기도회는 매월 300여 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원식에 이어 크라운 플라자 솔티 호텔 만찬장에서는 네팔 정부의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리자 프라사드 코이랄라 네팔 수상(87)은 축사를 통해 "현재 네팔은 과거 갈등의 시기를 지나 결연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평화의 시점에 와 있다"며 "이번 108산사 순례기도회원들의 방문은 네팔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자비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사말에 이어 코이랄라 수상은 108산사 기도순례회 회주인 선묵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에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평화훈장을 수여 했다. 이날 공식 만찬 행사에는 수바스 넴방 국회의장을 비롯해 촉기 님마 링포체, 사하나프라단 외무부장관 등 20여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이날 행사 장면은 네팔 국영TV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는 등 다수 현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다음날(24일) 새벽 카투만두에서 버스로 10여 시간을 달려 룸비니로 이동한 순례단은 한국절인 대성석가사에 여장을 푼 뒤 밤 9시부터 '세계평화염원 촛불법회'를 룸비니 동산에서 봉행했다. 룸비니 성지는 넓은 구역을 공원화해 정리해놓았는데 주변에는 세계 불교국가에서 세운 30여 사원들이 있다.

법회 장소는 마야부인이 룸비니동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기를 느껴 출산을 하고 몸을 씻었다는 연못이었다. 순례 회원들은 깨끗이 정리해 놓은 사각형 연못에 1m 간격으로 촛불을 세워놓고 반야심경 등을 독경하며 세계평화를 간절히 발원했다.

이번 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셋째날(25일) 부처님 진신 이운 법회였다. 붉은색 건물을 지어 당대 건축의 잔해를 보존하고 있는 부처님 탄생지에 인도 쿠시나가르(열반지)에서 이운된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셔 놓고 혜자 스님의 집전으로 법회를 봉행했다.

혜자 스님은 "이번 진신 사리는 지난 1월 쿠시나가르 열반당 주지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라며 "생전에 고향인 이 곳 룸비니를 항상 그리워 하셨던 부처님 진신을 탄생지로 모신 것은 부처님 열반 이후 세계불교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을 현지인들에게 들었다"고 자부심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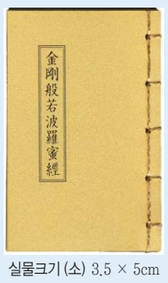
이운 법회 후에는 룸비니동산 근처 특설 무대에서 네팔불교도연합회와 지역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팔 합동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끝난 뒤 순례기도 회원들은 도시락과 양말 등 5천개를 현지인들에게 나눠줘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네팔 제2의 도시 포카라에서 설산 및 방생 법회를, 네팔 최고의 사원인 카투만두 스와얌부사원에서는 합동 법회를 진행하는 등 다수의 법회를 봉행했다. 모두가 한국과 네팔을 비롯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자는 것이 이 법회들의 주제였다.

이번 순례에서는 참석자들의 눈물을 자아낸 가슴 뭉클한 행사도 있었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마곡사에서 열린 '108산사 순례기도회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108인연 맺기 행사'서 인연을 맺은 네팔의 두완사리따(35 · 여)씨가 양어머니인 순례기도회원 이연수 보살(70)과 함께 네팔 친정 부모를 상봉하는 장면이었다. 2004년 공주로 시집온 이후 고향 방문은 처음이라는 두완사리따 씨는 친정어머니를 만나자 마자 "한국에서 인연 맺은 양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편안하게 잘 지낸다고 울지 말라"고 말해 행사장 분위기를 잠시 숙연하게 했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선묵 혜자 스님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늘 참 보람을 느낀다"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인연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는 108인연 맺기는 불교의 실천행을 가장 잘 행하는 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글 · 사진=김주일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장엄 소용 사용 영가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우리 몸은 '가죽자루?'

해외불교칼럼



불교에서는 육신을 꾸미는 것도 집착으로 본다. 사진은 두피관리 행사 장면. <현대불교자료사진>

오래 전에 친하게 지내던 젊은 아일랜드 신부님이 있었는데 불가로 치면 수계를 마치자마자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나 싶다. 그는 처음엔 서울 돈암동 부근의 어느 수도원에서 안거 정진을 하다가 이내 강원도 홍천으로 만행을 떠나더니 나중엔 전라도 끝에 있는 흑산도의 공소, 이를테면 사찰이라기엔 아주 작은 암자로 간 뒤부터 서로 연락이 끊겼다.

어릴 때 음식만 입에만 넣으면 대뜸 토하는 기이한 고통을 겪었다는 그는 고향마을 신부님의 치유에 감동하여 사제의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는 본디 모국어인 켈트어와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심성도 참 가지런했다. 그런 그가 잠시 뜻밖의 '시험'에 든 적이 있었다. 외국인이라면 그저 '발라당' 뒤집어지는 한심한 부류와는 달리 미모와 교양을 얼마간 갖춘 어느 한국 아가씨가 그를 너무 좋아해버린 것이다. 이역만리에 홀로 와 있는 그에겐 자못 힘든 시험이었겠지만 이내 잘 치러냈다. 그 미인 아가씨에게 무슨 말을 어찌 했기에 그처럼 쉽사리 일이 풀렸는지 내가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움이란 그저 피부의 두께일 뿐이죠(Beauty is just skin-deep). 사람의 살갗은 여러 지저분한 내용물은 담는 '가죽자루'랍니다."

그 말에 그 아가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만 우리 둘은 그저 웃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어느 여성 불자이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읽다가 가죽자루라는 그 재미있는 낱말과 또 만나게 됐다. 세계적인 아마추어 논객들이 불꽃을 튀기는 블로그 저널리즘의 선구자로 알려진 바브라 오브라이언 보살님의 얘기 중 일부다.

"난 오늘 아침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르려고 파라벨라 미용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앉아 패션잡지를 펼쳤다. 그리곤 금년 여름엔 어떤 스타일의 비키니 수영복이 뜰 거라는 등 그런 저런 기사들을 훑다가 나도 몰래 피식 웃고 말았다. 내게 처음 참선을 지도해주셨던 스승님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사람의 몸을 '가죽자루'라고 말씀하셨다. 뇌와 오장육부라는 기본내용물이 담긴 가죽자루는 골격과 근육으로 모양이 잡히고 또 움직인다. 그리고 가죽부대 안을 맴도는 혈액과 기타 체액은 그 기본 내용물의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는다.

그 작업의 부산물인 대소변이 밤낮없이 가득 고였다가 빠져나가는 이 가죽자루에는 여성의 경우엔 때론 태아를 포함해서 체내에 기생하는 여러 생물들도 더불어 산다. 우린 좋든 싫든 나(自我)라는 육신이 담겨진 이 가죽자루를 닦고 먹이고 옷가지도 걸쳐줘서 그럭저럭 겉모양새를 가꿔줘야 한다. 그런데 이 자루를 이렇듯 닦고 먹이고 입혀주며, 또한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맛과 냄새를 가리며 소리를 듣고 사물을 보게 하는 아트만(我)의 정체는 과연 뭘까?

다른 한편, 아나트만(無我)이란 모든 존재에는 영속적이며 독립적인 자아가 없음을 뜻하는데, 이는 불교철학에서 가장 난해하고 자주 곡해되는 명제인 동시에 불교를 알아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다르마(佛法)란 모든 걸 초월한 완전한 해방을 향한 길일까? 아니면 그저 말하고 듣기 좋은 말씀들일까? 어쨌든 절제와 금기를 가르치는 불교, 그리고 과시와 허영을 꾸며주는 미용실은 서로 친한 사이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녀의 칼럼은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건지, 밑 터진 가죽자루에서 새나오는 화두인지 나로선 알 수 없다.

출처 : 바브라 오브라이언(미주리대학 언론학 전공, 공수선원 종무, ABT 불교 담당자) 번안 : 성휴 스님

"전법 활동엔 주·조연 따로 없죠"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해리슨 포드 ❻

할리우드의 불자스타 중 해리슨 포드 처사님만치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불교발전을 호소한 이도 드물다. 그는 리처드 기어 법사님, 샤론 스톤 보살님 등 여러 도반과 함께 달라이라마의 미국방문과 전법활동을 돕고자 각종 행사와 초청강연회들을 주선하고 매스컴을 동원했다. 또한 그는 달라이 라마의 소년기와 중국의 티베트 강점을 주제로 한 영화 '티베트에서 칠년'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으나 보이지 않는 산파의 역할도 했다.

그는 영화마다 주연을 도맡지만 전법에선 어떤 보조역할이나 조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개성보다는 불자와 타 종교인을 구분 짓는 근본특성, 곧 비운 마음에서 비롯한다. 불교는 깨우침을 향하는 길이며, 불자는 스스로 체험한 깨우침의 기쁨을 이웃들도 스스로 체험하길 바란다.

대중전법이란 피라미드판매처럼 가증스러운 협잡이나 협박일 수도 없으며, 특히 선교 기네스북에 올리기 위한 '영혼 사냥'의 기록경기도 아니다. 불자들은 나 자신은 물론 이웃들도 늘 충분히 스스로 생각할 여유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모든 생각은 나 혼자서 다 할 테니 너희들은 그저 나만 믿고 따르라는 궤변은 이웃들의 자존심을 병들게 하고 이성을 죽이는 악랄한 사고대행이자 가소로운 오만이다.

현대 서구인들은 상대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종교적 독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가로막는 음험한 신앙적 위선에 지칠 데로 지쳤다. 그래서 그들은 불교를 '눈 뜬 믿음', 그리고 '가없이 열린 길'이라 일컫는다. 이는 맹목적 신앙, 곧 '눈 감은 믿음'의 불안감과 '막다른 길'이란 위기감의 조성을 매우 품위 있게 거부하는 표현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불제자들은 서로를 함께 길을 가는 길벗, 즉 도반이라 한다. 전법은 전투가 아니며, 전법을 행하는 도반 또한 전공을 다투는 전사가 아니다. 해리슨 포드 처사님처럼 현란한 주역보다는 담담한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이다. 지금 미국은 신 종교개혁, 또는 정신문화 혁명이라 할 대변혁을 겪고 있다.

조선 말기 국가적 위기에 서구열강의 식민지개척의 계략에 편승한 여러 종교들이 이 땅으로 기어들었다. 당대 사회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은 거기서 현실도피와 신분상승을 꿈꾸고, 이른바 기득권을 박탈당한 일부 사대부계층은 입지회복을 꾀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인들의 경우는 다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회는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터라, 간사하고 불결한 입신출세 등에 종교를 활용할 까닭이 없다. 다만 그들은 건국 이래 주류를 이뤄온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 즉 WASP라는 사회 기득권층에 극히 환멸을 느끼고, 특히 특정 종교적 전횡에

"종교적 독선·신앙적 위선 거부"

9·11테러 이후 매년 2만명 개종

강한 혐오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대안이 불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예컨대, 미국의 주요 매스컴들이 보도하듯, 이른바 9·11 테러 이후 해마다 약 2만 명 이상의 기독교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해설을 맡았던 해리슨 포드 처사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는 우리 서구인들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즉, 신앙의 자유란 믿음의 자유며, 거기에는 믿지 않을 자유, 즉 불신의 자유도 포함된다."

백주 대로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불신지옥' 따위를 짖어대는 어느 원시인 마을의 미개인들이 들으면 개거품을 물고 까무러칠 소리다.

"그런데 해리슨 포드 처사님, 저 하나만 여쭤봅시다. 처사님의 말씀에 담긴 참뜻이 상생(相生)과 원융(圓融)임을 그 야만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휴 스님**

영문판 반야심경 일부 정정

국제삼장보존위원회 마하마티는 2월 12일 세계불교기구의 회원 불자들이 독경하는 영문판 <반야심경> 중 일부를 제한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영역 불경의 정정은 불교에 아직 생소한 서구의 재가불자들이 예컨대 슈냐타를 단순히 공(空)으로만 속단하고 곡해할 소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음률과 흐름은 종전대로 유지하고자 동 승가협회 상그하라시타가에서 수년간 집중적인 심의 끝에 공인한 것이다.

쿠마라지바 등 역대 고승대덕들이 번역과 정정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 한역 불경에 비해 영역 불경은 현재도 신중한 재해석과 교정이 진행 중이다.

당조의 고승 현장 법사의 한역본 <반야심경> 중 제법(諸法)은 종전의 영역인 'All things'로 하되 공상(空相)은 'the primal void'에서 이제부터는 'by nature void'라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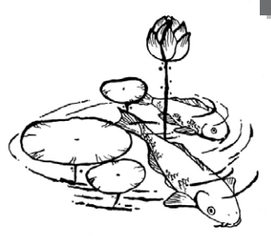
그리고 이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은 'They are not born or destroyed, Nor are they stained or pure, Nor do they wax or wane(생기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럽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며, 늘거나 줄지 아니함이라) 등으로 바뀐다. **출처 : WBP**

남아프리카에 전법 인프라 구축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불교협의회는 2월 14일 국제전법에 있어 가장 취약지역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에 전법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상공업도시인 요하네스버그의 에머렌시아에 소재한 샨티쿨라 지부는 이미 3년 전부터 흑백 갈등은 물론 부족 간 충돌을 경감하는 완충역할을 해왔다. 또한 금년 초부터는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를 가동하여 광범위한 사이버 전법 및 계몽봉사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출처 : ABF**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Look at the fish swimming about! Isn't it so peaceful?"

—헤엄치는 저 물고기들 좀 보게. 얼마나 평화로운가?

One day a master and his disciple were walking around a lotus pond. "Look at the fish swimming about ! Isn't it so peaceful?" said the master, "They are enjoying themselves indeed." "Reverend master, you are not a fish," bluntly retorted the disciple, "So how could you truly know that they are enjoying themselves." "You are not me," smiled the master. "So how do you know that I do not know that the fish are enjoying themselves?" And the fish whispered each other, "That spoiled brat disturbs our peace." "Yea, you get lost !"

어느 날 제자와 연못가를 산책하던 스승이 말했다. "헤엄치는 저 물고기들 좀 보게나. 얼마나 평화로운가? 참 즐겁게도 노는군." 그러자 제자가 다짜고짜 내뒹겼다. "존경하는 스승님께선 물고기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즐거워하는지 어찌 아시옵니까?" 스승이 웃었다. "자네 또한 내가 아닐세. 헌데 자네는 내가 저들이 즐거워한다는 걸 왜 모를 거라 생각하나?" 물고기들이 속닥였다. "저 싹수없는 애송이가 우리 분위기마저 확 잡치는군." "맞아, 얌마, 넌 꺼져!"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얘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얘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패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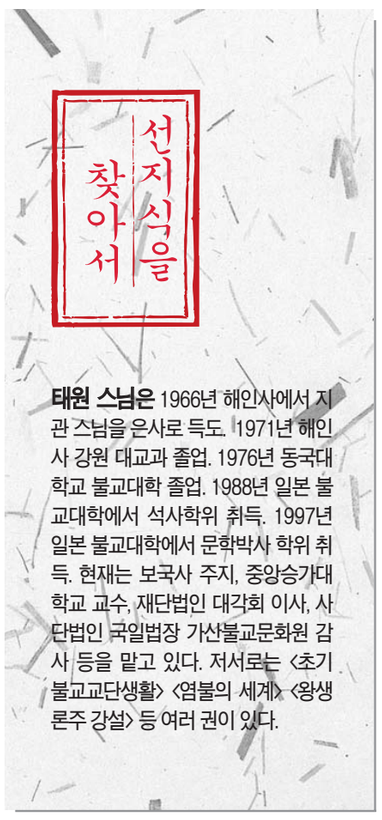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

수행의 기본은 서원과 이타적 회향

태원 스님

보국사 주지·중앙승가대 교수



태원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8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1997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 취득. 현재는 보국사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사단법인 국일법장 가산불교문화원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초기불교교단생활> <염불의 세계> <왕생론주 강설> 등 여러 권이 있다.

마루에 놓여 있는 난 화분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짙푸른 잎사귀사이로 향기 가득한 하얀 꽃이 피어있었다. 작은 꽃 봉우리는 실내 가득 자신의 향기로 채웠다. 꽃향기를 음미하면서 '사방에서 자연히 미풍이 불어와서 보배나무에 살랑거리면 다섯 가지의 미묘한 음악이 울려퍼지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꽃들이 비 오듯이 온 세계에 흩날려 춤을 춘다'는 <정토삼부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태원 스님은 28년 동안 불교연구에 매진하였고 지금은 중앙승가대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교학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태원 스님은 '자신은 학자가 아닌 수행자'임을 강조하였다. 정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태원 스님의 수행법은 염불이다.

"염불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상 선과 더불어 가장 많이 실천해 온 수행법입니다. 선이 스스로 노력해서 궁극적인 깨침에 이르고자 하는 수행법이라면 염불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등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해 정토에 왕생하여 궁극적으로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자력수행, 염불은 타력수행이라고 합니다. 염불은 불보살님의 본원력에 의지한다는 면에서 외형적으로는 타력수행법이지만 불보살님을 염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고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게 하므로 자타불이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염불기도를 하는 것도 수행이 되느냐고 물었다.

"염불 수행자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서원은 수행자의 생명입니다. 염불 수행자라면 현생과 내생에 걸쳐 큰 서원을 세우고 이 서원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일반인들 가운데 돈을 많이 갖기를 원하는 사람, 권력을 원하는 사람, 재산을 원하는 사람,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 등 천차만별한 원을 가지고 삽니다. 또한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염불, 참선, 주력 등 여러 가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 목숨이 마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여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모두 자리(自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기본은 이타(利他)적인 수행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고자 원을 세워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불행한 이웃을 위해 쓴다든가 불사를 위해 헌납하는 것은 돈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타적인 회향입니다. 회향정신에 의해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의 이익을 나누어준다면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에는 질투와 비방과 시기가 있을 수 없으며, 다시 주위 사람에게 회향하려는 마음이 자연히 우러나올 것입니다."

서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자신이 바라는 바가 성취된다면 그것을 남을 위해 회향하는 것이 바른 기도임을 알았다. 태원 스님이 정토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을 접하면서이다. 외동아들인 태원 스님이 고등학교 때 자신만 바라보고 사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죽음이란 것이 자식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란 것을 알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때 기독교를 믿었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해답도 들을 수 없었기에 불교에 관한 책을 읽었다.

"죽음 문제는 지금까지도 화두입니다. 과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정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토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태원 스님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은 팔만사천가지인데, 어떤 것이 더 수승하다고 말하는 것은 수행자답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염불이 최고다 참선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어긋난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수행을 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든다는 말과 함께 언제 염불을 하면 좋은 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자신이 편한 시간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수행력이 익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염불이 저절로 됩니다. 옛사람들은 짚신을 삼으면서 아미타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염불하고 대장장이는 쇠를 두들기며 염불하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생동안 행복과 평화를 누리다가 최후의 순간까지 염불소리가 이어져 선 채로 왕생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굳이 입으로 명호를 부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염불이 됩니다."

보국사에는 '팔관 염불회'가 있다. 부처님 재세시에는 육재(六齋)일이라 하여 매월 8, 14, 15, 23, 29, 30일 여섯 날을 정진하는 날로 정하여 팔관재계를 받아 지켰다. 팔관재계(八關齋戒)란 재가자들이 하루 밤 하루 낮 동안 여덟 가지 계를 받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여덟 가지 계율은 '살생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꽃다발을 쓰거나 화장을 하지 말라, 유흥을 즐기거나 구경하지 말라,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등이다. 보국사의 '팔관 염불회'는 한 달에 한 번 관음재일 하루 동안 팔관재계를 받아 계율을 지키고 있다. 태원 스님은 일반 불자들에게도 육재(六齋)일이 생활화되면 좋은데, 그것이 조금 아쉽다고 하였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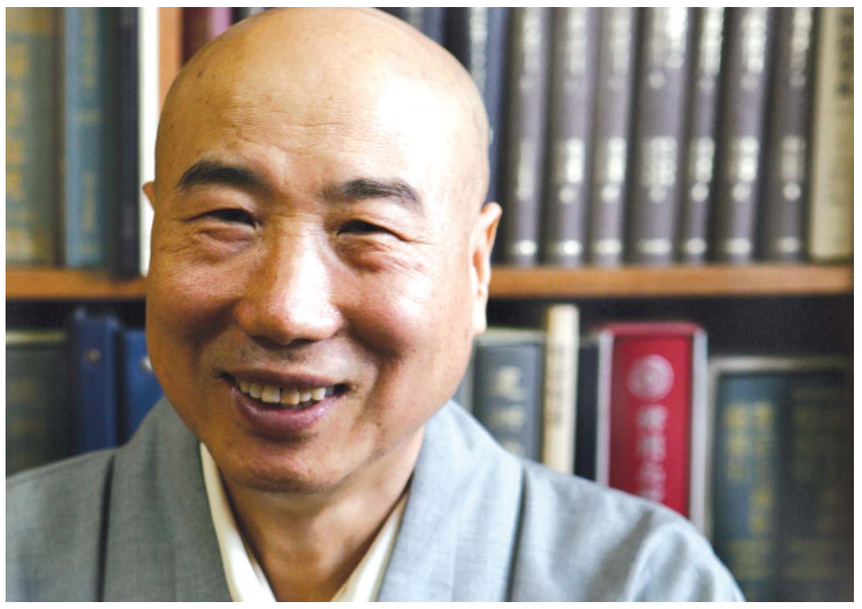
태원 스님은 정토학을 공부한지 오래되었지만, 극락세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극락세계에 대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거나 수행을 통해서 신심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다. 출가자에게 수행은 공기와 같은 것이라 말할 것도 없지만 재가자들 역시 수행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불자들에게 스님이 생각하는 극락세계를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극락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이며, 고통이 없으며,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극락세계는 수행에 도움을 주는 공간이며 청정하고 좋은 생각만을 하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정토의 사물은 지혜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므로 정토에 있는 사물에 대해 애착을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지혜가 깊어지게 됩니다. 극락세계는 선지식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퇴전의 세계이며 성불의 길이 빠릅니다. 극락세계는 수승한 세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청정한 극락세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진실한 신심인 것이다. 꽃향기를 어딘가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듯이 수행이 깊어지면 그 덕성을 감추고 싶어도 절로 드러난다는 것을 태원 스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기도로 서원 이루면 타인 위해 회향해야
수행력 깊어지면 일상 속에 염불 저절로"

"효타 비결서"

(상 · 하권)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역학을 전혀 모르거나 한자를 몰라도 1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전서가
완전 한글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정가 : 각 50,000원

"신수비결"

토정비결의 괘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 각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2008년의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이성과의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등
· 한글전용으로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운세를 쉽게 볼 수 있고,
적중률이 높아서 잘 틀리지 않습니다.

▷ 정가 : 20,000원

역학강좌안내

· **초급 및 중급 과정 6개월**
4월 첫 주부터 매주 월요일 18시 – 21시
· **효타비결 전수반 2개월**(스님에 한함)
4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수 18시 – 20시
· **무료 강좌**
3월 한달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효타비결전서를 무료로 강의하여 혼자서도
역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어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하여
· 개명, 작명, 법명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작명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 하십시요.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정가 :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데스크 초대석

한국시인협회 오세영 회장

"詩는 행복 이어주는 위대한 소통 수단"

돌에서 깨어나
인간으로 지금 막 환생해서
걸어 나오는 미륵이여,
이 세상 첫걸음에
알 듯 모를 듯 입가에 흘리는
그대 미소는
진정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중간 생략)

한 송이 연꽃에도 우주가 있다는데
그대를 막 잠에서 깨운
암벽의 진달래
너무도 아름다워 그런 것인가.
돌도 불성(佛性) 받아
인간될 수 있음을
한날 미소로 깨닫게 해준
서산(瑞山) 운산면(雲山面)
마애삼존불.

– '서산마애삼존불' 부분.



시인 오세영(한국시인협회장) 선생의 눈에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부처'가 아니라 '인간'으로 비친다. '인간'이 곧 불성을 가진 존재, 즉 '부처'이기에. 다만, 돌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인간이 되게 하는 '미소'가 암벽의 진달래로 피어 있음을 시인은 보고 있는 것이다.

시의 길을 나선지 44년, 17권의 시집을 상재한 오세영 선생은 이제 국토를 노래한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1000편의 시가 담긴 〈오세영시전집〉을 내며 한 고비를 정리한 오세영 선생이 가는 길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시의 길이고, 우리가 어우러져 사는 땅위의 평범한 길들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오세영 선생은 '국토의 혼'을 보고 '국토의 육체'를 본다. 그리고 그 국토에 헌사(獻詞)하는 아름다운 우리말들은 그대로 시가 된다.

17권의 시집과 20여권의 논문집을 내며 강단을 지켜 왔던 오세영 선생은 "가르치고 글 쓰느라 늘 바빴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며 인사동 언저리에 작은 토굴을 마련했다. 아직 서가(書架) 정리도 끝나지 않은 토굴에서 시인 오세영 선생에게 '시의 길'을 물었다.

우리 국토 예찬한 17번째 시집 발간
"불교설화 토대로 시 창작 하고 싶어"

-선생님께 시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방법이 있지요.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등 말입니다. 목적은 길을 만들어요. 목적에 이르는 길.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 존재의 목적과 수단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홀로 살 수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상식적인 삶의 길인 겁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선, 군림과 복종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과 베풂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이해가 얽힐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 행복을 주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자기를 기쁘게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야 말로 행복한 관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을 시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시는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시는 사랑을 소통하는 가장 위대한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서 시가 더 깊이 지향해야 할 '무엇'이 있는지요?

있다면, 윤리성이겠지요. 문학도 최후에는 윤리와 만나게 됩니다. 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윤리란 도덕과는 다른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시를 써서 누군가에게 존경받으려 하거나 시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주장하거나 나는 시밖에 모르는 시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시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인식이라면 시로써 인간관계의 행복을 실현시킬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생님의 시가 인간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최근의 시편들은 국토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간행된 17번째 시집 〈임을 부르는 물소리 그 물소리〉는 우리의 산과 들과 강을 노래한 시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나이 탓이겠지요. 내가 살아 온 공동체에 대한 반성 같은 것 말입니다. 시인으로서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오면서도 민족과 국토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 한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낄 때면 민족과 국토가 베풀어준 크나큰 축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감사함을, 시인은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영향이겠지만 지나치게 열등감에 젖어 있거나 자기비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 온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식은 벗어 던져야죠. 조국의 강산에 드러나 있거나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국토는 우리 민족의 육체이고 한국어는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의미를 국토로 확대하신 것 같군요.

그렇지요. 이 국토야말로 우리의 '큰 자아'니까요. 한국의 시인이라면 한국(민족)의 언어로 한국의 땅에 깃든 아름다움을 시로 써야 합니다. 한국의 시인이 세계적인 시인이 되려면 당연히 민족문학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대시를 쓰는 입장에서 나는 늘 '모더니즘의 언어적 기교로 전통동양정신을 지향하는 서정시를 쓰겠다'는 모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선생님은 '순수문학자'란 평을 들으셨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순수문학이 뭡니까? 그럼 비순수문학도 있나요? 문학은 그자체로 순수입니다.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려던 경향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지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여문학도 인정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참여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일제 강점기에는 무엇보다 조국의 해방이 필요했고 문학도 그를 지향했잖아요. 시대에 따라 더 크게 여겨지는 가치가 있을 뿐 문학 본래의 뿌리는 참여와 순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나요? 인간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불교에서도 깨치지 않은 상태를 중생이라 하고 깨친 존재를 '부처'라 하는데 지금 여기의 중생들에게 완전을 말할 순 없는 겁니다. 나는 참여문학이 문학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뿐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는 창작을 근본으로 하고 창작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념적)규정에 의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진정한 예술이 나올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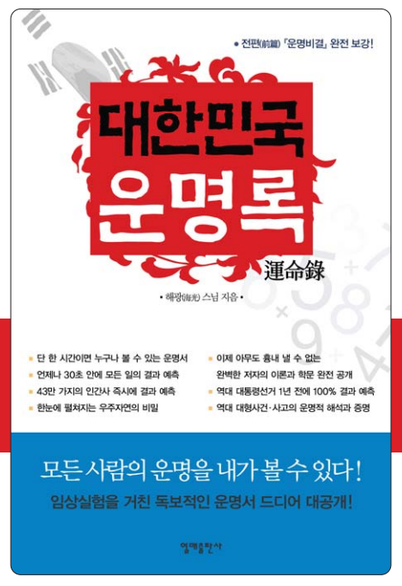
-불교와 시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시도 종교라고 봅니다. 다만, 시라는 종교에는 신(神)이 없지요. 신이 없는데 종교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종교와 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모순의 진리입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진리는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시는 논리를 초월한 모순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지요. 시를 쓰는 자는 창조자입니다. 진리의 창조자. 시라는 종교는 신을 섬기지 않지만 시인 스스로가 창조하는 존재(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대문호 가운데 철저한 종교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돈독한 불자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절에 가서 글쓰길 좋아합니다. 절에 가면 세속적 관심사를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집중이 더 잘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아담한 토굴(작업실)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 글들이 있어서 우선 그것들 먼저 손을 댈까 합니다. 시 창작에 대한 텍스트를 쓰다가 중단한 것부터…. 그리고 불교설화에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불교설화를 토대로 호흡이 긴 시를 쓰고 싶어서요. 지난 20여 년 간 저와 함께 해온 '석전시 동인회' 회원들과 여기서 합평회도 하고 문학기행도 가고 싶고…. 정년퇴직을 해도 할 일이 참 많군요.(크게 웃음)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과학적으로 證明된 정확한 논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전국대형서점,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 반 상 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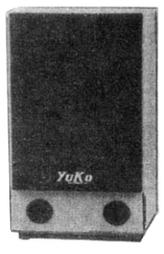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이곳에는 '홍차' 이전에도 차가 있었을까?

茶와 불교를 찾아 떠난 스리랑카 ①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

불교와 차(茶)의 나라 스리랑카는 불교국가일 뿐 만 아니라, '실론 티'로 대표되는 뛰어난 홍차문화를 가지고 있는 '차의 나라'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박동춘 소장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스리랑카의 불교와 차 문화를 찾기 위한 보름간의 여정에 올랐다. 스리랑카의 불교와 차 문화를 소개하는 박 소장의 글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는 소녀, 맑은 눈이 인상적이다.

실론차로 유명…인구70% 불교신자 · 교육열높아
생명있는 것들과 더불어 살기…불교·자연에서 배워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호를 가진 천혜의 땅, 스리랑카는 실론 홍차(Ceylon black tea)가 매우 유명하다. 오랫동안 차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스리랑카를 생각하면 늘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이 있었다. 스리랑카에는 홍차가 나오기 전부터 차가 있었을까, 사원에서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가 하는 점이다. 달마 이후 불교가 차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면 스리랑카 차를 참고해 볼 이유는 분명해 보였다.

지난 1월 19일, 마침내 기회가 왔다.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해 온 임훈기 선생 내외가 우리 일행을 초청해 준 것이다. 그들은 현지 사정에 밝고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이며, 스님들과 교류가 깊다하니 기대가 컸다.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자정을 넘겨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막 도착한 낯선 인파들이 입국대 주변으로 몰리고 더러는 긴 여행에 지친 듯 연신 하품을 해댄다. 공항 벽에 걸렸던 차밭 사진, 타밀 여인의 미소 속엔 애잔한 슬픔이 어려 있다.

알싸한 냄새와 뒤엉킨 달달하고 짙은 열대 꽃향기, 열대의 후덥지근한 열기가 녹녹한 기세는 아니다. 어수룩하고 어둑한 도로와 건축물들, 분초를 다투는 긴장감이나 번들번들한 도회의 세련과는 거리가 멀다. 60년대 말, 우리의 거리 풍경과 닮았다. 이렇게 이 땅과의 첫 대면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재잘거리는 새소리에 눈을 떴다. 이미 창밖이 환하다. 침대에 쳐진 모기장, 벽에 붙은 작은 도마뱀은 이 집의 오랜 주인인 양 미동조차 없다. 이 나라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마도 불교의 영향과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인 듯하다. 특히 열대 지역인 이곳의 가옥은 바람이 잘 소통되고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구조로 천장이 높다. 아래층은 거실 같은 개념이고 주로 이층에 침실과 서재가 있다. 습하고 무더운 환경에서 더위와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책에는 삶의 지혜가 묻어 있다.



담불라 석굴사원.

이들은 주로 코코넛 우유를 넣고 만든 다양한 카레, 눈을 밝게 한다는 나물, 삼바, 키키리삼바라고 부르는 찰기 없는 쌀로 만든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며, 오른손을 중시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토기로 만든 투박하고 정감 있는 뚝배기를 사용한다. 이 질박한 그릇에 담긴 성의 있는 음식들은 재료에 따라 형형색색의 조화로운 빛깔로 들어난다. 이들은 조금은 가난하지만, 물질에 찌들고 살찐 가여운 도회인과 다른 기품이 있다. 오래 전 잊어버린 진실한 생활의 리듬들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한편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이나 수호신을 모시는 단이 있어서 꽃과 향을 올린다. 뽀야데이(15일)같은 특별한 날은 코코넛우유를 넣어 만든 밥을 부처님께 올리며, 이날은 휴일로 사원에 가서 부처님을 참배한다. 불교는 이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은 부처를 닮고자한다. 어쩌면 불교는 이들의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자부심이며 긍지이다. 스리랑카를 불교국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원의 부처님을 참배할 때 흰 옷을 입는 것이 상식이다. 부처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길 바라는 것이리라. 이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음식, 혹은 향을 올린다. 경이로운 일은 부처님 앞에 놓인 공양물이나 막 올리려는 꽃에 손을 잠시 대기만하여도 함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 된단다. 사원에 들어 갈 때는 누구라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사원이나 입구에는 어김없이 신발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 열대의 뜨거운 햇볕에 달구어진 돌 위를 걷는 일은 보통이 아니다. 발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걷기가 어렵다. 석굴사원에서 곤욕을 치르고 얻은 묘안은 양말을 준비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안성맞춤이다.

이곳 남자들은 사롱을 입고 여자는 사리를 입는다. 스리랑카의 인종과 종교를 대략 살펴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싱할라인이며 실론타밀족, 인디안타밀, 무어족, 무수림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다.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69.3%)를 믿으며, 힌두교(15.5%), 가톨릭, 무슬림, 신교를 믿는다. 이들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지만 이들의 언어는 영국의 식민시대 영향으로 영어와 싱할라어를 공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맹이 거의 없으며, 교육열이 매우 높은 편이란다.

국민의 의료도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사회 제도는 일찍부터 비교적 선진적인 틀을 갖추었지만 오랜 내전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필자가 여행 도중, 갑자기 귀가 아파 가장 가까운 지역인 캔디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의사가 직접 진료비를 받는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의 · 약이 철저히 분업화 되었다고 한다. 이곳의 의료혜택은 제도적인 여건보다 시급한 것이 질적인 문제일 듯하다.

더구나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부 타밀족과 스리랑카정부 간의 갈등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듯,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란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전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산발적인 폭탄테러는 정국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었다. 수도인 콜롬보 거리에 총을 든 군인들이 늘어서 있고 거리곳곳에서 검문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런 정황에도 개의치 않는 듯, 마주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는다.

또 하나 기이한 풍경은 고개를 좌우로 살랑 살랑 흔들며 대화하는 광경이다. "그래 맞아"라든지 "좋다"라는 뜻이란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드는 모습에는 그들만의 특유한 유연성과 리듬이 있다.

한편 스리랑카에는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호수가 많다. 임 선생의 이야기로는 역대 훌륭한 임금들은 물을 잘 관리할 줄 알았으며, 치수(治水)에 힘썼다고 한다. 열대지역에서는 물이 곧 생명임을 익히 알기 때문에 물을 잘 다루는 일은 이들의 오랜 전통이란다. 특히 야자수는 신이 내린 생명수란다. 무더운 열대기후를 견디는 힘이 야자열매에서 나온다고 믿을 만큼 야자나무가 주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 나무와 잎, 야자열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보배 중에 보배이다. 노란색의 야자는 음료용이며, 파란 색은 코코넛 우유를 만드는 조리용이다. 또 야자나무가 소금기를 좋아하여 들판이나 산간에 자라는 야자나무에 가끔씩 소금을 준다니 신기한 일이다. <계속>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 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녹음기, 필기구 준비)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석, 새벽종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다비문(초상집염불))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태평소))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불교무용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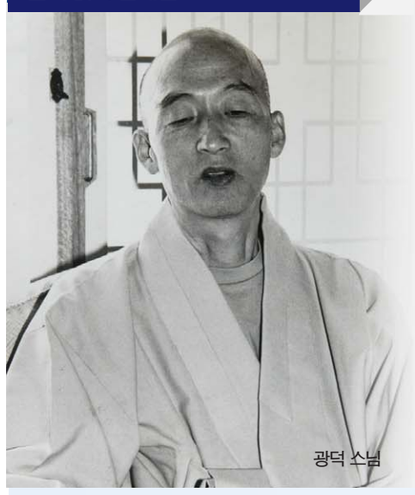
命星 (九星氣學)
자신自身을 살리고 죽이는 상생상극相生相剋 천중살天中殺, 간지비법刊支秘法
◎ 구성 간지지법
◎ 구성실례(비법 · 비방) 공개
◎ 구기성(九氣星)으로 보는 년운(年運)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 바이오리듬을 알게 되고, 작업과 적성, 동업 관계, 재물을 얻는 시기, 집 장만, 결혼, 연애, 섹스, 부부 상생 상극 관계, 시험 합격, 이혼, 재혼, 자식 번영, 택일, 이사 등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특히 간지점사(干支占事) 비법은 100% 효율이 발휘된다.

양장본 / 812쪽 / 값39,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청학출판사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광덕 스님

광덕스님의 법문들로 삶의 궁극적인 가치 일깨워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광덕스님 법문집|불광출판사 펴냄|1만2000원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에는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물론 "신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부처이다"라는 다소 무서운(?) 말을 듣고 의아해 한다. 그러나 차츰 교리를 배우면서 불교야 말로 신의 존재 유무마저 초월한 지고한 가르침임을 알게 된다.

광덕 스님(1927~1999)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에 담겨 있는 불성(佛性)을 바로 보고 그 빛으로 살기를 권했다. 당신 스스로가 부처이니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가르침으로 불광법회를 만들었고 원간 <불광>지를 발간했고 도심포교당 불광사를 창건 했다. 모든 인간 그 자체가 진리의 빛(佛光)이라는 광덕 스님의 가르침은 날이 갈수록 큰 빛을 발하고 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책의 제목 역시 그 가르침에 근거한다. 자신이 밝은 빛의 덩어리 진리의 덩어리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정다감하게 베풀어 놓은 스님의 법문들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스님의 '법등일송(法燈日誦)'의 한 대목에 그 답이 있다.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영겁의 생명, 진리의 태양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고
시시각각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보름달과 같이 원만한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번뇌 망상이다.

광덕 스님의 열반 9주기와 월간 <불광>지의 400호 발간에 때맞춰 나온 <마음이 바뀌면…>은 불자들이 신행 생활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의문들을 친절하게 해소시켜 준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법문과 바라밀운동의 대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 불교의 각종 의식과 명절의 의미 등을 테마로 한 법문들로 묶었기 때문이다.

은사의 법문집을 묶은 지홍스님(불광사 주지)은 책의 머리글에서 "인간에 대한 절대긍정 생명은 밝은데서 성장한다고 하는 대긍정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밝은 횃불 그 자체였다"며 "그 말씀은 생명의 언어로 메아리쳐 오늘도 빛이 되어 우리의 가슴속에 물결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 알아야 불교안다



부처님의 생애
주선 지음|중명출판사 펴냄|9000원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형성된 종교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 물음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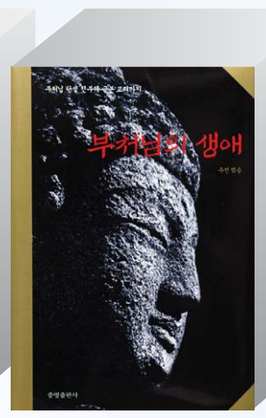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사상과 가르침의 대의를 이해하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역사 속의 실존인물로서의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재적 생애를 모르는데 경전에서 형상화된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의 수많은 명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닐런지.

그간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책들은 많이 나왔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부처님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가르침의 대의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동양고전을 연구하며 경영일선을 뛰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주 간결한 말솜씨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고 불교의 기본 교리들을 첨가했다. 저자는 부처님의 생애를 출가이전과 깨달음의 길, 교화에서 열반까지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탄생 이전 인도의 상황을 미리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낸 점도 돋보인다.

임연태 기자

달마는 9년간 무엇을 했을까?



달마대사의 소실육문
인해 역주 지안 감수|민족사 펴냄|1만8000원

달마 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냥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까?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설법을 하기도 했을까? 하루하루의 일과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궁금한 일이다. 달마 대사의 '9년 면벽'은 흔하게 듣는 역사적 기록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행적을 알기는 어렵다.

다소 엉뚱하고 무모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이다. '소실육문'이란 바로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수행 하였던 여섯 가지 법문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소실육문'은 달마대사의 깊은 체험과 초기 선수행의 근거와 모델을 담은 '전집'인 셈이다.

반야심경의 구절구절에 송을 붙여 전체 대의를 알게 해 주는 '반야심경송'과 만법의 근원인 마음을 알아야 법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파상론(관심론이라고도 함)', 도에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인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설명한 '이종입' 안심법문의 요지를 설명한 '안심법문', 상(相)을 여읜 수행이라야 도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는 '오성론', 깨달음의 궁극과 그에 이르는 방편을 문답식으로 전개한 '혈맥론' 등이 육문이다.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은 육문의 각 법문들에 대한 충실한 풀이가 돋보인다. 법문을 푼 인해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학교 선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조계종 승가대학원에서 경학을 연마하고 있다. 스승인 지안 스님의 감수를 거친 이 책은 달마대사 출생과 중국도래는 물론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행적도 밝히고 있어 달마 대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다.

임연태 기자


달마도
범주 스님 作

여섯가지 '법문'을 읽어보라

한국불교에서 피어난 민족의식 조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김광식 지음|도피안사 펴냄/2만5000원

우리 역사에 있어 시대적 상황이나 사상적 조류 혹은 이념에 따라 불교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차이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한 시대의 불교적 정체성이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명명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족불교란 이름 역시 우리 불교사에 있어 근현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을 짚어 내는 '코드'다.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펴낸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은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의 과정들을 통괄하면서 '민족불교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만당 등의 사건과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방한암, 이청담, 강석주 등에 이르는 인물들을 통해 민족불교론의 토대를 충실하게 구축했다.

책은 모두 17편의 개별적인 논문들이 '민족불교'라는 혈맥으로 이어지며 20세기 한국불교에서 피어난 민족의식을 조망하고 있다.

임연태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외	조화로운 삶
4	행복한 미소	성전	개미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8	선요	전재강 역주	운주사
9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10	불자생활백서	운창화,고명석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년은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종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접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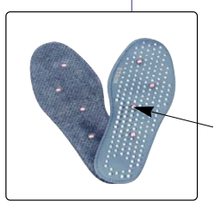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특무명


• 가격 : 10,000원

지압깔창
발명특허 제10-08063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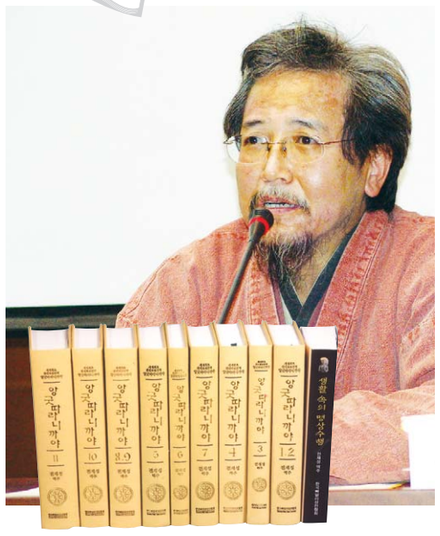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붓다불교점 054)655-2525

부처님의 原音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책향기를 따라가니



'앙굿따라니까야' 완간 봉정식 및 기념세미나



최초 <앙굿따라니까야>를 완역 · 완간한 전재성 대표와 완역본의 모습(왼쪽). 완간을 기념해 '불교와 자아의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제대로 알리고 싶어 초기경전 번역에 몰두한 삶
어려움 이겨내고 니까야 완역본들 쌓여가고 있어

"빨리어 경전을 1년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1권씩 번역해내다니…."

한 학자의 노력이 또 한 번 결실을 맺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대표가 <쌍윳따니까야>와 <맛지마니까야> 전집을 완역한데 이어 <앙굿따라니까야> 전집 12권(선집 1권 포함, 출판물로는 10권)을 펴낸 것이다.

이 노력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앙굿따라니까야 봉정식 및 기념 세미나'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 대표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빨리어 경전 한글화에 고집스레 매달려온 학자에게 어떻게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앙굿따라니까야'에서 '앙굿따라'는 '점증하는 고리'를, '니까야'는 '경전'을 의미하는 말이다. <앙굿따라니까야>는 법수, 즉 숫자에 따라 각권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열한 경전이라 보면 된다. 예를 들면 3권은 '어리석은 이도 세 가지 원리로 알려지고…(후략)'로, 4권은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후략)'는 식으로 시작, 각 숫자배열에 맞는 경전을 모아 엮었다. 그래서 전 대표는 각 권마다 '모아엮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역(漢譯)경전으로는 <증일아함경>에 해당한다.

전 대표가 완역한 <앙굿따라니까야>는 세계 최초로 생략된 부분까지 복원해낸 니까야다. 전 대표가 빠알리성전협회의 교열원전과 미얀마6차결집본을 꼼꼼하게 비교하며 현전하는 3573경을 8497경으로 복원 · 번역했다. 주석만 해도 4834개에 이른다.

방대한 양이지만 <앙굿따라니까야>의 내용은 일상적 가르침이 많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심리적 ·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재가신도의 관심과 연결시키는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된 짧은 경전들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전 대표가 이번에 완역한 <앙굿따라니까야>를 비롯, 니까야들의 한글화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독일 유학시절 푹 빠진 니까야의 세계를 제대로 알리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쉽게 읽힐 수 있는 경전'에 대한 열망이다.

"니까야는 원전(原典)입니다.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전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 시절 야학에 나가 사람들에게 불교 경전을 가르치려니 한문투성이라 너무 어렵더군요. 쉽게 전달하려다 보니 한문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원전을 연구하게 됐지요."

<앙굿따라니까야>를 완간하기까지 전 대표가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은 불교계에서도 점차 '니까야'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읽기 모임도 생겨나는 추세지만 처음 시작 때만 해도 이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현재도 전 대표의 연구소는 그가 기거하고 있는 자택이다. 그러다보니 전문 교정인력이 없어 교열교정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성들여 번역한 책에 잘못 끼어 들어간 내용이나 오타가 보이면 전 대표는 가슴이 쓰리다.

번역자체도 힘든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우기 쉽지 않아 전 대표는 독일어와 영어를 통해 빨리어를 배웠다. 게다가 빨리어는 고어(古語)라 문법체계가 현대어와 다른데다 완벽하지 못해 방계어까지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연구자가 달라지면 쓰는 용어의 체계가 달라져 공동연구를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전 대표에게는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한글 <앙굿따라니까야>를 발간하며 전 대표는 '불교와 자아의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불교계에 질문을 던졌다. 이는 전 대표가 니까야들을 정리하면서 현재 불교계에서 '참나' '진아' '마음' 등의 단어를 많이 쓰고 있음에 천착해, '자아'라는 개념을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바라보고자 마련한 세미나였다.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부처님 말씀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과연 '참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의 사회로 전자통신연구원 박문호 박사, 서울산업대 정영근 교수, 서울대 김규원 교수,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을 비롯해 전자학 · 생물학 · 정신의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 각자의 분야에서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진행 후 발표자들은 "'자아'를 수많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자아의 개념들이 사고를 경직되게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용어에 갇혀 있는 부분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앙굿따라니까야>의 완간 의미는 위대한 번역작업, 원전 그대로의 한글화 작업이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날 세미나에서 회자된 용어의 경직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대승경전에 의해 법음을 들어왔다면 이제 초기경전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실생활은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도.

그러나 <앙굿따라니까야> 완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붓다의 가르침을 최대한 그대로 듣고, 그 생생한 이야기 속에서 배움을 구하고 찾아야한다는 의식일 것이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빨리어란?

고대 인도의 언어. 원시불교경전 및 스리랑카 · 미얀마 · 타이 등 남방상좌부불교(테라밧다)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초기불교의 성전어(聖典語)로 권위를 지니고 있는 언어다. 본래는 '성전본문'을 뜻하는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성전본문의 언어'라는 뜻으로 바뀌 쓰게 됐다. 고대 인도의 교양어였던 산스크리트어에 비해 음운론적 · 형태론적으로 단순화된 경향을 나타내며, 다종다양한 요소가 서로 뒤섞여 그 기본이 된 언어를 특정 짓기가 힘들다. B.C. 2세기 무렵에는 북인도에서 광범위하게 통용 언어로 쓰인 것으로 여겨지며 5세기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로 퍼져 불경을 기록하는 문장어가 돼, 불교교리 · 불교문학에 관한 막대한 문헌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문자체계가 없어서 국제적으로 빨리어성전은 로마자화해서 표기하고 있다.



볼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육조단경

한국선문화연구원|정성본|2003년

김상규 법수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참회의 삶' 가르쳐 준 위대한 스승



좌선과 틈틈이 불법교리 빼놓지 않아
선불교 사상과 실천체계 제시에 호감

불법에 귀의한지는 오래 됐어도 아직 배움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절에 가는 날이면 사시예불에 동참, 많은 신도님들과 더불어 목탁에 맞추어 <천수경>을 읽기도 하고 절도 한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서 좌선도 빼 놓지 않는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에 임하고 있는데, <육조단경>을 배우면서 혜능의 설법을 통해 선불교의 사상과 실천체계를 모두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호감이 생겼고, 내용 중에는 특히 무상계(無相戒) 수계설법(授戒說法)의 무상참회(無相懺悔)에 감명을 받았다.

참회(懺悔)는 매우 중요한 불교의 수행의식 중의 하나이고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수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다른 종교가 그 종교의 절대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불교는 교리를 잘 이해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중시하기에 부처님께서도 대군(大軍)을 다스리는 장수(將帥)보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더욱 수행이라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행이란 '스스로를 참회하고 그 참회의 바탕 위에서 더 나은 삶을 다짐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기를 "선지식아, 앞생각(前念)과 뒷생각(後念)과 현재의 생각(今念)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惡行)을 단번에 끊어 자기 성품에서 없애면 이것이 바로 참회이고,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아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矯心)을 없애도록 하면서 영원히 끊으면 자성참회(自性懺悔)가 될 것이다"고 하셨다. 참다운 신앙은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라한과 붓다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누구나 한 두 가지의 허물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허물을 숨기고 있는 한 괴로움은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회를 함은 다함이 없지만, 그 죄의식에 붙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바로 이 구절이 대승불교의 진리적 참회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천태지자 대사는 참회를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참(事懺)은 예배, 송경 등 신(身) · 구(口) · 의(意)의 행위로 나타내는 참회로 수사분별참회(隨事分別懺悔)라 하고, 이참(理懺)은 실상의 이(理)를 보고 죄를 멸하는 참회로 관찰실상참회(觀察實相懺悔)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회란 사참을 말한다. 두 가지의 참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이참에는 사참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고 사참에는 이참의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명 선사는 "성불의 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참을 행해야 하니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 귀명(歸命)하고 비 오듯 슬피 울며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것이 마치 연꽃이 햇빛을 받아 활짝 피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나는 이렇게 <육조단경>을 통해 참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육조단경>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SMD,LED전구 (국산정품)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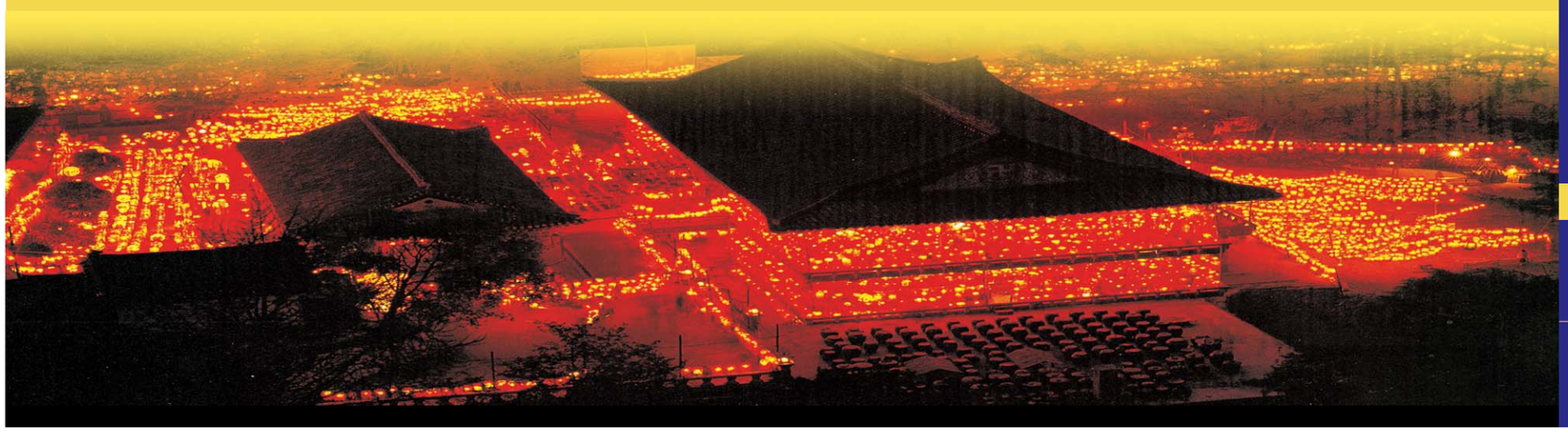
SMD, LED전구(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2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3장 기개(棄蓋) ④

후회하는 마음은 번뇌 아니지만 집착하면 번뇌가 된다

四棄掉悔蓋 掉有三種 一者身掉 身好遊走 諸雜戲謔 坐不暫安 二者口掉 好喜吟詠 競諍是非 無益戲論 世間語言等 三者心掉 心情放逸 縱意攀緣 思惟文藝 世間才技 諸惡覺觀等 名爲心掉 掉之爲法 破出家人心 如人攝心 猶不能定 何況掉散 掉散之人 如無鉤醉象 穴鼻駱駝 不可禁制

산란한 마음이란 앉으나 서나 불안정하여 마음과 입이 전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근의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지도 못해 종일토록 자기 의식이 가는대로 정을 따라 방탕하게 지내고 희롱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태를 산란심[掉]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은 고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스러움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이 이미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후회는 본래 번뇌가 아닌데도 왜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는 것일까.

후회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조석으로 근심만 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덮여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때문에 좋은 마음인 후회가 집착심으로 인해 오히려 번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산란심은 많기는 하지만 크게 세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몸의 산란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일정한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잡스럽게 희롱하는 짓거리를 하거나, 또는 앉아있어도 안정을 얻지 못한다면 이를 몸이 산란한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입의 산란함이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시비를 논쟁하거나, 전혀 이익 없는 것에 대해 담소하기를 좋아하는 등 세간의 일을 말하는 것을 모두 입이 산란한 모습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마음의 산란함이다. 마음이 감정을 따라서 방일하면서 자기의 의식을 제멋대로 방자하게 노닐면서 의식 속에 나타난 그림자를 상상하기도 하며, 혹은 목전의 오진경계를 반연하기도 하면서 일체 모든 악한 생각들을 일으키는 것을 마음이 산란한 것이라고 한다.

산란심은 출가인의 마음을 파괴한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본래 출가하여 수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안정돼야만 하는데, 마음이 한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산란심을 일으켜 도업의 마음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끝내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초발심으로 입도한 사람은 마음을 거두어 한 결같은 곳으로 귀결하려 해도 그 마음이 안정되기가 쉽지 않는데 하물며 산란심까지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산란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비유하면 마치 통제의 고삐에서 풀려난 술 취한 코끼리와 같다. 술을 마시지 않은 코끼리도 제지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제지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경우야 어떠하겠는가. 그 코끼리는 미친 마음으로 날뛰며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종일토록 후회만 하면 진실한 마음 덮여 몸·입·마음 등 세 종류의 산란심 버려야

또 산란심을 일으키는 사람은 코뚜레가 없는 낙타와 같다. 코뚜레 없는 낙타가 이쪽저쪽으로 날뛰어도 제지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如偈說
汝已剃頭著染衣 執持瓦鉢行乞食 云何樂著戲掉法 放逸縱情失法利 旣失法利 又失世樂覺其過已 當急棄之

출가자가 머리와 수염을 깎은 후 가사를 입고 스님이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출세간 대장부이다. 이같이 대장부로서 위의를 갖추었다면 반드시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발우를 지니고 항상 걸식을 행하면서 중생들에게 복과 이익을 짓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산란하게 희희락락하는 법만 즐기고 탐착하면서 제멋대로 방일한다면 어찌 불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멋대로 방일한 자는 현생에서는 불법의 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불법의 이익을 잃는 과오와 허물을 깨달은 즉시 산란심을 버려야만 한다.

悔者 悔能成蓋 若掉無悔 則不成蓋 何以故 掉時未在緣中故 後欲入定時 方悔前所作 憂惱覆心故名爲蓋 但悔有二種 一者因掉後生悔 如前所說二者如作大重罪人 常懷怖畏 悔箭入心 堅不可拔

여기서부터는 후회하는 번뇌에 대해 밝혔다. 후회라는 말은 그 후회가 우리의 본심을 덮어버리는 번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산란의 번뇌를 일으킨다 해도 그에 따른 후회가 없다면 그 후회는 끝내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란할 동안은 후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란심을 일으킨 이후 단정히 좌선하면서 선정으로 들어갈 때 이르러서야 종전에 지었던 산란의 죄과를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신업과 구업상 후회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의업에서 일으킨 산란심을 후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근심과 고뇌가 우리의 진심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 때문에 후회가 번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후회의 번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산란심을 일으킨 이후에 후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인데, 이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종전에 지었던 죄악을 뉘우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속에 항상 공포와 두려운 마음을 간직하고 종일토록 고뇌하고 후회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후회의 화살이 가슴 깊숙이 견고하게 꽂혀버리기 때문에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도를 장애하고 번뇌의 문이 열려 지혜로운 성품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가 어두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관을 수행하는 자라면 그 허물을 반드시 알아서 산란심의 인연 때문에 생사대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如偈說
不應作而作 應作而不作 悔惱火所燒 後世墮惡道 若人罪能悔 悔已莫復憂 如是心安樂 不應常念著 若有二種悔 若應作不作 不應作而作 是則愚人相 不以心悔故 不作而能作 諸惡事已作 不能令不作

반드시 하지 않아야만 되는데도 하거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도 하지 않거나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중생의 전도망상을 밝힌 것이다.

하지 않아야 되는 데도 하는 것은 신구의로 십악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십악은 본래 해서는 안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멋대로 방종하면서 힘이 다 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데도 하지 않는 것은 일체 세간 출세간의 선업은 마땅히 마음을 극진히 하여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세간에서 행하는 갖가지 자선사업이나, 출세간의 선업으로서 경전을 듣고 몸은 예불을 하고 입으로는 염불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관찰해야 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후회하는 사람은 그 후회의 번뇌 불에 자신이 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세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허물을 알았으면 고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로부터 도업을 정진 수행한다면 몸과 마음이 자연히 청정하고 지혜광명이 일어나 안락자재하게 된다.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에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

마음이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할 일을 한다면 이미 모든 악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악업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과법문(三科法門)

오온법(五蘊法)

'오온(五蘊)'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몸뚱이를 비롯해 일체의 존재를 말합니다. 즉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五)'는 숫자(數)이며, 사물이 적집(積集)하여 하나의 임시적인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온(蘊)'이라고 합니다. 오온을 숫자적으로 열거하면 색온(色蘊)·수온(受蘊)·상온(想蘊)·행온(行蘊)·식온(識蘊)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설은 아집과 법집을 타파하기 위해서 설해진 방편교설입니다. 왜냐하면 아집과 법집, 즉 주관[能]과 객관[所]에서 오는 상대적인 집착이 끊겨야만 우리의 자성이 청정해지고, 청정한 그 자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이공진여(二空眞如)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성(自性)이라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말합니다.

본성은 바로 나와 만물이 평등하게 보편한 하나의 자체여서, 그 자리는 상대성이 단절한 본래적으로 청정한 체성, 즉 자타의 구별이 끊긴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본성일체설(本性一切說)입니다.

오온이 본래 공적한 이치를 알면 단박에 해탈 적멸의 세계 이루어

중생들은 '오온이 실재하는 존재가 아닌 허망한 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이 허무하다 생각해서 염세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온이 본래 공적한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교설인 삼법인(三法印)에서 제행무상(諸行無常)중 제행은 색법(色法)과 심법(心法)으로 구성된 우주만유를 총칭하는 말인데, 이는 바로 오온법에 해당됩니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보면 "모든 법의 무상함이 바로 요동하는 모습이며 요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공의 모습이다"고 하였는데, 무상(無常)은 바로 변동하면서 한 찰나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온제법이 변동하면서 안주하지 않는다면 사물은 있다 해도 실체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즉 환유즉공(幻有卽空)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움직이는 현상계, 즉 무상한 제행 자체가 바로 의타기성(依他起性)인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계소집(遍計所執)의 집착을 끊으면 아집이 본래공적한 원성실성(圓成實性)이 환하게 발현하여 고륜(苦輪)이 단박에 해탈적멸의 세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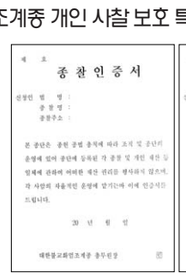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주역원전 강좌 개강

계절의 변화, 한 나라의 흥망성쇠, 만물이 나고 죽는 것 등에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다. 周易은 바로 이러한 일정한 법칙을 연구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주역의 대가 大山 김석진 선생님의 '쉽고 간단한' 주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강의를 한다.

▶「주역」 매주(수) 오전 11시 ~ 1시
哲山 최정준 선생, 3월 5일 개강

▶「주역」 매주(수) 오후 7시 ~ 9시
靑皐 이응문 선생, 4월 중 개강

그 외, 대산 선생님의 「시경(화요일 오후)」강의를 비롯해, 「노자의 도덕경(3월 개강, 월요일 오전)」, 「이천역전(4월 개강, 목요일 오전)」, 「춘추(월요일 오후)」, 「장자(목요일 오후)」가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동 방 문 화 진 흥 회
☎ 02)2237-9137, 2237-8970
서울 종로구 승인2동 261번지 화성빌딩 2층(1호선 동묘역 3번 출구)
www.DONGBANG.or.kr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1004-중-1784호 〈광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 동신방 한의원에서 -
한방(韓方)요법으로 다스려!
◆ 허리, 목 디스크 한방요법 치료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 퇴행성 관절염 통증
◉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 목, 허리 디스크 통증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허리, 목 부분까지 연결 된 척추뼈 사이에 있는 섬유 태와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액을 디스크(추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파괴되어 생긴 병이라고 하며, 동신방 한의원은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나 목과같이 많이 움직이거나 충격을 가해졌을때 추간판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고 동신방 한의원에서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 한의원의 노하우가 담긴 처방을 사용하여 한약재를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한의학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 약물 치료 요법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동신방 한의원은 말한다.

동신방한의원 문의 080-598-9832

오늘의 禪語

⑨ 깨달음

번뇌·고통 벗어난 자유로운 삶

'깨달음'이라는 주제는 여러 종교나 사상 · 철학 중에서도 불교와 인도의 종교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기타 종교(기독교, 가톨릭, 이슬람)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입니다.

'깨닫다' '깨치다' '깨침' '깨달음'은 모두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자어로는 '각(覺)' '오(悟)' 등이며, 산스크리트어로는 '보디(bodhi, 菩提)'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존칭 가운데 하나인 '붓다'는 바로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깨닫다'와 '깨치다' 또는 '깨침'과 '깨달음'이 의미나 뉘앙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오래 전에 '깨침'과 '깨달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논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깨침'은 한 번에 깨닫는 것(頓悟)을 뜻하고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漸悟)을 뜻한다고 구분한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어감상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은 동사 '깨닫다'를 명사화한 것이고, '깨침'은 동사 '깨치다'를 명사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치든 깨닫든 간에 관건은 '무엇을 깨치고 무엇을 깨닫느냐'입니다. 깨달았다면 무엇을 깨달은 것인지, 깨달음의 실체,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것은 정말 중생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힌두교의 깨달음과 불교의 깨달음, 그리고 선의 깨달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깨달음은 자신의 주재자인 아트만과 우주의 주재자인 브라만과의 합일, 그것을 '깨달음' 또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깊은 명상을 통하여 개체의 자아인 아트만과 우주의 자아인 브라만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도불교에서 깨달음이란 제행무상 · 제법무아 · 일체개고 · 열반적정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쓰러져 간다(무상)." "모든 존재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무아)." "삶은 고(苦)이다." 그리고 "욕망이 소멸된 마음 상태는 평온하다(열반적정)"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성제인 고(苦, 삶은 고) · 집(集, 집착) · 멸(滅, 욕망이 소멸된 고요한 세계) · 도(道, 고요한 세계에 이르는 방법-8정도)도,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삼법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중도의 이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관계에 의하여 생성 · 소멸한다고 하는 연기의 법칙, 모든 존재는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오히려 대승불교에 와서는 중도 · 공사상이 깨달아야할 대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체유심조로 대표되는 유심 · 유식 등도 깨달음입니다.

중도는 현실적 · 정신적으로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오히려 이것은 생활철학 내지는 행동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연기법은 모든 존재는 상호 관련성 아래에서만 존재한다는 논리로서, 존재와 사물의 생성 · 소멸에 관한 법칙입니다. 공(空)은 모든 사물이나 존재는 실체가 없는 것, 공한 것이라는 논리로서 무아 · 연기의 이칭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사성제와 삼법인 · 중도 · 연기법 · 공(空)입니다. 이 5~6가지는 시대에 따라, 또는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표현을 달리하여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켰을 뿐,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며, 영원불멸하는 실체는 없으므로(無我 · 緣起 · 空),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바로 고통이다. 그리고 고통이 사리진 세계는 평온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인도불교에서 추구했던 깨달음입니다. 열반이나 해탈도 번뇌로부터 해탈 또는 번뇌의 소멸을 뜻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 역시 인도 불교도들이 추구했던 바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문화적으로 중국인들은 현실을 긍정하는 입장인 반면 인도인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인도불교는 현실을 '고(苦)' '무상'이라고 규정했다면 중국의 선은 긍정적 사고 아래서 "어떻게 하면 평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平常心是道)?" "나날이 좋은 날(日日是好日)"을 만드느냐? 거기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평상심(平常心)'을 갖자면 번뇌가 없어야 하고, 나날이 좋은 날 역시 근심 · 걱정 · 불안 등 번뇌가 없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걱정이나 불안 등 번뇌가 있다면 그것은 우울한 나날이고 지옥의 나날입니다.

또 선승들은 부처나 깨달음 역시 멀리서 찾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바로 부처(卽心是佛)'이므로 "그대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깨달음을 벗어나 현실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내생이나 미래 같은 것은 먼 훗날의 문제이므로 일단 놔두고 현세에서 지금 이곳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전개하고자 했던 것이 선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힌두교의 깨달음은 개체·우주의 자아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
인도불교는 제행무상·중도의 이치·연기의 법칙을 자각하는 것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부처님 앞에서 '십대서원' 세우다

⑨ 승만 부인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파사닉 왕과 말리 왕비가 부처님께 귀의했다. 불법에 깊이 심취된 그들이 이미 아유타국(阿踰陀國)의 우칭왕(友稱王)에게 시집 간 딸 승만(勝鬘)에게 편지를 써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며 삼보에 귀의하기를 권한다. 궁녀 찬다라가 가지고 간 편지를 전해 받은 승만 부인은 환희심을 내어 참된 신심을 발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 한다. 이렇게 발원할 때에 부처님은 공중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만 부인은 예배를 올리고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서 승만 부인을 보시고 앞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부처님으로부터 보광여래(寶光如來)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십대서원(十大誓願) 및 삼대원(三大願)을 세우고 법을 설하면서 부처님께 인가받는 내용을 담은 대승경전이 바로 <승만경>이다.

"삼승 가르침이 일불승에 귀일" 설법
여래장 근거 중생 깨달음 가능성 강조

이 경에서 설한 승만 부인의 설법 요지는 삼승(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이 모두 일불승(一佛乘)에 귀일한다는 것이다. 또 중생은 모두 번뇌에 둘러싸여 있지만 본성은 청정무구하여 여래와 마찬가지로 '여래의 성품(불성, 여래장)'을 갖추고 있는 데, 이것을 공(空)과 불공(不空)의 양면에서 아는 것이 곧 바르게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래장(如來藏)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해탈과 열반의 증득도 가능하다는 법문이다. 즉 "세존께서는 여래장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설하신다…(하지만) 여래장에는 생사가 없다. 여래장은 유위의 상을 떠나 있으며, 상주불변하다"라고 설해진다. 여래장은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미혹, 더러움(染)과 청정함(淨), 무상(無常)과 상주(常住)의 근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래장은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에, 믿고 받아 지녀 직접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승만 부인은 "여래장은 자성청정(自性淸淨)이면서도 번뇌에 오염되는데, 이 관계를 범부가 알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지키며 결코 잊지 않겠다는 섭수정법(攝受正法)을 서원한다. 섭수정법은 보살의 실천행인 6바라밀(보시 · 인욕 · 지계 · 정진 · 선정 · 지혜바라밀)을 뜻한다. 6바라밀을 닦아 해탈하기 위해서는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등 일체의 물질과 정신작용을 포함하는 '오온(五蘊)이 본래 공하다'는 이치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五蘊皆空 度一切苦厄).

특히 승만 부인은 여래장 사상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불성에 대한 대신심이 절대적임을 밝히고 있다.

여래장이나 불성을 상주불변하는 아트만(atman: 我)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상견(常見)이다. 이는 무아(無我)와 공(空)에 집착하는 단견(斷見)과 마찬가지로 불설이 아니다. 불성은 유 · 무와 단 · 상의 변견을 초월해 중도로써만 체득된다. <열반경>의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고 한다[佛性 非有非無 亦有亦無 有無合故 名爲中道]"는 법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성, 자성청정(自性淸淨)에 관한 설법은 초기경전에도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은 <앙굿따라니까야(증일아함경)> '자성청정경'에서 "수행자들이여, 이 마음은 청정하다. 빛을 발한다. 그러나 이것은 온 곳이 없는(본질적인 것이 아닌) 번뇌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고 설했다. 여기서 '청정하고 빛나는 마음'과 같은 표현은 대승불교의 심청정(心淸淨) · 여래장사상의 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불성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에서 나온 희론(생각)에 불과하다. 아(我)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아(無我)에도 머물지 않아서,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자성을 직접 증득하는 도리밖에 없다. "아(我)와 무아(無我)에 있어서 둘이 아닌 것, 이것이 무아의 참뜻이다"(유마경) 라고 한 대승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해 보자.

김성우 객원기자

신행게시판

●**열린선원 '선가귀감' 법화**=백련재단 서울 열린선원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1시 원순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이 〈선가귀감〉을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7시부터는 백련암 성철스님의 제자 원통 스님이 3월 둘째 주부터 6개월 동안 '관세음부살보문품' 강의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승가대학원 원장 지안 스님이 〈금강경오가해〉를 법문하고 있다. (02)722-0633

●**한국불교대학 2008년 신입생 모집**=한국불교대학이 2008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3월 18일 화요일 저녁반, 20일 목요일 오전반, 21일 금요일 오전반이 각각 개강한다. 대구큰절(053-474-8228)을 비롯해 경산도량(053-816-8228), 칠곡도량(053-313-8228), 구미도량(054-443-8228)이 동시 개강할 예정이다. 1년 수료과정으로는 불교기초교리, 예불문, 〈반야심경〉, 찬불가, 참선법, 〈천수경〉 〈금강경〉 등이, 2년 졸업과정으로는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강좌가 개설된다. 학력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가능하다.

●**덕주사 불교 교양대학 기본교육**=제천 덕주사가 3월 5일 불교교양대학 기본 교육을 개강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기본 불교 교양과목을 3개월 과정으로 강의하는 불교교양대학이 첫 강의를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충주 여성회관에서 열린다. 22일에는 〈금강경〉 강의반이 개강해 덕주사 관음전에서 강의가 이어진다. (043)653-1773

●**화장사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청주 화장사가 부처님 출가일인 3월 15일(음력 2월 8일)부터 출가일은 22일(음력 2월 15일)까지 자비도량참법 참회기도를 봉행한다. 이번 참회기도의 주제는 차량 무사고 안전운행 기도이다. 기도 동참금은 3만원. 한편 화장사에서는 초의차문화 다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반, 오후 7시반이 개설돼있다. (043)255-5758

●**금산사 산사체험 68기 모집**=김제 금산사가 산사체험 68기를 모집한다. 3월 7~9일 열리는 2박 3일 프로그램과 8~9일 열리는 1박2일 과정이 있다. 금산사 산사체험은 사찰예절습의, 입재식, 마음나누기, 예불, 108배, 참선, 사찰안내, 부처님 생애,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다도 및 차 밭울력, 야생차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 만들기, 도량울력, 산행 등으로 이루어진다. (010)6589-0108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新 보다 완성도를 높인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소상히 깨달아 苦海를 벗어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신을 한꺼번에 아우르는<새로운 밀레니엄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 유식학의 현대적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의식개혁·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유식禪思想 釋明
· 자기발견·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편의성 제고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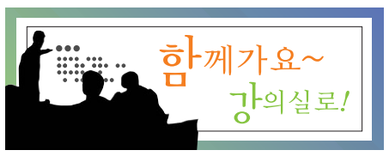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심혈관 건강 비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편한 마음



오늘 강연 주제는 건강입니다. 오늘 강연은 의학상식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인의 최대 사망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가운데 한 명 꼴로 6만여 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방에서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졸중입니다. 1년에 4만여 명이 뇌졸중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병으로 1년에 2만여 명이 숨집니다. 4등은 당뇨, 5등이 자살, 6등이 간질환입니다. 2등과 3등인 뇌졸중과 심장병의 병명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이 둘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 뇌졸중이고, 우리 가슴속의 심장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 심장병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심혈관질환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해에 심혈관 질환으로 6만여 명이 숨지는 것이 됩니다. 암하고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한 해 사망자 24만여 명 가운데 절반이 암 아니면 심혈관질환으로 숨지는 것입니다.

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기네스북에 올라있지 않지만, 그 어떤 질환보다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벼락처럼 찾아와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남겨진 결과 또한 대단히 처참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심혈관질환자 6만 명은 죽을 정도로 심각한, 최하 반신불수인 분들입니다. 의식이 남아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거나 뇌사상태인 분들이죠. 차라리 심장발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다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지만 이 경우는 많아야 5%입니다. 대부분은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기약 없이 누워있게 만듭니다.

약 15년 전 일입니다. 서른아홉 나이로 프랑스 <엘르(ELLE)>잡지의 편집장이 된 장도미니크보비는 어느 날 퇴근길 자동차 안에서 머릿속의 뇌혈관이 갑자기 터지며 뇌졸중이 왔습니다. 코 아래부터 마비가 됐습니다. 일자로 통나무가 되는 거죠. 그는 코 아래가 마비돼 말도 하지 못하고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비극이라면 코 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생각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비참함의 나락 속에서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씁니다. 아마도 이렇게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 마치 잠수복을 입고 있는 듯 답답함이 드는 가 봅니다.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거죠. 말도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꺼풀을 15개월간 20만 번 이상 깜박였고, 그렇게 책은 완성됐습니다.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빠 뺨에 볼을 부빕니다. 가만히 보니 아들의 뺨에 귀여운 작은 솜털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뺨의 신경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후 그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가장 끔찍합니다. 가족들이 간호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욕창입니다. 우리 몸이 마비가 되어 2시간 동안 가만히 눌려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 피부가 궤사되어 썩습니다. 24시간 내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만 한 고름주머니가 생겨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암환자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도 명료하고 산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혈관 질환 환자 6만 명은 어느 병원 중환자실이나 골방에 누워 있습니다. 의식은 남았는데 대소변도 못 가리며 기약 없이 누워있다 돌아가십니다.

뇌졸중과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혈관은 정말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술 마시고 담배 태우는 동안 혈관에 노란 기름이 쌓여갑니다.

문제는 이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혈관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레스가 최고의 적… '행복한 나'를 만들자



1. 혈압은 낮은 것이 좋다

저혈압이 고혈압 보다 축복입니다. 보통 혈압을 지닌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5년이 깁니다. 의사들이 고혈압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혈압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혈관이 잘 막히기도 합니다. 피가 혈관을 지날 때는 심장이 박동 칠 때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듯 철썩철썩 흐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더 쌔게 때립니다. 혈관 안에 상처가 누적되면서 혈관 내벽에서 혈전이라고 하는 혈관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잘 떨어져 나옵니다. 운이 없어서 큰 혈전 조각이 나오면 미처 녹지 못하고 우리 뇌나 심장 혈관을 막는 것입니다. 혈압에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높은 쪽에 해당하는 수축기 혈압(140미만 정상)과 낮은 쪽에 해당하는 이완기 혈압(90미만 정상)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보다 높으면 의학적으로 고혈압환자입니다. 여러분은 120(수축기)과 80(이완기)이라는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압 목표치입니다.

2. 혈당은 낮은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병을 당뇨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혈관이 아닌 장기입니다. 당뇨병은 불필요하게 혈관 내에서 당분이 넘치고 장기로 흡수가 안 돼 쌓인 병입니다. 반대로 말초혈관은 당분이 이르지 못해 굶주리고 있죠.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톨게이트가 막힌 겁니다.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복 시 혈당을 기준으로 최소한 126보다 낮아야 정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복시 혈당이 100보다 낮을 때 여러분의 혈관은 맑습니다.

3.천천히 뛰는 심장이 좋습니다

심장을 지닌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은 거북이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명만 200년입니다. 1분에 거의 두 번 뜁니다. 가장 짧은 수명을 지닌 동물은 쥐입니다. 수명은 1년입니다. 1분에 심장이 400에서 500번 뜁니다.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분의 심장은 천천히 뛸수록 건강합니다. 기준은 1분에 90회 미만으로 뛰어야 정상입니다. 70회 미만으로 천천히 뛴다면 안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평상시 맥박이 늦게 뛸 수 있도록 배려하십시오.

4. HDL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몸에 좋습니다

HDL콜레스테롤은 혈액 안에 녹아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혈관 벽에 붙은 노란 기름 덩어리를 간으로 가져가 녹이는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기준은 적어도 40은 넘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동맥경화입니다. 70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만족스럽습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

'몸과 마음은 새의 양 날개와 같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중도(中道)를 유지할 때,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지혜롭다.' <유마경> 방편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 몸은 불꽃과 같아 갈애로부터 생겨난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온갖 인연을 따라 생긴다. 붓다의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의 병을 끊고자 원한다면 마땅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은 시대. 근원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됐다.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롭게 조절하는 노하우를 전수 받을 특강이 마련됐다. 의학전문기자라는 타이틀로 대중들에게 친근한 홍혜걸 의학칼럼니스트에게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숫자를 달력에 기록해 보십시오. 나의 혈관 성적표입니다. 설사 신체검사 결과지에 정상이라는 도장이 찍혀있을 지라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가능하면 제가 제시한 이상적인 기준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HDL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압 혈당 맥박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운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혈관을 맑고 깨끗하게 함입니다. 공기가 나쁜 도심지에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혈관은 깨끗해집니다. 어떤 보약이나 먹거리도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습니다. 운동은 종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십시오.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처음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마지막으로 혈관의 기름이 깨끗해집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 무척 시달립니다. 의학전문기자인 제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말해 달라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안녕,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해롭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화학적으로 우리 몸은 녹이 습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암에도 걸립니다. 암의 뿌리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녕을 얻기 위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요즘같이 경쟁 지향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안정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각박한 삶을 살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행복하더라'는 나만의 행복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취미가 됐건, 종교가 됐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 가지를 개발하십시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daum.net

EBS-MS MBA는?

EBS와 경영교육 전문 업체 (주)매니저소사이어티가 공동 운영하는 단기 MBA 과정이다. 당신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개발.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결합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지향하며, 개인이 속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생생한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 제16기 입학생을 2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EBS-MS MBA 홈페이지(www.ebsmba.co.kr)를 참조.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불자님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드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108회 수지 독송한 신도는 청정 감로수(지장수 : 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 3병을 무료로 드립니다. 지장수는 몸의병(특히 위장병, 아토피, 변비, 간, 장 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도량내에서 드리는 지장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치악산 연화정사에서 드리는 순수 황토 제품


자연 담은 황토팩
· 용량 : 400ml
· 성분 : 100% 천연 황토, 천연수 100% 천연 황토, 천연수
· 특징 : 5년 숙성과 여과 제조, 無색소, 無향, 無방부제
· 튜브타입
· 소비자가 : 20,000원


순수 천연 게르마늄 황토비누
· 용량 : 100g × 3EA
· 성분 : 순수 천연 황토, 천연 게르마늄, 100% 천연 황토, 천연수, 호호바오일, 천연 식물성 Soap Base, 스쿠알렌, 한방 약초 추출액 17종, 토코페롤, 알로에, 그레이프 씨드 오일, 솔잎향 외
· 소비자가 : 24,000원


자연 담은 황토 샴푸
· 용량 : 400ml
· 성분 : 유기농 녹차 추출물, 100% 천연 황토, 천연수
· 특징 : 발명 특허 출원 : 10-2006-0086610
· 소비자가 : 15,000원


자연 담은 황토 바디워시
· 용량 : 400ml
· 성분 : 유기농 녹차 추출물, 100% 천연 황토, 천연수
· 특징 : 발명 특허 출원 : 10-2006-0086610
· 소비자가 : 13,000원

해 맑고 풍광 좋은 보성의 유기농 녹차와 산 깊고 물 맑은 지리산 자락의 순수 천연 황토를 첨가하여 5년간 숙성시킨 지장수로 정성을 다 해 빚었습니다. 모발 및 두피,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 있게 유지시켜 주며 외부 자극에 대한 스트레스를 편안하게 이완시켜 줍니다.



황토의 특징
·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제독, 항균, 보습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효과
· 자연보습성분
· 건강한 피부관리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 / 010-6772-7485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천안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寺,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주요수록내용■
금함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뱁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임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십재법

전 352쪽
각권정가 10,000원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개포구 이현3동 8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황목(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요리조리 깨워보기' 퍼포먼스

3월 7~18일, 광화문 갤러리서 | 이기향 교수, '我! 나, 훔쳐보기-moving image' 展

디지털 영상과 의상 등 통해 불교적 '空사상' 표현

2005년 한성대 예술대학원장 이기향 교수는 미국 중부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이국생활의 외로움에 지쳐 있을 때 한줄기 등대의 빛처럼 용기를 북돋아준 가르침을 접했다.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달라이라마 제자인 마하 부르스 스님에게 배운 '공(空)의 철학'이 그것이다. 그에게 '공'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었다. 제 멋대로 빚어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삶의 원리였다. 또한 본능에 길들여진 마음은 집착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과 모든 현상에는 실체가 없듯이 욕망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을 가슴에 차곡차곡 새긴 이 교수는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이 접한 '공'의 가르침을 주제로 의상 작업에 몰두했다. 3년만의 결실이 비로소 일반에게 선보인다.

3월 7일부터 18일까지 광화문 갤러리서 열리는 '아(我)! 나, 훔쳐보기-moving image 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영상과 바디페인팅, '의상' 등의 오브제 들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이끌며 '공'의 개념을 조형적으로 펼친다.

마치 전시장에 들어서면 백남준의 비디오아트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사실 꼼꼼히 뜯어보면 패션쇼 무대다.

전시는 '공'의 개념을 세가지 주제로 나눠 구성한다. 첫 주제는 '공'과 상반되는 '색(色)'을 통해 감각적 현상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아귀(중생)가 욕망이란 고통의 씨앗으로 불행을 잉태하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다. 아귀의 존재는 벌거벗은 실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모델의 알몸에 '욕망과 고통' 등 내면을 상징하는 감로탱을 바디 페인팅 기법으로 그렸다. 그래서 제 1주제는 '색의 세계-욕망과 고통'이다.

2주제에서는 공 개념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카메라의 즉물적 속성을 이용해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의 실제 모습을 기록해 본질에 다가서게 했다. 이때 카메라 렌즈는 실상을 기록하는 눈을, 나의 눈은 고정 관념의 눈을 의미한다.

폴리에스테르천에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단청을 입힌 옷을 찰나(1000분의 1초)에 찍혀진 이미지와 연속된 시간(15초)에 촬영한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통해 대상의 실제 모습을 확인케 한다.

3주제 공 개념의 체험과 습득에서는 제1주제와 제 2주제에서 관람한 내용을 토대로 한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상(像)의 드러남과 사라짐에 따른 이미지 변화의 관찰을 설명한다. 시시 때때로 변화하는 내면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요리조리 끼워보기' 전시실에서는 관세음보살과 아귀가 그려져 있는 의상을 입은 행위예술가가 여러 개의 구멍에 목과 팔, 다리를 자유자재로 끼워 실루엣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옷이 꼭 입는 존재라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알려준다.

이기향 교수는 "이번 전시는 불교적 콘텐츠의 종합적 예술성을 선보이며, 욕망과 집착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에게 '공'의 철학을 통해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 차원에서 이번 전시 입장료 수입은 미혼모 시설에 기부해 전시 주제인 행복 나눔을 실천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일인 3월 7일 오후 5시 부터는 '요리조리 끼워보기' 퍼포먼스도 함께 열린다. (02)760-4146

김주일 기자

선지식들의 승물 통해 불교의 수행정신 알려

'깨달음의 벗, 승물 18물의 지혜展'



발우는 무소유 정진하는 수행자의 표상이다.

세속적인 욕구를 떨쳐버리고 깨달음에 다가서고자 하는 불교 수행자들의 바랑에는 정진할 때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구인 승물(僧物) 18가지가 들어 있다.

18가지 승물은 세 종류의 옷을 말하는 삼의(三衣),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인 발우(鉢盂), 오늘날의 칫솔을 말하는 양치용 나뭇가지인 양지(楊枝), 자리에 깔고 앉거나 절을 할 때 펴는 천인 좌구(座具), 머리나 손톱 등을 깎을 때 쓰는 작은 칼인 도자(刀子) 등이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발우는 탁발에 의지하고 무소유로 구도정진하는 수행자를 표상하는 승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우는 석가모니 이래 불법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전법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상징물로도 쓰였다.

발우와 승물 18물을 통해 공양과 승물의 의미, 불교의 수행정신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마련된다.

백령도 몽운사(주지 지명)는 3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깨달음의 벗, 승물 18물의 지혜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선지식들의 발우를 100여 벌이나 모아온 발우박사(?) 지명 스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장이다. 지명 스님은 불국사 선원 등 여러 선원에서 선(禪) 수행을 하면서 발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고 주변에 부탁해 발우와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았다.

구 하 (1872~1965)스 님 , 석 주 (1909~2004)스님 등 국내 여러 노스님들이 썼던 발우 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 대사, 미얀마의 우꾸마라 스님, 태국의 프라자라타나 몰리 스님 등 외국의 유명한 고승 발우도 그의 손에 들어왔다. 지금 우리 스님들이 쓰는 발우는 대부분 목발우로 어시발우(밥을 담는 큰 발우), 1분자(국 발우), 2분자(반찬 발우), 3분자(청수 발우) 등 4개 1조로 돼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큰 발우 하나를 사용했으며 지금도 인도나 남방불교에서는 탁발할 때 하나의 큰 발우를 쓰며 대부분 철(鐵 · 쇠)발우이다. 지명 스님은 얼마 전 그렇게 모은 발우와 자료를 모아 <깨달음의 벗 천하일발>(이른아침)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의 선지식들이 사용하던 발우 1백여점이 선보인다. 이외에도 수안, 범주, 석주, 청담 스님 등 2백여점의 선서화도 전시된다. 또한 가사, 불감, 죽비 등의 승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032)864-9711 김주일 기자

'사진가 이갑철의 사진세계' 특강

3월8일 영광문화예술원서



이갑철 작가의 '기'.

중견 사진가 이갑철씨(49)의 흑백사진 틀에는 카메라와 함께하는 몸부림이 느낌으로 남는다. 정밀 광학기계인 카메라가 난장판 사물놀이의 꽹과리처럼, 굿판 벌이는 방울처럼 신명의 소품이 된다.

영광도서(대표 김윤환) 영광문화예술원은 3월 8일 오후 2시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이갑철씨를 초대해 그의 사진 세계를 들어보는 특강 자리를 마련한다. 이 씨는 지난 5년 동안 <반야심경> '공즉시색 색즉시공'을 주제로 깊이 있는 사진을 찍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강은 1부 '이갑철의 사진세계, 충돌과 반동을 중심으로', 2부 대담토론, 최근작품 氣를 중심으로, 3부 질의응답 및 작가 사인회로 진행된다. 사회 및 진행은 경성대 대학원 사진학과 소속의 영광문화예술원 강사 이동근씨와 사진가이며 영광문화예술원 사진디렉터 이상일씨가 맡는다. (051)816-9500

하성미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㉙견과류찰떡

겨울이면 많이 먹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두와 밤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들 견과류는 다른 과실에 비해 지방, 특히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은 고혈압 등 혈액순환 질환에 도움이 되고,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과 같은 필수지방산은 부스럼 · 종기 등의 피부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무기질과 비타민 등도 풍부해 신체를 구성하고 조절하는 역할에도 한 몫을 합니다.

대표적인 견과류로는 호두를 들 수 있습니다. 100g당 630칼로리를 내는 고열량 식품으로, 칼슘과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이 풍부합니다. 우울증에 효과적인 나이아신과 뇌 발달에 꼭 필요한 비타민 A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에 호두 1알을 먹으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100g당 160칼로리를 내는 밤은 견과류 중에서 열량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당질 중 50%는 전분이며 나머지는 설탕, 포도당, 덱스트린 등이 들어 있어 단맛이 강합니다. 비타민 A · B1 · C와 칼륨 · 인 · 철 · 나트륨 · 칼슘 등이 풍부해 병후 회복기나 환자, 유아의 간식 등에 좋은 보양식품입니다.

엄밀한 의미의 견과는 아니지만 부럼으로 사용되는 땅콩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열량이 높으므로 비만의 우려가 있거나 설사를 잘하는 사람은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절기풍속을 통해 영양보충을 이뤘다고 하지만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견과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지닌 견과류라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기 보다는 날마다 조금씩 먹는 것이 건강에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불포화지방산, 양질의 단백질 함유
무기질·비타민 풍부, 나이아신 우울증 효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견과류를 그냥 먹기도 하고 떡이나 죽, 강정, 이유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견과류는 익혀도 영양소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산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저장에 유의해야 합니다.

견과류 찹쌀떡 재료 : 찹쌀, 밤, 곶감, 잣, 검은깨

만드는 법

① 찹쌀은 하루 전에 담가 불린 다음 시루에 한 소큼 찐다. 옅은 소금물을 골고루 섞고 다시 한 번 푹 찐 다음 절구로 쳐서 찰떡을 만들어 둔다.
② 밤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삶아 으깨어 고물을 만든다.
③ 잣은 마른행주로 잘 닦아서 마른 도마 위에 놓고 곱게 다져둔다.
④ 곶감은 얄팍얄팍하게 저며 두고, 검은 깨는 씻어서 물기를 말려둔다.
⑤ 찰떡의 앞뒷면에 곶감을 붙이고 그 위에 검은 깨, 다진 잣과 밤 고물을 묻힌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연료비 90% 절약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

11년 전통 국내 유일 온수전문 업체



2008년형 신제품 고급형

☑ 금사원단
☑ 활성탄
☑ 3단접이 보관
☑ 완전 방수기능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성장하는 어린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보충 확인봉

특허품 : 히팅순환 조절일체형
독일 E.G.O社의 80년 노하우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온도 조절기(특허품)를 채택하였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온수매트 주의요망!!

■고급형 규격
1인용 : 950×2000×40 (±5)
2인용 : 1400×2000×40 (±5)
■보급형 규격
1인용 : 950×2000×20 (±5)
2인용 : 1400×2000×20 (±5)

(보급형 1인용) 시판 6주년 기념 첫세일 129,000원 100개 한정판매

웰빙 온돌방의 특장점

● 국내산 온수매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00% 국내산입니다. 품질이나 A/S면에서 아주 우수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는 비교를 거부합니다.
● 경제성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유사제품과 비교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루 10시간 기준, 한달 전기료 약 4,000원)
● 안전성 온수매트는 전선이 아닌 호스를 사용한 온수난방식이기 때문에 유해전자파가 전혀 없습니다.
● 쾌적성 인체에 해가 없는 내열호스를 사용, 제품의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쾌적한 난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건강소재 금사 원단처리로 청소가 간편하고,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부분만 따뜻하나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비싼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으며, 주무시고 나면 몸 전체가 가뿐한 웰빙온돌방입니다.

MBC 불만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07년 11월 29일 TV 방영

▶전자파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방출되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체에 에너지 회전을 방해하며 뇌파침전도 검사 결과 수면방해로 숙면을 취할 수 없음.
▶인체를 피곤하게 만들며 면역력에 문제가되는 전자파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음.
▶대한민국환경부에서 2005년 5월 『전기장판은 임산부와 어린이는 사용금지 권고』를 발표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큼.



▸제0271605호 ▸제0002626호
▸제0347807호 ▸제0008462호
▸제0347808호 ▸제0000097호
▸제0335837호 ▸제0027500호
▸제0002625호 ▸제0002661호
등판 : 제 2007-3210121-30-2-10717호

한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을 사용하실 매트

일반 전선매트는 전선 부분만 따뜻하지만 온수매트는 매트 전체에 훈기가 있어 좋습니다.

대진하우징은 지난 11년간 온수침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자파 없는 보일러식 온수매트를 업계 최초로 개발하여 6년전부터 시판하고 있는 우리나라 온수매트의 선두주자이며, 시스템은 같아도 타회사와의 기술력의 차이는 큽니다.

보급형 (한정세일가) 1인용 ~~158,000원~~ ➡ 129,000원 / 2인용 ~~178,000원~~ ➡ 149,000원

고급형 1인용 178,000원 / 2인용 198,000원 고급형 지로분할가 1인용 : 41,000×5회 / 2인용 : 46,000×5회

대진하우징 주문전화 080-338-3388

■ 입금계좌(농협) : 1285-02-011378 이 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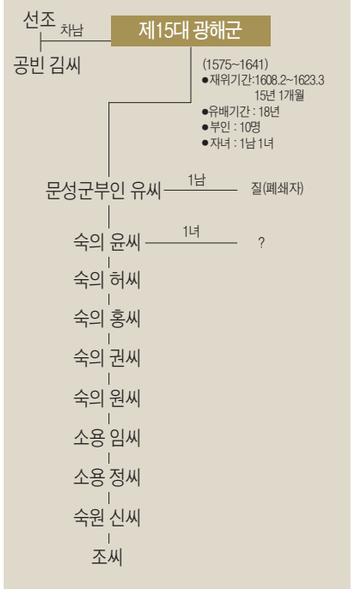
당쟁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불운한 왕



15대 광해군·문성군 부인 – 광해군묘

광해군 1575~1641(67세)
재위 1608.2(34세)~1623.3(49세) 15년1개월,
18년(49~67세)

제15대 광해군 가계도




광해군 묘 비석. 총탄 자국이 선명하다.

광해군 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불행한 붕당의 희생자는 경사가 심한 비탈에 조촐하게 누워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색하다. 그가 잠든 일대는 지금 모 교회의 공원묘지다. 공원묘지 통행로를 한참 올라가다보면 도로 옆 비탈에 그가 누워있다. 능이란 이름을 얻지 못했기에 주변에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후궁 공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다. 출생부터 파란을 예고했다. 조선조는 자비가 아닌 논리와 명분을 최대가치로 삼았다. 어느 쪽이든 논리는 항상 견고하다. 논리 이전의 논리, 불립문자가 끼어들 틈이 없는 시대였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은 제로섬 게임이다.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다. 목숨까지 담보한 게임이기에 처절하다.

선조는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지만 정비 소생은 없었다. 하릴없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했다. 선조 자신 방계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사실이 걸려 세자 책봉을 미루었다. 그러나 선조의 나이 40세를 넘기자 대신들은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청을 올렸다. 그러던 차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동복형 임해군은 성격이 난폭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지 못해 제왕 후보에 들지 못했다. 적자도 아니요 장자도 아닌 광해군이 대통을 이을 세자가 되었다.

명·후금과의 실리 외교정책
현재 한반도 정세에도 유용

임진란 때 선조와 함께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정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뒤 7개월 동안 강원 · 함경도 등지에서 의병 모집 등 분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행재소(임금이 멀리 거둥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합류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1606년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났다. 그의 탄생은 피바람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사이에 붕쟁이 확대되었다.

1613년 조령에서 잡힌 강도 박응서 등이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과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에 따라 김제남을 사사했다. 또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여 강화에 위리안치했다가 이듬 해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증살되었다. 이 때 영창대군의 나이 아홉 살이었다. 1615년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인조의 친동생) 추대 사건에 연루된 신경희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1618년 이이첨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다.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사대를 거부한 것과,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의 외교전략은 오늘날에도 한반도 정세에 참고가 된다. 작은 나라 한반도는 여우, 쥐와 같은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광해군 묘–조선 15대 임금이자 두 번째 폐위 임금인 광해군(1575–1641)과 문성군부인(1598–1623) 유씨의 묘이다. 사적 제363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 59. 면적 5만6100㎡(17000여 평). 찾아가는 길–단종 비 정순왕후의 사릉과 가깝기 때문에 함께 답사하는 것이 좋다. 경춘국도 금곡–사릉리 방향 390번 도로(좌회전)–우측에 사릉 이정표(사릉 답사하고)–사릉 우측에 짧은 다리(송릉교) 건너 송릉리로 진입–영락교회 묘지 방향–영락동산 돌기둥 이정표 안으로–약 2.5km 오르면 광해군묘 표시 이정표가 있음.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져 후금을 건국하자 광해군은 그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평양감사 박엽, 만포첨사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 때 후금과 전투를 벌이던 명나라에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다. 왕은 강홍립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출병케 했다. 그러나 부차싸움에서 명나라가 후금에게 패하자 강홍립은 적당히 싸우는 체하다가 후금에 투항해 누루하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란한 외교 솜씨를 보였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체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의 강요에 의해서 출병했을 뿐 우호를 다질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강홍립은 후금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후금의 동향을 보고하는 밀서를 수시로 보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오늘날에도 참고서가 된다.

그러나 명분론자들은 대명 사대주의를 고수했다. 그들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고 후금(청)은 일어서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들은 결국 병자호란을 맞고 삼전도 눈밭에서 왕(인조)이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아홉 번 찍으면서 용서를 빌며 군신관계를 맺어야했다. 이른바 삼배구고두례(三拜九敲頭禮)다.

한편, 광해군은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노력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 <선조실록>을 편찬했으며, 적상산성에 사고를 설치했다.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 때 나왔다. 외래 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광해군은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해 판단이 흐려졌다. 또한 인재 기용에도 파당성이 두드러져 반대파의 질시와 보복심을 자극했다.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해 패륜적인 군주로 규정되었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같은 반정에 의해 희생된 연산군과는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은 18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세자 질과

사대주의 거부 등 명분 삼은
인조반정 일어나 폐위·유배

폐세자빈 박씨 등 4명이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다. 두 달 후 폐세자는 사약을 받고 세자빈은 자살했다. 폐비 유씨도 유배생활 1년7개월 만에 화병으로 죽었다. 홀로 남은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청나라에 완전 굴복한 인조가 광해군의 복위 움직임이 있을까 두려워 내린 조치다.

유배지에서 그의 삶은 초연했다. 자신을 감시하는 별장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신은 아랫방에 거처케 해도 분노하지 않았다. 심부름하는 종마저 '영감'이라고 호칭해도 묵묵히 감수했다. 버리기, 비우기를 실천한 여생이었다. 그는 1641년, 귀양생활 18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을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다. 조정은 유언에 따라 남양주에 있는 공빈 김씨 묘 아래쪽에 묻었다. 박씨 집안으로 출가한 서녀의 자손들로 하여금 무덤을 돌보게 했다. 지금은 사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돌보는 공익요원 한 명 없는 외로운 묘이다.

광해군 때의 불교 역사는 미미하다. 선조 때 용맹을 떨친 고승과 의승군의 활약이 지속되지 못해 다시 배불사상이 기세를 드려는 과도기이다. 왕이 붕당에 휘둘리지 않고 불심을 깊게 하여 민심을 얻었다면 지금까지 군왕의 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매 소절마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시송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서울 도봉선원에서 선가귀감 법회 있습니다.
선가귀감 법문 총 80회 중 현재 22회 진행중입니다.
법문 테잎 구입할 수 있습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 2677-5442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사찰신축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염불 CD, 테이프
스님이 적은 보시금으로
직접제작해 드립니다.
소량제작도 가능합니다.
도현합장
031)829-3115
010-4343-311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명리.육효 수강생모집
명리 .육효란
단 하루를 배우셔도
올바르게 배우셔야 합니다
용 덕 사
문의 051)506-4038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 개인지도
정통으로 배워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안내 : 정규반 / 전문가반 각 개인지도
◦위 치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호선, 8호선 잠실역) 주공 5단지
◦원장소개 : 미래예측학 박사과정 5학기(논문과정) 역학입문 18년, 역학지도 10년, 법학 석사
청하미래예측연구원 · 청하명리학당
02)2202-3632
017-723-5808

대한불교전통예술종합대학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무,범음범패,바라춤,나비춤,
사찰행사,49재,점안식, 전통무용 (살풀이,지전춤,
극락무),찬불가 가야금,학인모집,실전교육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제 1기생 모집(6개월,1년과정)
2008년 3월 8일 입학

이혼녀보호센터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심각한 이혼상담
해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저작권과 불사인연
1. 유발 소승은 30년간 역학지도와
2. 저서를 백여권 쓰고, 법인 종단을
3. 창종한 지 7년 부득이 저작권 급매
4. 불사를 하고자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2693-7712

역학지도 30년
선착 3명 개인지도
●과목 : 명리 · 육효 ·
성명학 · 명리의학
●특징 : 공익법인창종,
저서 100여권
한글성명학창안,
명리의학창안
016-693-7712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80)027-4684
010-6730-1186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명리,육효,육임,관상학
구성학,풍수,음양택,
성명학최면술,빙의,
전생,염가치유비법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스님이 타시던
갤로퍼(상태 A급)
투벤 2000년(11월)식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액은 3백 9십만원
010-8850-29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출가를 원하는 여행자 모집)
▷서울
010-4193-2324

큰 법력으로 정말 신심며
재자와 영가가 동시에 해탈하는
한글, 한문, 천도재,
49재 및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많이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진장 합장
011-854-8107

미국(L.A.)에서
수행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외국비자 있는
스님에 한함
042)282-9270

사찰 공양주 구함 1명
(교포사절)
여사무장 구함 1명
(경기도 용인)
031)335-2576

기도스님 모십니다
055)261-7505
종무원,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55)289-7282~3

천일기도 하면서
지내실 비구·비구니
스님과 처사, 행자님,
법사님 모십니다
011-561-6644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광역시
052)243-3881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6-748-3004

오래계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종무실, 법당,거사님,
보살님 모십니다
051)242-1684

불교재반의식 및
한의학, 사주학 가능한
비구승 입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에
무보시로 상주하여
수행정진 활인구재 하겠습니다
010-4561-567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
출가할스님,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051)761-1447
011-579-6444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 공부 요양하실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 청강사
055)932-5706
016-9506-5706

천년고찰인 내원암
수행도량에서 후원을
관리할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구합니다
경북 소백산 내원암
010-6353-1180
054)653-1180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통화 중일때는 02-574-3427) 핸드폰 011-498-5067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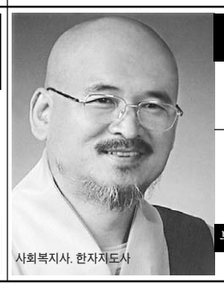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60세 전후)
서울 구파발(전철에서 10분거리)
02)352-0572
011-261-0572

비구니
부전스님 모습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경북지역 전통사찰)
010-2063-2551

역 학 공 부
●사주초급 : 3월6일 개강(18:30분)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양택 풍수 인테리어: 3월 첫째 화요일 개강
주역, 풍수금낭경,마의상법
수요일 18:00 수강생 무료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풍수,관상,육효,자미두수,수상 / 수료증 자격증, 졸업생 재택근무가능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02)2264-0258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6-8228	053)313-8228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哲학 學학 講강 義의
나는 아는 바가 없소
성인들의 가르침을 행(行)하였을 뿐이오.
경당문노(耕當問奴)란 말이 있습니다.
농사일은 마땅히 머슴에게 물어보고...
아픈 사람은 마땅히 병원을 찾아야 하듯이...
사주, 궁합, 택일, 학생적성, 작명, 운세 등
중생제도에 알맞는 방편, 화술은 주역선생을
마땅히 찾아 물어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눈은 떳지만 바로 못보네
귀는 열렸지만 바로 듣지 못하고
길은 있지만 바로 못가네
◆ 잘 되고 안되는 짓은 지금 잘 될 짓을 하고 있는가?
고생할 짓을 하고 있는가?
◆ 씨앗도 안뿌리고 추수하시기 바라는가?
◆ 바윗돌에 씨앗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 인연 닿는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한자는 몰라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 한글은 몰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었듯이...
※ 한번 수강료로 깨우치실 때까지 무료
◈ 장 소 : 寶明寺(보명사) 관악구 신림 3동 소재
◈ 일 시 : 2008년 3월 15일(3개월 과정)
매주 2회(토, 일요일) 오후 3~5시
◈ 위 치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2번 출구
마을버스 06번 종점에서 하차
◈ 문 의 : 홍보팀 02)738-2045

기치유란 무엇인가?
기치유는 서구에서 healing touch, energy healing 등으로 불리는 통합보완의학의 한 분야의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기치유사가 환자의 신체에 살짝 손을 대거나 약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의 치유 에너지만을 방사하여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몸을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으며 주문을 외우는 등의 주술적인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정통 기치유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단체에서 기치료 또는 기공치료라는 명목하에 마사지 교정 등의 수기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순수한 에너지요법으로서의 기치유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9주 과정의 수련을 마치면 기치유 능력을 갖을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이나 가족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됩니다.
한국기치유 연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기치유방법을 배워서 기치유가 가정의학적 차원에서 보편적 치유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치유 양성반 36기 개강! (초보자)
개강일자 2008년 3월 12일(수) 오후 7 : 00 ~ 9 : 20
수련회비 ~~99만원~~ 58만원 (9주, 매주 수요일)
모집대상 의료계 종사자, 호스피스, 체육 건강분야 및 요가 지도자,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지부를 내고자 하시는 분.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문의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02-3482-5032 www.gichiu.com
기치유센터
교대본부 : 02-3482-5032 / 부산지부 : 051-645-5068
고양지부 : 031-972-7585 / 분당지부 : 031-718-2718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에서 2008학년도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 · 범패 · 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1년)
◆초급과정
도량석, 종송,각단예불, 삼보통청, 각단불공 등
◆중급과정
49재 의식 및 천도의식,지장청,시왕도청,상용영반,
관음시식,화엄시식,전시식
◆고급과정
천수바라,사다라니,화의재바라,오공향,유원승,요잡작업,
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다림,예수재 등
2.입 학 식: 2008년 3월 6일 (오전 11시)
(수업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종무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7.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전화접수가능,상시모집)
8.연 락 처: 053)857-4339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간 2리 265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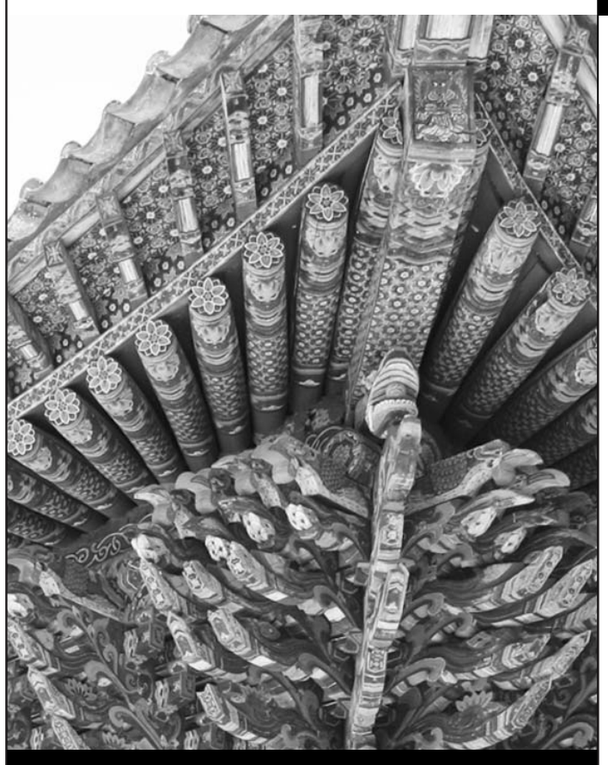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8년 3월 13일 부터 (4주간)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부산연수원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불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20평
- 요사 : 15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전 통 사 찰 -

- 위치 : 지방도시 외곽 10분거리 ●부지 : 5,000평
- 전통사찰 및 일반유적지
- 납골허가 5000기 중 약 400기 안치
- 주차 : 대형버스 20대 주차가능
- 가액 : 40억(즉시 운영가능)
- 대리상담 불가하며 직접상담 시 보안유지 및 방문상담함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의령 정곡
- 대지 : 1000평
- 건물 목조법당 30평+ 10평+15평(3동)
- 요사 30평(공양간)
- 산좋고 물좋고(계곡접) 전망좋은 기도도량 최고
- 양도가 2억 8천만원
- 위치 : 남쪽 바닷가 진해
- 부지 :1500평(주거지역)
- 법당 : 목조 43평(3포,5포)
- 지장전 30평,요사채 40평, 산신각5평 공양간 45평, 대종각, 사무동(2층)40평
- 버스진입 가능, 뒤편에 산세 아주 좋음 정남향, 탁트인 바다전망
- 전통 사찰 최고의 도량 ● 가격:15억

사찰 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대형사찰 및 임법당 · 포교원 · 사찰부지 다량확보 1억에서 부터 세무상담 및 소유권이전 대행 무료 상담 서비스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4층 건물중 3층
- 35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700만원
-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0-9469-232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4호선 상계역 부근
- 평수 : 2층 34평(법당.주지실) 3층에 방3,주방,욕실
- 삼존불,신중단,영가단,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보증금 1,100만원/월100만원 시설비 절충

02)952-813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시내(4호선 역 앞)
- 평수 : 5층 210평(옥상 사용가능)
- 보증금 : 4,000만원, 월160만원
  시설비 : 1억원(꼭 하실분 절충가능)

010-8337-0803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 경북권)
011-528-8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 정원, 잔듸, 연못 설치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8877-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305평(전부 대지)
- 건물 : 2동(법당, 요사)
- 가액 : 내방 후 결정

011-9638-822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6평
- 방2, 법당, 공양간, 최신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3천만원(절충가능)

055)337-8600
011-834-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 평수 : 70평
- 2층 건물중 2층(옥상 사용가)
- 법당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상식선에 절충가)

010-3120-100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2동
- 평수 : 100평, 밭 200평
- 법당, 삼존불, 각단탱화
- 등산로 입구
- 보증금(권리금 합)2500만원, 월35만원. 즉시법회가능
- 스님 종단일로 급 안내함

010-3900-1380

사찰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당고개역 10분거리)
- 총평수 : 807평(전,답)
- 건물 : 조립식 47평,임법당,방3개 욕실, 화장실(실내 2개)
- 하우스 2동, 50평, 15평
- 가액 : 5억6천(내방 후 절충가능)

※오솔길 100m 들어옴
011-9110-7659

사 찰 안 내

- 전철 1호선 동두천 중앙역 앞
- 평수 30평(여유면적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 40만원 시설 3개월 되었음
- 사정상 급 안내함 시설비 약간

010-5019-8356
010-3902-3294

토 굴 안 내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형산 황용사
- 대지 :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 보일러, 에어컨 설치됨
- 가액 : 3억2천만원

011-542-098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부경찰서 정문앞)
- 3층 종무실 27평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4층 법당 27평
- 3불, 홍탱화, 흑탱화 옥탑 16평 산신각,
- 스님침실, 화장실, 주방
- 가액 : 8천만원(절충가능)

019-424-40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10-2877-77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강동구 둔촌동
- 법당 : 약30평. 공양간1, 방1
- 보증금 25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5061-2213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건물 : 법당 한옥 27평, 요사 22평
- 전세 : 2200만원
- 시설 및 주차장완비 약수유명

054)672-1334
010-8863-4800

기 도 처 안 내

- 위치 : 주왕산 국립공원
- 평수: 종교부지 340평 임야 1200 여평
- 건물: 대웅전 12평(목조), 요사 30여평, 산신각 1.5여평 전기전화없음.
- 수행과 신심으로 사찰을 외호하실분

010-7109-328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 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60세 이상 연락바랍니다

063)543-5551
018-427-225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권선구
- 법당 10평, 방1, 부엌1
- 살림가능, 아주 깨끗함 즉시법회가능
- 비구니스님 포교 최적지 포교를 위한 최면 테마 전수해 줌
- 보증금, 시설비 합 2천만원, 월 32만원

010-7618-432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 평수 : 74평(7층 건물중 6층)
- 금정산 경치 좋음
- 보증금 27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9584-03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
- 대지, 논, 밭 2700평 (건물 120평 1, 2층 포함)
- 절터 최적지
- 가액 : 4억원

011-810-7018

전원주택 별장터

- 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금강변 (금강휴게소 강 건너편)
- 평수 : 730평(대지 200평) 장래성이 좋음

011-9584-0378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영천경찰서 부근
- 부지 : 370평
- 방4개, 법당16평, 거실1, 주방1, 심야전기, 주차장 완비

011-769-7029
054)338-0038

작은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 대지 : 101평
- 건평 : 45평(남향)
- 법당1, 방4, 주방1, 화장실2
- 가액 : 8천5백만원
- 마을뒤편(20년)

016-9578-3357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온양온천) 중심가 2층 건물중 2층
- 약 30평
- 법당, 상담실, 내실, 욕실, 거실, 창고 구비
- 보증금 3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교통, 생활편리, 즉시법회가

010-6374-00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대조동
- 지하철 6호선 2번출구 (로터리 대로변)
- 평수 : 60평(4층 건물중 4층)
- 법당, 삼존불, 칠성단, 신중단, 산신각, 영가단, 각단탱화
- 에어컨 3대, 전광판 2대 법당조명, 음향엠프시설 완비
- 거실, 공양간, 집무실 등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10-6287-35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감암리 15번지 (용암사)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에서 100m (의령신반에서 5분거리)
- 대구 50분, 창녕 25분, 부산 1시간20분, 진주 1시간 10분
- 면적 : 약 400평 석축공사및 옹벽공사 2000만원소요
- 법당 : 약15평 (목조기와 4불및 탱화)
- 요사채 : 30평 (스라브 평당 300만원소요)
- 가액 : 1억 8천만원 (대출 8천만원가능)

011-9506-6612(법사)
011-9329-4241(법사)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2동
- 평수 : 50평(5층)
- 법당, 방2, 사무실, 욕실, 주방, 시설완벽
- 보증금 및 시설비 9천5백만원

017-232-338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 평수 : 20평
- 주방, 방2개, 다용도실 사용하기 편리함
- 전세 500만원/월26만원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011-9533-1601(보현)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200평
- 법당 30평, 산신각10평 요사채 30평 2동 납골탑 100기 시설
- 가액 : 1억 8천만원

010-9115-6831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 바닷가
- 전세 3500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1500만원

051)721-8853
010-2580-847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 고양시 토당동 (능곡역 3분 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3층 건물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A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8천만원

010-3116-1992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1-650-84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 대지 : 109평
- 법당 : 15평(동 주불, 오존불) 옛 사찰터임
- 가액은 답사 후 결정

016-541-436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하양읍
- 대지 : 475평, 밭(전) 238평 목조신축법당 : 31평 (약사여래부처님 7자반, 좌대 4자반)
- 주지실 15평, 구건물요사채 2동(25평)
- 동네 산밑에 있음
- 가액 : 6억(절충가능)

016-813-7409

사 찰 중 개

- 위치 : 경기
- 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위치 : 서울산아래
- 대지 : 국유 300
- 법당 : 45평기와
- 요사 : 25평
- 가액 : 9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변시세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사 찰 별 장

- 위치 : 경기도(이천행정타운) 서울 30분 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3평
- 요사채 양식 2층 건물(큰방5개)
- 신도접견실1개(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3천만원
- 특징 :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기도포교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016-510-3455

도심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시내중심가
- 평수 : 46평(3층 건물중 2층)
- 법당1, 방3, 사무실, 주방, 세면실2 관음도량, 150 원불
- 역학 포교스님 최고위치
- 보증금 1000만원, 월50만원/시설비 1500만원

011-258-1147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 대지 : 507평, 법당 : 25평
- 주지실, 극락전 45평, 요사채 40평 기본시설 일체완비
- 가액 : 직접 답사 후 상담 (전화상담 가능)

011-704-285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 청정계곡과 큰 호수접함
- 토목완공, 조립식 임법당
- 요사채, 황토방1, 삼존불, 탱화 무료보시
- 가액 : 1억 4천만원

010-6440-525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홍제지하철역 2분 거리(150m) 내부순환도로 바로연결, 상업지역
- 평수 : 20평(3층)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시설A급, 즉시법회, 생활가능함
- 포교원, 법당 처음하시는 분 최적지 침술, 역학치료하시는분 최적지

010-2709-61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왜관 낙동강변 동향
- 부지 : 800평, 공유지 500 여평 활용
- 법당 : 목조단청 10평, 임법당 35평
- 요사 : 24평(2층), 부속건물 40여평
- 교통 : 왜관 10분, 대구 30분 거리
- 특징 : 강변고절처로 기도처 최고
- 용도 : 도시인근 포교도량 최적지
- 용처 : 평탄하여 노후생활 최적지
- 환경 : 경관도 좋고 도로포장 완료
- 가액 : 3억 2천 5백만원
- 사진 : 사찰넷에 첨부파일 있음

010-4600-0408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불자정보 계속



불면증 원인·치료법

금융전문가 이충현(35 • 가명)씨는 요즘 밤에 잠을 못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수시로 급변하는 금융정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는데, 얼마 전 급작스레 찾아온 미국발 증시쇼크로 큰 손해를 보자 잠들기가 무서워졌다. 선잠이 들었다가도 폭락한 주식과 손해금액을 생각하면 불쑥 깨기 일쑤다. 비단 이씨뿐 아니라 업무, 가정사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불면증을 호소한다. 자야할 때 잠들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선·명상으로 스트레스 풀면

잠 못드는 밤 '안녕~!'

불면증 원인과 진단

불면증은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어도 금새 깨는 경우, 얕은 잠에 드는 경우 등 수면장애를 일컫는다. 4~5일 이상 쉽게 잠들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찾도록 한다.

불면증은 불규칙한 생활습관, 급작스런 환경변화, 잘못된 식습관과 질병으로 야기된 것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요인이 많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경우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정신질환 탓인 경우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진생 원장(박진생 신경정신과의원)은 "불면증은 수시로 사람을 괴롭히는 질환으로 심신이 괴로울 때 제일 예민하게 찾아오는 일종의 수면장애"라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만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양보다 과도하게 받을 경우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여동현 원장(소중한몸한의원)은 "한의학에서 불면증은 혈이 허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심 · 간에 열이 많이 생긴 것이 원인(음허내열:陰虛內熱)"이라 진단했다. 즉 낮에 사람이 활동하면서 순환하던 기가 밤이 되면 혈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혈이나 음기가 부족해 생긴다는 것이다.

어떻게 잠들 수 있나?

불면증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잠들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끄러워 잠 못 들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카페인 등을 과도 섭취하고 있다면 이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질병이나 정신적 원인의 경우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혼자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혈을 보강하고 음기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산조인(큰 대추의 일종) 등 약재를 쓰기도 하지만 기의 순환을 돕도록 침이나 부항 등 시술도 한다. 여동현 원장은 "마사지를 받고 곤히 잠든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마사지, 목욕 등을 통해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까? 박진생 원장은 "원인 해결보다 우선 잠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시키는 상담치료와 약물치료가 선택된다. 양방에서 처방할 경우 불면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면제 전단계인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가 주로 처방된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

모든 병이 그렇듯 불면증도 예방이 우선이다. 박 원장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카페인 섭취와 낮잠을 줄이는 등 "평소 수면습관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빠지지 않는다. 낮에 활동량을 늘려 피로도를 높이면 그만큼 숙면에 들기 쉽다는 설명이다. 또 잠들면서 책을 보거나 티브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잠자리는 잠만 자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철 스님의 <부처님 오신날 탄신 법어(불탄법어)> 기도법을 수행하고 있는 박 원장은 "불자라면 잠들기 전 독경을 권한다. 참선과 명상, 요가 등도 좋다. 특히 <불탄법어> 기도를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돼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불교 명상으로 해결하는 불면증

참선과 명상은 심신안정에 도움을 줘 불면증 해소에 효과가 크다. 인경 스님(명상심리치료학회 회장)은 "불면증 중증 환자라면 내적인 뿌리가 깊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명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불면증 원인 중 하나인 우울증 환자를 예를 든 스님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하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삶에 비관적인 환자도 기도와 명상을 통해 완치된 실례가 있다"면서 호흡법을 통해 명상을 생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경 스님은 "다수의 경전과 논서에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강박과 불안이 생기며 호흡법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호흡 자체는 감정도 생각도 아니다. 숨이 들어오고, 멈추고, 나간 상태에 집중하면 잡다한 생각, 우울한 감정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인경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나고 드는 호흡을 관하며 숫자를 세는 수식관을 기본으로 들숨, 날숨, 멈춤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은 "명상을 혼자 하면 삿된 길에 빠지기 쉽다. 스님과 함께 하면 안정감도 더해진다"면서 새롭게 호흡법과 명상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반드시 사찰에 가서 스님의 지도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조동섭 기자

카페인 섭취·낮잠 줄이고 규칙적 생활습관 길러야

명상·요가·독경 등 정서적 안정 유지 숙면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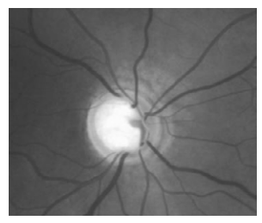
▲도움말 주신 분들: 인경 스님(명상심리치료학회) 02)2236-5306 / 박진생 원장(박진생 신경정신과 의원) 02)563-0609 / 여동현 원장(소중한몸 한의원) 02)771-1075

health 건강 칼럼 column

21. 녹내장

나이 들면서 백내장과 함께 우리 눈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환이 녹내장이다. 백내장은 수술로 완치 가능하고 눈의 다른 이상이 동반되지 않다면 얼마든지 시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약물이나 수술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회복시킬 수 없다. 따라서 백내장 보다 무서운 질환이 바로 녹내장이다.

우리 눈은 눈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압력을 갖는다. 이를 안압이라고 하며 대략 10~21mmHg를 정상 안압으로 간주한다. 눈의 모든 조직에는 동일한 압력이 가해지며 안구의 시신경이나 시신경 주위 혈관에도 압력이 미친다. 안압이 너무 높으면 시신경이 견디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데 이를 녹내장이라고 한다. 안압이 정상이어도 시신경이 정상 안압을 이겨내는 힘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녹내장이 될 수 있다. 이를 정상안압 녹내장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 특히 많다.



신경 손상 복구 불가 조기진단 중요

40세 이상 안압·시신경 검사 필수

일단 안압이 정상이건 높건 간에 시신경이 녹내장성 손상을 보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증상이 생긴다. 즉 녹내장으로 인한 최종적인 증상은 시야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중심시야 또는 중심시력은 병의 말기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시야감소가 있어도 자각증상으로 느낄 수 없다. 또한 안압이 높아도 눈이나 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은 거의 없다.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면 손상된 시신경은 녹내장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치료를 통해 더 이상 녹내장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뿐이다. 이미 중심시력이 감소할 정도로 진행된 녹내장은 녹내장 말기로써 이때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따라서 녹내장은 초기에 진단해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최근에는 녹내장 조기진단 장비와 치료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과거에 비해 치료 결과가 월등히 좋아졌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기 녹내장 선별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0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안압과 시신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신경 정밀검사, 정밀시야검사를 통해 녹내장이 확실한지, 또는 녹내장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진단 받는다. 40세 이후는 녹내장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해도 2년에 한번씩 녹내장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직장인 신체검사나 여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종합 건강검진 시 녹내장 검사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쉽다.

근래 10년간 녹내장 약물치료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녹내장이 수술과 약물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녹내장은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녹내장을 예방하거나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녹내장은 시신경의 혈액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좋은 생활습관은 녹내장에도 좋다. 즉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금연, 혈압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등은 녹내장에도 좋다. 그러나 녹내장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녹내장 검사를 미리 받아보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마치 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암 검사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직 한 번도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녹내장 검사를 받아보길 권한다.

홈페이지: www.lasikexcimer.com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안과 원장)

불자정보 669호 |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대전시 서구 암자
- 사용평수 : 28평. 등기필
- 임법당, 심야보일러, 방2 구들황토방 1개
- 산신각, 용천수 있음
- 가액 : 5천5백만원

010-7616-1111
011-9252-905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5층 건물중 2층)42평 삼존불, 108호신불
- 방1, 주방, 샤워실 (비품일체양도)
- 가액 : 시설비1500만원 전,월세는 절충가능

010-5013-25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서면
- 평수 : 40평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방2,주방
- 보증금 2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838-2373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내
- 평수 : 약 450평
- 법당 : 20평
- 산신각 : 5평, 종각 : 5평
- 요사 3동, 방 6
- 가액 : 7억 5천만원

010-4644-1470

토굴터 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 5,064㎡(약1500평) 임야
- 가액 : 평당 28,000원
- 진입로 포장, 섬진강변

011-647-4444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 42만원 시설비 : 500만원

011-9552-3976

토굴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 법당 17평 요사채 있음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000만원

010-4422-316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요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3천 (상담 후 절충가능)

011-879-7551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고창
- 부지 : 약1200평, 법당 : 20평
- 요사채 : 50평, 주지실 : 20평
- 약 100여년된 전통사찰 삼존불 봉안 외 법당 내부시설 완벽 심야보일러 설치
- 가액 : 1억4천만원 필히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618-735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청 주변
- 평수 : 40평. 법당, 방2, 주방
- 주차시설편리
- 보증금 2천만원/월15만원 시설비 포함

051)517-4513
011-857-1906
남·여 행자 모집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태백산 오전 약수탕)
- 부지 : 2600평(종교용지, 대지 600평)
- 건물 : 법당 25평 (춘양목 5포 7포, 단청, 삼단 닷집)
- 요사채 30평, 누각 18평, 산신각, 명부전
- 현대식 부엌, 화장실 호수 위에 위치하여 500평 마당과 경치가 수려함
- 가액은 협의 후 조정

017-848-333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석촌동(송파역2분거리) 4층 건물중 2층
- 총평수 : 65평, 삼존불, 동불상
- 법당, 방 2, 주방 1 주차가능, 에어컨 3대 살림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0만원, 220만원 시설비 3000만원(절충가능)

010-3088-3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버스정류장 앞) 주택 상가 빌라 밀집지역
- 법당(삼존불, 후불탱화) 접견실2, 방1, 주방1 뒷 베란다, 다용도실
- 전세 230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8678-4204

포교원(급)안내
아래 포교당은 감포기도도량으로 몸만 들어오시면 즉시법회가능함
- 위치 : 대구시 중구 남산동 (남문상가 2층 4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팔도시장 내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7207-3323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93) 진도 첨찰산 쌍계사

다양하고 튼실한 난대식물 빼곡히

기후 분포는 크게 한난-냉대-온대-열대로 나눈다. 식생구분에 쓰이는 '난대(暖帶)'와 '아열대(亞熱帶)'는 기후분류로 볼 때는 온대기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북반구에서의 식물분포는 적도로부터 북상하면서 열대-아열대-난대-온대-아한대-한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온대이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식물분포상을 보면 온대식물과 난대식물이 함께 공존한다. 전남 진도는 남쪽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난대식물들이 많다. 특히 첨찰산에 자리하고 있는 쌍계사의 계곡숲은 우리나라 사찰숲으로서는 가장 다양하고 튼실한 난대식물상을 보여준다. 첨찰산은 해발 485m로, 진도에서 가장 높다. 대흥사가 있는 두륜산의 한 줄기가 한려수도에 방울 튀어 생긴 섬이다. '첨찰산(尖察山)'이라는 지명이 암시하듯이, 그 옛날 정상에 봉화대를 세워 바다 물목을 지켰던 산이다. 그 산에 도선 국사가 들어와 쌍계사를 앉힌 것이 신라 하대 문성왕 때인 858년의 일이라고 한다. 이웃한 완도 청해진의 장보고가 쓰러진 지 10여 년, 국사가 동리산문의 혜철 문하에 든 지 또한 10여 년 만의 일이다.


쌍계사 푸조 나무.


가시나무.


밀어.


콩새.

천연기념물 난대 상록수림 쌍계사 계곡 따라 형성
동백·후박·구실잣밤나무·가시나무 등 50여종 분포

일주문을 들어서면 들어가는 길 좌우로 삼나무와 히말라야삼나무 등 키 큰 나무들이 도열해 서 있다. 일주문 안에 민가가 들어 있어서 절 분위기는 해탈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쌍계사 경내는 높고 낮은 3단 석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단에 자리한 해탈문을 지나면 중단에 범종각와 우화루가 자리하고 있다. 마당을 가운데 두고 상단에는 대웅전과 시왕전, 그리고 원통전이 있다.

경내식생을 보면, 하단 주변은 동백과 난대활엽수 몇 종이 있고, 중단 우측에는 약간의 왕대숲이 자리하고, 상단 뒤로는 동백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경가치를 띤 나무로는 해탈문 앞 동백과 우화루 앞 향나무, 그리고 몸집 큰 팔손이나무 등이 있다. 절에서 차나무 묘목을 길러서 차밭을 조성하고, 해마다 가을이면 절에서 키운 국화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현재 주변에 동백이 있긴 하지만, 일주문과 진입로와 해우소 주변을 비롯해 경내외에 동백숲을 좀 더 넓히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내 나무 꼭대기에 콩새 한 쌍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콩새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전체적인 색조는 붉은 빛이 도는 회색이며, 목이 굵으며 꽁지가 짧다. 딱딱한 열매를 쪼아 먹기 좋게 부리가 굵고 단단하다.

쌍계사 숲에는 육지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다 말고 도중에 하차하여 겨울을 나는 여름철새들이 가끔 눈에 띈다. 호랑지빠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쌍계사라는 이름은 절 양쪽으로 두 물줄기가 계곡을 이루며 흐르고 있다고 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두 계곡의 물줄기는 진도에서 가장 긴 의신천의 최상류로서 절 아래 사하촌에서 합류하여 사천저수지로 유입되었다가 바다로 유입한다.

절 앞의 의신천은 상류지역이라 계절에 따른 유량변동이 심해서 강수가 많을 때는 유량도 많고 유속도 빠르지만, 지금과 같은 겨울 갈수기에는 많이 떨어진다. 하상은 모래, 자갈, 바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밀어, 버들치, 미꾸리, 왕종개 등이 소(沼)에 모여서 살고 있다.

밀어는 망둥어과의 작은 물고기로, 길이가 5~10cm 정도이다. 몸은 원통형으로 길며, 꼬리 부분으로 가면서 납작하다. 주둥이가 길고 입이 큰 편이며, 배에 붙은 지느러미는 빨판 기능이 있어서 돌에 잘 달라붙는다. 돌에 붙은 미생물과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천연기념물 난대상록수림은 의신천의 최상류인 쌍계사 계곡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 상록수림은 2007년도에 '아름다운 천년의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탈문에서 첨찰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산행로가 상록수림을 관통하고 지나간다.

쌍계사에서 산행로를 따라 숲에 들어가보면 첨찰산의 산림토양이 그리 비옥하지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첨찰산은 바위산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사태(沙汰 mass movement)가 일어나서 작은 돌들이 경사면을 덮게 되었다. 흘러내린 돌과 바위들이 계곡까지 내려와 있다.

산행로를 따라 숲을 들어서면 겨울 한낮에도 상록수림이 만드는 숲 그늘로 해서 주위가 어두컴컴하다. 상록수림은 에너지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 사하촌인 사천리 마을사람들이 건축용재나 연료재로 나무를 많이 베어내 현재의 면적은 1만2000㎡로 좁아졌다.

이곳의 난대상록수는 동백, 후박,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를 비롯해 약 50종이 분포되어 있다.

난대상록수의 특징은 대개 잎이 두껍고 표면이 왁스층으로 덮여 있다. 엽록소 함량이 많고 광합성 능력이 높아서 내음력이 강하다. 그래서 키 큰 나무 아래에서도 잘 자란다.

이곳의 동백은 꽃이 시답잖다. 이웃한 잡목과의 생존경쟁을 벌이다 보니 키만 커지고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동백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잡목들을 제거하여 상록수림을 동백숲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상록수림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상록수림 지역을 더 넓히고, 동백숲은 상록수림과 인접한 곳에 따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생태적 대안이 될 것이다.

구실잣밤나무는 동백나무와 함께 이곳의 상록수림을 우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산으로, 키는 15m 정도에 이르며, 줄기 지름은 50cm 정도가 많다. 도토리 같은 열매는 꽃이 핀 다음해 가을에 익는다. 다른 참나무와는 달리 열매에 탄닌 성분이 없어 고소한 맛이 난다.

후박나무는 높이 15m에, 지름이 1m에 이른다고 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의 재료로 후박나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아름드리 후박나무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후박나무 껍질이 한약재로 이름이 나면서 수난을 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와도 큰 노거수는 보기 어렵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없다. 한자명인 '가서목(哥舒木)'에서 '가시나무'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가시나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잎으로 구분한다. 붉가시는 톱니가 없고, 종가시는 일부에만 톱니가 있고, 가시나무는 잎 전체에 톱니가 나있다.

생달나무는 해풍이 닿는 남해안과 제주도 등 섬에 자라는 상록활엽수 교목이다. 잘 자란 것은 키가 15m나 되고, 지름도 30cm를 넘지만 대개는 그 아래급들이 많다. 나무껍질은 녹갈색이며, 잎 표면은 윤기가 있고, 뒷면은 흰빛이다.

모람 역시 남해안 및 섬 지방에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덩굴을 갖고 있다. 줄기에 기근(氣根)이 나서 다른 나무나 바위에 잘 붙는다. 남부지방 사찰에서 담장 등에 올리면 좋을 조경수이다.

상록수림 임상에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상록성 고사리와 고비들이 파랗다. 큰좀제비고사리도 그 중 하나이다. 이 숲엔 상록수 말고 푸조나무, 감태나무, 소사나무 등 낙엽 지는 난대활엽수들도 많다.

푸조나무는 소금기에 강해서 남해안에서 서해안을 따라 경기도까지 올라오는 나무이다. 높이가 20m까지 자라서 이 숲에서는 느티나무, 팽나무, 참나무 종류와 함께 키다리 나무에 속한다. 바닷가에 방풍림으로 심을 만한 나무이다. 수관은 느티나무처럼 우산 모양으로 넓게 퍼진다.

감태나무는 키가 5m 되는 아교목으로, 가지에 잔털이 많다. 잎은 타원형으로 두꺼운 편이며 윤기가 있다. 남부지방 해풍이 닿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백동백나무'라고도 한다.

상록수림이 끝나면 경사가 가팔라지면서 난대수종에서 온대수종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졸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을 비롯하여 가막살나무, 갈매나무, 개어서나무, 덜꿩나무 등등이다. 그 가운데 졸참나무-소사나무군락이 가장 넓게 자리하고 있다

첨찰산의 침엽수로는 소나무를 비롯해 비자나무, 노간주나무, 측백나무, 삼나무, 편백 등이 있다. 그러나 소나무는 난대수종에 의해 기가 죽어서 차세대가 형성되지 않아 쇠퇴하는 단계에 있고, 진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곰솔도 이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웅전 뒤 높은 경사지에 보이는 푸른 숲도 소나무가 아니라 난대상록수림이다. 비자나무는 정상부 능선 근처 해발 400m에 수십 개체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행로를 쉬엄쉬엄 1시간가량 오르면 능선에 닿는다. 철쭉과 싸리 등 키 작은 관목과 억새 군락을 지나면 임진왜란 때 봉화를 피어 올렸던 봉화대의 잔재인 돌탑이 정상에 우뚝하다.

하산길에 너구리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이 관찰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중에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주민들에게 청문한 결과로는 청설모, 다람쥐, 멧토끼,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cafe.daum.net/templeeco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벅" 사용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양산삼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싹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볕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에서 직가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공복에 생삼을 바로 먹어도 좋고 다려 먹어도 좋은 산양삼입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 자주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
- 연로하신 부모님
-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는 분
- 손, 발, 몸이 찬 주부
-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
- 공부로 늘 힘든 수험생
- 몸이 약한 아이들
-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

※삼령,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8년산 3뿌리 ~~30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삼영농조합
농 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가족,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산삼은 평생 잊지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뾰족하게 사시지 말고 좀 너그럽게 사세요!

여러분과 같이 더우나 추우나 사계절을 막론하고 법당이 좁으나 넓으나 그저 부처님의 뜻과 우리들의 한마음이 함께 도반이 돼서 이렇게 공부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토론 질문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세계가 시끄럽고 복잡다단하죠. 복잡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다단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인연도 될 수 없거니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수라장같이 그런가 하면 또 선지식들이 계시고 일체제불의 뜻이 있고, 이 모두가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용기 있고 의욕이 있게 이렇게 삶을 살자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대로 될 것이며, 또 용기가 없고 이런 세상 살면 뭘 하나 한다면 그렇게 찌부러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자비하신 부처님은 자기가 일생 동안 걸어온 그 자체를 내막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이라는 것을, 둘 아니게 일대사로 자비의 인연으로 다 흡수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 지구뿐 아니라 우주의 전체를,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전체 다 흡수하셨습니다. 흡수하셔서 그렇게 그것을 여러 제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뼈 한 무더기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되고 형성돼서 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을 그 뼈 한 무더기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뼈 한 무더기를 놓고 절을 하시니까 "사생자부이신 어버이신데 어찌 뼈 무더기에다 절을 하십니까!" 했더랍니다.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니까,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런데, 저 뼈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느냐." 하시더랍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생략해서 미생물부터라고 합시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진화되고 반복하면서 차원을 높이 갖게 된 이 진로가 어떠했겠습니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의견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무엇을 해도 돌로 썼다가 도끼로 썼다가, 응? 이렇게 진화가 되고 진화를 시켜서 움죽거리고 그렇게 해오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렇게 나투며 오늘에 이르렀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미생물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다 아시죠? 밝은 세상이니까,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생명과 마음이야 둘이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해 의지하는 마음이 다 우리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일체 생명들이 다 그렇게 진화되면서 형성돼서 이 사람까지, 맨 나중에 사람까지 됐던 겁니다. 사람으로 돼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가만히 그 일대사에 둘 아닌 인연을 다 흡수하시고 말입니다. 보니까 전부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더라. 그러니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더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나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사시면서 뾰족하게 살면 몸과 가정이 다 해로우니까 좀 너그럽게 사십시오. 둥글게, 어질게, 착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물리가 터져야 우리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내 몸도 건지며 내 가정도 건지며 또 상대방도 건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거쳐 오면서 우리가 뭐는 안 돼봤겠습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한 마음으로 하여금 보살들의 이름을 다 지은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프면 의사요, 관세음, 지장, 칠성, 주해신, 주산신,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자기 한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 자기 한 마음에서 탄생시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그렇게 보살들을 이심전심으로서 낳게 해서 그저 용도에 따라서 달라는 사람마다 응신이 돼서 응해주셨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 현재에도 그럴 것입니다. 바로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는 거니깐요. 영원한 오늘이죠. 그 많은 보살들을 자기 마음의 이름으로 탄생을 시키시고 그렇게 모든 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안의 중생들을 또 다스려야 조복을 받느니라. 내면 속의 이 생명들은 수없이 살아나온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인연들입니다. 인연들이 바로 합세한 것입니다.

그 수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연들이 된 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머리를 짚어 보이시며) 이 정수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등동물의 인간이라 그렇게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거지처럼 빌며 기도하는 그런 습에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당당하질 못하고,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거늘 죽는 것을 겁내고 사는 것을 몇만 년 몇천 년 살 양으로 애쓰는 그 바둥거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내 한 몸 공했다는 걸로 모든 걸 알게 되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간다 이거를 알면 내가 한 일도 없을 것인데 말이죠. 나 자체가 한 일이 없으니깐 나 자체도 없구나. 찰나찰나 돌아갈 뿐이구나. 이거를 안다면 그냥, 공한데다가 공한 물질을 그냥 내버리면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아도 세상 살맛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살맛이 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달박달 사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병신이 돼서 있다거나 자식이 죽게 됐다거나 이러면 더 안달박달한단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앞서 죽고 뒤에 죽는 것밖엔 없죠.

김대성이가 시주를 하는데, 머슴을 살아서 새경 받은 걸로 논바닥 한 서너 마지기 사놓은 걸 그거를 스님한테 다 시주를 했단 말입니다. 시주를 하니까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때는 양반 상놈으로서 살던 시절이 됐기 때문에 도무지 그 종 문서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고,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여서 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주한 지 삼일 만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절 지으라고 시주를 뭉텅 갖다가 다 했는데 사흘 만에 죽었다면 어떻게들 생각하실 겁니까? 이 스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하하하. 아닙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재산을 톡 털어서 갖다가 스님한테 드렸는데 어찌 사흘 만에 죽었느냐는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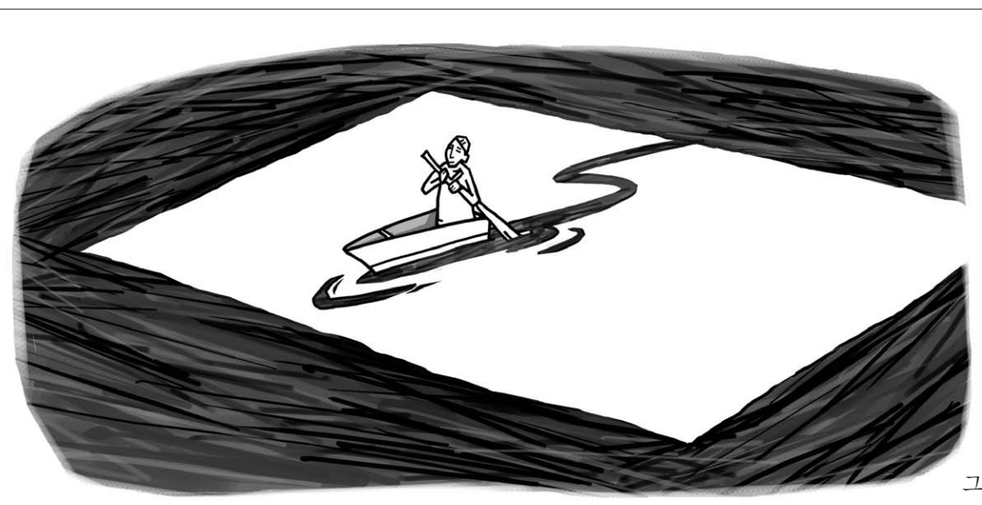
그런데 스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중생들한테는 묵언으로, 말씀을 못하시면서 함이 없이 하신 겁니다.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지. 하하하. 그 소릴 듣고서 우왕좌왕 할까봐 그대로 묵언으로 그냥 평등공법으로 그냥 실행을 하신 거죠. 그래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했는데 네가 시주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데로, 좋은 양반의 집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몸을 벗게 했구나." 하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르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재깍 생각이 나실까요? 그래서 김대성이는 사흘 되던 날 죽고 정승의 집으로 탄생을 했더랍니다. 탄생을 했을 때 어린애가 울고 또 그렇게 한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 낳으신 어머니와 과거 어머니 양쪽을 다 섬기셨더란 말입니다.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아이구,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왜 우린 안 돼?' 이렇게 비관적인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 비관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이 곱게 나왔으면 말도 곱게 나옵니다.

그러니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몸 안에 들은 중생을 부처님께선 비유를 하시길 몸은 배로, 물에 띄운 배로 치시고 그 몸 안에 들은 생명은 중생으로 치고 우리 불성은 바로 선장으로 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생명들은 이 속의 중생들은 배를 타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 중생들도 건지고 배도 성하게 갈 데까지 가게끔 이끌어야 할 텐데 선장과 같이 한마음이 되질 않아요. 모두 어떠한 일이 생겨도 선장한테 모든 거를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이끌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 이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그냥 하늘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 금방 내려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좀더 늠름하게 지혜롭게 여유 있게 딱 버티고 한번 쓱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2008학년도 구룡사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본 의식원은 불교전통의식을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주권공과정까지 여법하게 봉행 할 수 있도록 체계 있게 교육하는 범음범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사찰에서 행하는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우실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입학을 바랍니다.

•••••• 입학 안내 ••••••

- 모집학과 : 범음범패과정
- 입학자격 : 종단 및 승속에 관계없이 배우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가능
- 교육기간 : 2년 과정
- 접 수 처 :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대구광역시 동구 신무동 235-5)
  053)982-1417 /팩스 053)982-1417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수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기간 : **신입생 3월 4일까지**(청강생 수시접수)
- 강 주 : 상진스님(보우승가대학 범패과 교수. 전 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강주)
  강 사 : 자운스님, 혜성스님, 일묘스님(대구종무원 범음범패연구원 연구과정 졸업)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2008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오전 0시부터 졸업시연회 봉행 뜻있는 분 동참바람】
- 강의시간 : 월.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 강의 내용 ••••••

학년 \ 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기초 과정** **기초** : 목탁치는법. 천수경. 도량석. 종성 **예불** : 향수해례. 사성재. 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불공** : 삼보통청(사시마지). 퇴공. 각단불공의식 **시식**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외 **기타** : 장의편. 방생의식. 각종행사의식 등...	**상주권공 과정(범음범패)** 할향. 등게. 합장게. 고향게. 개게. 쇄수게 복청게(천수다라니)도량게. 참회게. 천수바라. 도량게. 요잡바라. 등 (바라. 작법기본 과정)
2학년	**천도의식 본과정(재채. 안채비. 사물다루는과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불공(지장청외) 중단퇴공. 관음시식. 봉송회향. 공덕게 ※ 다게작법.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욕건이. 운심게. 가지게	**2년 과정 총괄 졸업시연회준비** 1. 실전행사에 대비한 유기적인 의식진행 (법주. 바라지. 목탁. 태징. 북. 요령) 2. 작법고급과정(사방유신. 기경이. 향화게. 법고무. 옴남) 3. 모든 사물과 작법을 총괄정리 ◇ 특강 : 점안의식. 생전생칠 예수재 등에 관한 의식준비와 설명

한국불교태고종 구룡사 불교대학 학장 원봉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면서 자기 차원을 높이는 공부!

☞25면에서 계속

런 문제를 그 나고 드는 한구멍에다가 모든 거를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선장이 그 뜻을 받아서 오로지 이 의식들과 전체가 한마음이 돼서 처결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있는 줄을 알게끔 하죠. 그게 깨우침이니까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시고 말입니다, 수없는 생명들을 보고 수없는 생명들 속에 또 생명들을 보고 나니까 '내가 저 몸이 아니 되면 아니 되겠구나.' 해서 찰나찰나 그 모습으로 화했더랍니다. 그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기 모습과 같지 않으면 저항력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제도했단 말입니다. 제도하게 되니까 스스로 살면서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지고 그래서 스스로 깨치게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됐으면 '아이구, 이거 막다른 골목이로구나. 나는 길인 줄 알고선 들어왔더니 이렇구나.' 하고 도로 돌아나가게 해서 대로를 걷게끔 하는 것도 바로 부처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즉 여러분의 자부처의 바로 가르침입니다. 차원을 높이는 가르침 말입니다, 다스림이지요. 그러니 우리 생활이 바로 교재면서 자기 차원을 높이는 공부입니다.

부처님은 거지왕초고 그 제자들은 거지새끼들이라고 예전에 말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지왕초란 뭘로 인해서 그 소리가 나왔느냐? 오는 거 막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고 생기는 대로 먹고 주지 않으면 안 먹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건데 그 뜻을 모르니까 거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이 말을 하다보니까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절간에서 해제가 되면 스님네들이 나가서 경도 읽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나가서 한 철, 나가서 또 있다가 다시 결제가 되면 들어옵니다. 예전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들어와서 "저는 『화엄경』을 읽었습니다. 『법화경』을 읽었습니다." 하고 전부 그러는데 딱 한 사람만 "저는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다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은사 스님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럼, 저 부처님 법당에 올린 저 공양은 왜 먹느냐?"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제 밥이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니 열이 그냥 이렇게 뻗쳤겠지요. 그러니까 담박 호통을 치면서 나가서 불목이나 하라고 내쫓았단 말이야.

아, 불목을 하라는 데도 "예!"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냥 나무를 해다가 패서 불을 때고 싱그럽게, 아주 신나게 한단 말입니다. 다른 대중들이 보니깐 아,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란 얘기죠. 저렇게 신날 수가 있나. 그냥 웃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신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왔다가 유리문이 반사되는 걸 문인 줄 알고 거기를 주둥이로 자꾸 쪼다보니까 그냥 떨어져서 죽더란 얘기예요. 그런 거를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노래를 하니까 그걸 처음에는 '저놈이 저렇게 주절거리고 돌아다니고 저거 사람 되긴 다 틀렸어.' 하고 모두 그냥 밀쳐서 학대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웃고 즐기거든요. 그리고 일도 부지런히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지 스님 방에 불을 때려고 이렇게 장작을 끼고 오다가 그 노래를 또 했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벌이 방에 들어 유리창문이 문인 줄 알고 입으로 쪼다가 떨어져 죽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만 읽고 있는 자기 주지 스님이 말입니다, 책을 읽다가 들으니까 이상하니깐 탁 덮고서 그 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아, 그 소리거든요. '옳다구나! 저놈이 바로 깨친 놈이로구나.' 하고선 "얘, 아무개야!" 불렀죠. 들어왔단 말입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쥐고선 "너 내 자리에 앉아라." 그러고는 탁 앉히고선 삼배를 올렸다는 겁니다. 깨치면 삼배를 받은 놈이나 삼배를 한 놈이 두 놈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요. (대중 웃음) 그러니만큼 생활하는 여러분도 좀 지혜롭게 느긋하게 그냥 하늘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 금방 내려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늠름하게 지혜롭게 여유 있게 딱 버티고 한번 쓱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여유가 없으면 실패해요. 마음의 여유가 바로 자기를 소생케 할 수 있고 너그럽게 둥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마음의 여유가 바로 자기를 소생케 할 수 있고**
> **너그럽게 둥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어떤 땐 저도, 급하게 저기서 신도님이 와서 "지금 하혈을 한답니다." 그러고 급하게 이런단 말입니다. "아, 그랬으면 그랬지 웬 게 이렇게 급하게 야단법석이냐. 급하게 나한테 온다고 급하게 되는 게 아니잖나. 급하게 들었으니까 급하게 하겠지." 그러고선 그냥, 안 들은 거나 들은 거나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오길 "하혈이 멈췄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대인이죠. 예를 들어서 권투선수가, 아주 제일가는 권투선수가 그냥 여느 데 조그맣게 그냥 권투하고 이러는 데는 팔짱 끼고 보다가 여유 있게 가르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대인 노릇을 하지, 여유가 없으면 대인 노릇을 못하죠. 나라의 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가 또 이게 안되니까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해 놨다 안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돼서 이건 사람이 살기에는 어른들이 너무 휘휘 둘러놓는 것 같아서 힘들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한 가정의 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자식들도 여유 있게 클 수 있고 어디다 세워놔도 살 수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관하는 거를 재산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쳐야 어디다 세워놔도 이 주인공이 보디가드가 돼주고 해결사가 돼주고 그리고 항상 영원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바로 자기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 재산은 물려줘도 탕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탕치려야 탕칠 수가 없어요. 줄줄이 내려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낳아 놓는 것이 아니,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일체 생물이 다 그렇죠. 어떤 때 보면 짐승들도 그렇고 참, 하다못해 쥐 한 마리를 봐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생명이 죽거나 말거나예요. 난 산에 다니면서 그런 걸 가끔 보죠. 산쥐들, 다람쥐들, 토끼들 뭐 새들, 부엉이들, 뭐 이런 여우니 늑대니 이런 거요. 아무리 딴 사람한테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 자식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자기 생명을 겁니다. 자기 새끼들을 건드리려 하면 그냥 뭐 가차 없이 자기 생명을 걸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모습을 막론해놓고 그 모습이 돼주면서 내 모습 아님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도량 아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아픔 아님도 없느니라. 그 뜻을 여러분도 차차 가시면서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들어야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요. 자장면 그 집이 맛있더라 이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지만 자장면 있다는 소리도 이름도 못 들으면 그거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런 거와 같이 그저 제가 생략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툉겨놓으면 여러분이 다 그것을 그대로 요리로 알고 맛있게 잡수실 겁니다. 잡숫고서 소화도 잘되라고 합니다. (대중 박수) 그러면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포항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연과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인연 자식 인연 부부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인연 중에서도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인연으로 만나갖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어떤 인연은 서로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부부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그렇게 살면서 상대가 바깥 인연에게 마음이 더 끌려서 그이를 그리워하면서 자기 인연을 잘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이거를 잘 견디면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상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도, 진실된 사랑이라면 놓아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같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통 그냥 살아가면서 나 싫다는데, 금은보화를 준다 하더라도 나 싫다는 데야 할 수 없겠지요. 그러고선 놔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놔줬다고 합니다. 하하하. 보통 말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만남이 아닙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차원이 똑같다면 그 열 사람 중의 하나가 자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차원끼리 많고, 똑같은 차원끼리 또 많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 차원에 따라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당신의 팔자 운명의 그 차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차원을 만들어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다시 당신이 좋은 데로 피해서 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은 차원을 또 만나게 돼요. 자기 그림자는 항상 먼저 가 있죠. 하하. 그러니까 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벗어나려면 그거를 사람끼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음, 모든 게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내가 없이 네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로다. 과거나 지금 현실이나 미래를 또 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그럴 거다.' 하고 거기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면 바로 과거에 살아온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던 게 자동적으로 거기다 놓으니깐 자동적으로 또 입력이 돼서 앞서의 입력이 자꾸 없어지면서 입력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 내가 왜 그랬던가?' 얼마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정말 헛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우연히 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아주 그 새싹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잘 살더랍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피해서 헤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딴 자리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되고, 딴 자리에 가서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하고 간 사람이 거기 가서 또 그러면 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저 공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꽃 한 송이를 딱 들으니까 말입니다. 가섭이 싱긋이 웃었단 말입니다. 이게 꽃이 웃은 거나 사람이 웃은 거나, 사람 꽃이나 꽃 꽃이나 똑같은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하는 그걸 아시고 이심전심으로 보살들의 이름을 다 탄생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 모든 거를, 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정신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다 아마 송장이 될 겁니다. 살을 잘라내도 모르고 골을 바숴내도 모를 겁니다. 지난번에 저기 삼막사에 올라가다 보니까 송장이 한 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송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 송장이, 자기를 보면서 거기 쭈그리고 앉았는 겁니다, 지키고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 산 사람도 살려달라고 하고 살지만 죽은 영혼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는 얘기야.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요? 다 했어요?

질문자1(여):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나쁜 인연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좋은 인연은 또 좋은 인연대로 자기 차원대로 좋게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걸 받고 갑니까?

스님: 그렇지, 그렇지.

질문자1(여): 예. 잘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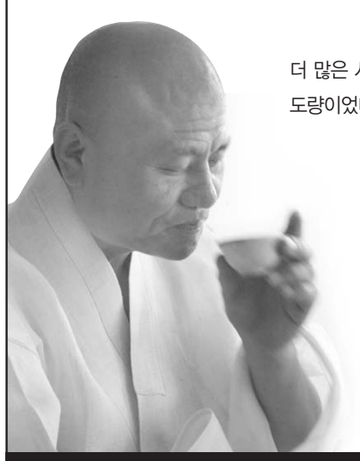
스님: 그러니까 무우도 배기무우가 있고 공다리 무우가 있거든요. 허허허. (대중 웃음) 이 도리만 전체 다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다면 정말 사는 데에 피곤한 게 없이 여길 봐도 웃음이 나고 저길 봐도 웃음이 나고 전부 그렇게 아마 웃고 살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웃다가 보니까 '아이구, 별로 우스울 것도 없고, 하하하. 아유, 또 울 것도 없구나.' 이렇게 되죠. 좀 그렇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장하심)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7년 3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둥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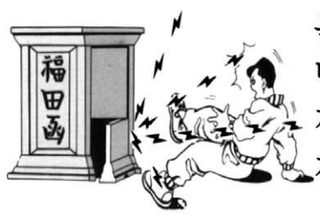


신국판 / 10,000원

현대북스 [現昊] (051) 244-1251 (02) 2198-5151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 교수

선진화와 민주적 이념

이명박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너무도 자주 듣게 되는 '선진화'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다시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전혀 나쁜 뜻이 있을 수 없는 '선진화'라는 말…. 혹시 그 말에 휩쓸려가다가 어떤 터무니없는 결과를 맞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은 나쁜일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 속에 숨어있을 수 있는 어두운 그늘을 걱정해야 한다는 글을 이 난을 통해 이미 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오른다.

이제 출범한 이명박 정부나 내거는 구호들이 그 좋은 의미대로 성취되기만 한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을 것이다. 아니 어떤 정권이건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를 진정하게 성취했는가에 대하여 똑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데는, 다른 역대의 정권들에 대한 것 보다 좀 더 큰 걱정과 의구심이 있다. '오렌지'를 '오린지'로 발음해야 한다는 영어에 대한 이상야릇한 콤플렉스를 가진 인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옳고, 그것을 과감하게 관철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독선에 비슷한 신념을 지닌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포진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가진 과감한 추진력이라는 것이 혹 이러한 모습을 띄고 드러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고, 미래의 후손들이 누려야 할 국토 환경을 바꿀 '대운하' 같은 중차대한 문제까지도 그런 식의 과감한 추진으로 결정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선진화는 과거를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조자룡 헌 칼 쓰듯 과감하게 권력을 휘둘러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우리 오랜 전통과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서구화 일변도, 그것도 극단적인 미국 편향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정말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진정한 민주적 이념을 세워나가는 일이 그 첫 번째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처럼 짧은 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물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그런 빠른 발전 가운데서도 가장 뒤진 곳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정치영역 아니었던가? 정치만 제대로 되었어도 우리의 발전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수도 없이 들었으며,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비하하는 유머가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선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정치의 선진화란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고 또 조직화하는 정당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바른 국가의 지향점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파행과 강행을 무릅쓰는 선진화와 개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분명 그에 대한 큰 기대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힘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뽑아준 것이요!"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바람을 우리 현실에 맞게 구체화 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통해 발현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큰 책임이다. 큰 방향에 대한 바람이 구체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더더욱 신중하게 그 큰 바람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요, 가장 모범적인 답을 내기 위해 온 국민의 여망을 다시 한 번 모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런 행보를 요구하면 결국 새 대통령의 큰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결정과정의 신중함이 없는 과감한 추진이 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것을 막는 길은 무엇보다 정치의 선진화를 통해 온당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의 기틀을 잡는 길밖에 없지 않을까? 각료의 임명과정에서부터 드러나는 파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어떤 사랑도 느끼지 못해요

"교수님, 차 좋아하시죠?"
30대 여자법우가 묻는다.
"네. 그런데 왜요?"
법우는
"어떤 차를 주로 드세요?"
하더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헤헤…, 사랑차 드셔 보셨어요?"라고 한다.
"사랑차요? 그런 차도 있어요?"
법우는 "네,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만들고 마음으로 마셔야 돼요."
마음으로요?
미소가 절로 나왔다.

다음은 법우가 전해 준 사랑차 제조법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밝은 봄날을 기다리시며 사랑차 한 잔 만드셔서 깊이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주위에 사랑의 차 향기를 널리 퍼뜨려주시면 더욱 더 좋겠고요.

사랑차 만들기

먼저 재료를 준비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3 마음으로 마시는 차

1. 성냄과 불평은 뿌리를 잘라내고 잘게 다집니다.
2.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 후 깨끗이 씻어 말립니다.
3.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토막을 낸 후에 넓은 마음으로 절여 냅니다.

재료가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시다.

4. 실망과 미움을 한 컵씩 붓고, 불만은 씨를 잘 빼내어 넣은 다음 푸~욱 끓이세요.
5. 미리 준비해둔 자료에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재료가 다 녹고 쓴맛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달이세요.
6.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미소를 몇 개 띠운 후 깨끗한 감사의 잔에 부어서 따뜻하게 나눠 마셔요.

감사 · 회향의 마음 '최고 맛'

결국 마음으로 만드는 차입니다.

그런데 차 재료준비가 의미심장합니다. '성냄과 불평은 뿌리를 잘라낸다' 이 말은 곧 화내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한 진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를 삼독에 비유하셨습니다. 차에 만일 독을 넣는다면 우리는 질색하며 절대 마시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독소는 방치하여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을 넣은 채 좋은 마음의 향기나 수행의 맛을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음으로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빼낸다' 이것은 잘못된 아상, 즉 나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증은 넓은 마음으로 절여낸다' 우리에겐 인연 따라 오는 경계에 짜증을 내기보다 마음의 입력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감사의 잔에' 차를 부어야 합니다. 어떤 잔에 따르는가에 따라 차맛이 전혀 달라짐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감사하게 회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사랑도 제 맛이 나질 않는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맛있게 사랑차 한잔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포살과 결계 정신 고양해야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수행의 종교'란 점이다. 절대존재에 대한 기도와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행하여 '완전한 인간(붓다)'을 이루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수행이 강조된다. 신행과 수행이라는 말에 개념상의 차이는 있지만 재가불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종교적 덕목은 수행이다.

수행자에게 있어 계율은 육신을 지탱하는 골격과 같은 것이다. 계율이 무너지면 수행자 개인의 수행도 무너지고 교단도 무너진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계율의 근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이 과연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계율의 근본정신에 얼마나 투철하냐에 따라 불교의 위의가 달라질 수 있다. 몇 가지 조목에 대한 의견차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계율정신에 대한 근원적인 복종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조계종은 '포살과 결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포살은 계율에 입각한 삶을 점검하고 반성(참회)하는 경건한 의식이고 결계는 계율을 제대로 받들어 지키겠다는 교단적 합의를 유지하는 틀이다.

조계종이 수행종풍 진작을 위해 마련한 이 법이 계율정신에 입각한 올곧은 종단의 틀을 유지하는 골간이 되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관계기관' 관리 틀 새로 짜라

최근 불교계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말년'에 접어든 제17대 국회본회의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을 문화재청이 갖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이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슬며시 무시되어버린 것이다.

뒤늦게 안 조계종은 발끈했고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까지 거북해 하는 지경에서 일부 의원들이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통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헤프닝' 같은 사건으로 인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발칵 뒤집혔다. 실장 · 국장스님과 담당 종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는 무안한 일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설마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 뭔가 씁쓸함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계종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정부 부서는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지만 국회 또한 많은 사안에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정각회나 각 정당 불자회와 종단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단속하는데 있어 더 이상 미흡함을 보이지 않으려면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관련 정보를 취합관리하고 국회와 국회안의 각 불자회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담자가 없을 때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부서차원에서 대응하고 말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5,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름다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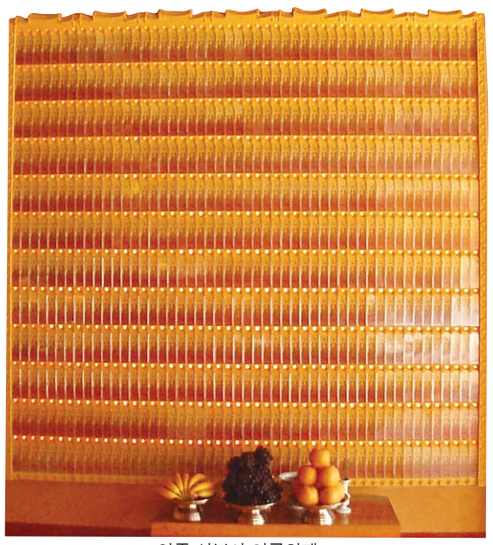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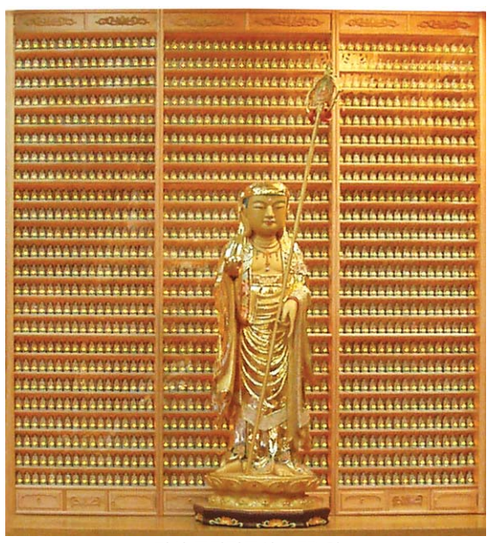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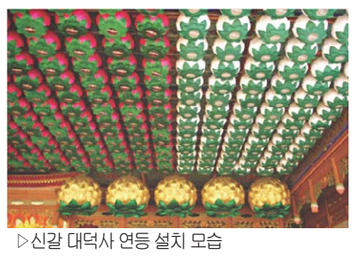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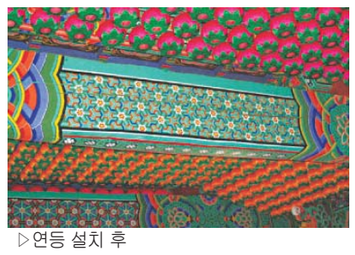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조계종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신축불사안내

생활불교 전법도량



도심속 포교의 전당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11,12번지
· 대지면적 : 1,260㎡(382평) · 총연면적 : 11,322㎡(3,425평)
· 건물규모 : 지상8층, 지하5층 · 건축기간 : 2008년 4월 ~ 2009년 9월

귀의삼보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불사에 동참하시는 분들께는 원불봉안과 아울러 사후에는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 차례 및 영구위패를 봉안하고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세세생생 천도기도 해 드립니다.

안 내

- 동참방법 : 신축불사에 동참을 원하시는분은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안양불교문화원 사무처 1588-1936 / 080-449-9500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 농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 abccenter123@hanmail.net

大韓佛敎 曹溪宗 地藏禪院 安養佛敎大學 財團法人 曹溪宗 安養佛敎文化院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이사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